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8호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음력 9월 23일 · 불기 2555년 · 주간)

참회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자꾸 장애물이 생기게 되지요.
'참(懺)'은 스스로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悔)'는 자기 고백입니다.

불국사 주지·회주 성타 스님



원칙 없는 정부탓에 佛心은 남북 없이 흔들린다

조계종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북 승인에 대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10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됐던 방북 승인 과정에 대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민간교류의 전면 허용 등을 촉구했다.

민추본은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위해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일부, 방북 승인 오락가락

방북 하루전 돌연 불허

4시간 만에 다시 승인

통일부는 방북 하루 전인 12일 오후 1시 30분경 돌연 방북을 불허했다. 민추본의 방북이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된 것은 올해만 벌써 3번째다.

민추본은 통일부가 방북 불허 방침을 알려오자 실무진은 물론이고 사회국장 혜경 스님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 불허 방침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통일부는 급기야 문서로 불허 통보를 보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추본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에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조불련은 민추본이 3차례에 걸쳐 방북을 취소하자 "황당하다. 더 이상 조계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는 민추본이 불허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항의의 뜻을 전하자 오후 5시 30분 경 태도를 바꿔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 통일부 최종 승인에 따라 민추본은 13일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해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북 불자들은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기원했다. 그러나 민추본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신뢰가 훼손된 남북 불교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추본은 "조계종과 조불련이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남북교류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민추본은 승인 번복 사유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들의 금강산 철수 사태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민추본 관계자는 "통일부가 금강산에서 남측 직원들이 철수된 상황에서 국민을 북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북한을 비판할 예정에 있어 방북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추본은 8월 24일에도 하루 전에 방북 승인을 거절당했다. 당시 민추본은 5월 경 지원했던 구충제가 취약 계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방북 승인을 요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31일에는 이번 밀가루 100톤 지원과 관련해 북측 실무자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에도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방북을 불허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개인의 약속도 이렇게 번복하지 않는다. 북측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민추본, 장관 공개사과 요구

대북 신뢰도 추락 우려

승인제도 전면개정 요구

식의 행정은 남북의 신뢰만 악화시킨다. 통일부의 이번 사태로 조불련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통일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은 "모니터링 차원의 방북은 정부의 요구사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8월 경 구충제 지원을 확인하기 위한 민추본의 방북을 불허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태도는 정부가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추본은 정부가 일관된 통일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을 대상으로 오만한 행정을 일삼고 있어 불교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민추본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북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한 적은 없다. 방북 승인이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불허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민추본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추본은 "통일부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언론을 통해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경위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2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내가 보낸 염소는 어디있나

불교 · 원불교 · 가톨릭으로 구성된 한국 여성수도자 모임 삼소회가 10월 5~11일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염소 한 마리의 희망'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는 삼소회가 올해 4월 직접 에티오피아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마련됐다. 관련 기사 21면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 사진제공=삼소회

낙산사서 한중일 불교지도자 만난다

종단협, 11월 1~2일

제14차 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 불교지도자들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2일 양양 낙산사 인근에서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연다.

대회는 1일 3국 교류위원회를 시작으로 환영만찬, 2일 오전 10시 낙산사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가 봉행된다. 법회에서는 3국 불교의 독특한 국가별 예불의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3국 불교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발표된다. 이어 양양 솔비치호텔 컨벤션홀에서는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주최 측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부회장 인공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중국불교협회 회장 전인 스님 등 중국 참가단 150여 명,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의회 회장 정토종 문주(종정) 이또우 유이신(伊藤 唯眞) 스님 등 일본 참가단 150여 명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불교협회, 일본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3개국이 번갈아가며 열고 있다.

조동섭 기자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다시 듣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불교인재원, 11월 16일부터

석달간 총 11회 강좌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동안거 동안 총림 대중에게 매일 설법했던 '백일법문'이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재현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강좌를 연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영원한 행복을'이란 주제로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11월 16일부터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거쳐 진행된다.

행사의 증명법사인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중심으로 2600년 불교사를 한 줄로 꿴 최고의 불교교리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회비 15만원. (02)735-2428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858호 CONTENTS

北 취약계층에 밀가루 지원 2
동방대학원대학 총장 무혐의
장적·덕조 스님 종회의원 당선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3
인터뷰 6
108산사순례기도회 혜자 스님
현장속으로 11
조계사 서울의 아름다운 길
걷기명상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진흥원 새 이사장에 김규칠 이사 추대

14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민병천 이사장의 타계로 공석이 된 대한불교진흥원의 신임 이사장에 김규칠 이사(사진)가 추대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직무대행 배명인)은 10월 14일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제142차 이사회의를 열고, 제13대 이사장에 김규칠 상임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김규칠 이사장의 임기는 선출일 10월 14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이다.

이날 진흥원 이사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가는 진흥원이 되자는데 뜻을 모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이사장 및 이사 선출은 세대교체의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시대의 진운과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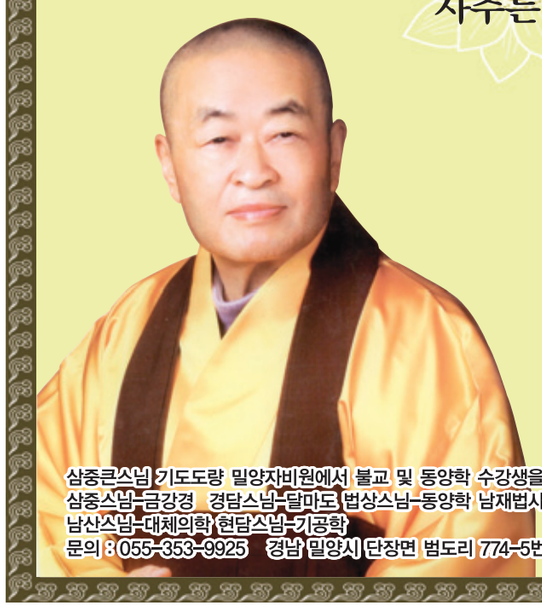
신임 김규칠 이사장은 서울대 법과대 학부, 신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외교관 및 BBS 사장 등을 지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신비한 빛을 내는 '옴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금장액자 특별보급!

사주는 전생의 업에따라 변하므로 현재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은 기도와 방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삼중큰스님 기도도량 밀양자비원에서 불교 및 동양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삼중스님-금강경 경담스님-달마도 법상스님-동양학 남재법사-성명학
남산스님-대체의학 현담스님-기공학
문의 : 055-353-9925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774-5번지 (자비원)

옴 신묘장구대다라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영업, 부동산, 주식, 결혼, 승진, 조상, 우환, 부부, 시험, 건강

▲ 옴 신묘장구대다라니

■액자 중앙의 푸른색 옴자는 어두운 밤 밝은 빛을 내어 가정의 나쁜 기운을 소멸합니다.
■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인연맺은 불자님들은 법상스님께서 전화 인생 상담을 해드립니다.

▶보 시 가 : 24만원 6개월 (무이자) 월4만원
▶구입문의 : 삼중큰스님 기도도량 자비원
080-300-1080
▶입금계좌 :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 규격 : 40cmX40cm (보증서첨부)

옴 신묘장구대다라니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신기하고도 미묘한 주문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인 동시에 위신력인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힘은 불가사의 한 것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암송하면 우리 마음의 파장과 일치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술술 풀리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실 때 천목의 자리에서 수많은 신장들이 자신의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빠져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시면 더욱 더 효험이 있습니다.
이번 삼중큰스님께서 불교 강의장 후학양성을 위해 기금 조성목적으로 만든 '옴신묘장구대다라니' 금장액자는 큰스님 기도처에서 점안한 것으로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하시면 불가사의한 대다라니의 영험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박삼중 합장

특 별 선 물
1. 경담큰스님 친필 기도달마도 1장
2. 4인가족 이름 및 사주 무료감명
3. 2012년 임진(壬辰年) 윤년달력1권

'옴 신묘장구대다라니' 수익금은 삼중큰스님 불교학당 후학양성에 쓰여집니다.

쌀 대신 밀가루 … 미안합니다

북한 취약 계층에 밀가루 지원
금강산 신계사서 남북합동법회

"이번 밀가루 지원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신계사는 앞으로도 누구나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도량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10월 12~13일 북한을 방문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위한 밀가루 100톤을 전달하고,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남북공동법회를 개최했다.

민추본은 12일 임진각에서 '북한 수해지원 밀가루 100톤 환송식'을 가졌다. 북한은 올해 발생한 수해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추본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기금을 통해 밀가루를 마련했다.

밀가루 지원을 위한 방북단에는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 사회국장 묘장 스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개성 봉동역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에 밀가루를 인도했다.

이번에 지원된 밀가루 100톤은 평안북도 향산군지구 향암탁아소, 향암 유치원, 로현 유치원, 향암 소학교 등에 전달돼 취약계층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는 조불련으로부터 분배 계획서를 전달받아, 밀가루의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민추본은 지원된 밀가루의 정확한 전달 여부를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된 밀가루는 이웃 종교의 지원량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민추본이 밀가루 100톤을 전달하던 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밀가루 200톤을 북측에 지원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가 전달한 밀가루는 평안남도 안주지구 등 14개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에 전달된다.

10일 열린 민추본 간담회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혜일 스님은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후원회나 모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불교계 타 종단과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추본은 또 13일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해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남북대표의 연설과 남북공동발원문이 낭독됐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가운데)과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사진 왼쪽), 사회 국장 묘장 스님(사진 오른쪽)이 방북에 앞서 대북 지원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지홍 스님을 비롯해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 사회국장 묘장 스님, 민추본 이사 혜자 스님, 결사추진본부 위원 심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리규룡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 류인명·리영호 스님 등이 함께했다.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계사 복원불사는 통일 민족사에 길이 남을 불교도들의 큰 걸음이자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법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자승 스님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불교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대아산 직원 등 우리측 인원 모두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초보다 방북단 규모가 축소됐다. 더구나 통일부는 신계사 합동법회를 위한 조계종의 방북을 하루 전에 불허했다가 허용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추본도 신계사 합동 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의 행정을 질타했다.

지홍 스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42개 사찰 30명 스님 다시 살려내라

정대·월주 스님 등 원로
피해 및 명예회복 신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10·27 법난 피해 신고 및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월주 스님의 상좌 화평 스님은 10월 12일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단장 최동식)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10·27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당시 신체적 고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23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위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스님으로서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종단의 권위와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월주 스님은 신청에 앞서 "10·27법난은 단순한 종교탄압사건이 아니라 무법천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권유린이다.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해 온 조계종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고 종단의 명예와 승단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10·27법난의 진상은 반드시 재규명돼야 하며 국가의 사과도 진정성 있게 다시 이뤄져야 한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신청을 한다. 정부와 불교가 진정으로 화해해 정교분리와 국민통합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0·27법난 관련법은 당시의 상이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주 스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이를 갖고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몰상식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체적 후유증이 없을 경우 조사관이 정신적 충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스님들에게 당시 상황을 묻는 것은 스님들을 두 번 욕보이는 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계종 총무원도 10·27법난 후유증 등으로 입적한 스님 29명과 조계사 등 대부분의 교구본사가 포함된 42개 사찰에 대한 종단 차원의 피해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대 스님의 피해 신청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로 제출됐다.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실무위원회에서 스님과 사찰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본회의격인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명예회복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 여부 확정까지는 3~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범 기자

전통사찰 방재, 이제는 예측하는 시대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이 구축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10월 12일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업체 두 곳을 종단 인증업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업체는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전문업체인 새턴정보통신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업체인 파슨텍이다. 시스템 구축 사찰은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종단이 선정한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시스템 구축에는 정부가 250억원을 지원해 10년간 실시된다. 시공에는 종단이 인증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

조계종은 이번 사업을 통해 100여 전통사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지속적으로 전통사찰의 방재를 비롯한 사찰 방재 전문 기술력을 축적해 전통사찰 방재를 체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종단 표준의례 한글 '반야심경' 봉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의례의 한글화를 위한 '종단 표준의례 한글 〈반야심경〉 봉정식'을 10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은 "한글본을 통해 반야심경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글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의례 한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고 말했다. 인묵 스님은 한글 〈반야심경〉본을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올리고 사부대중과 함께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했다.

박기범 기자

아름다운동행 2기 구성 … 새출발

대표 모금기관 청사진 제시

불교계 최초 모금기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제2기 이사진이 출범했다.

동행은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사진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이사진은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사회부장 혜경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종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동행은 "2기 이사진들은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사회 대표적 모금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2008년 9월 30일 출범 이후 2008년 2억 3150만원, 2009년 11억 579만원, 2010년 29억3195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42억 5085만원 등 총 85억 2011만원을 모금해 저소득층 지원, 국제구호 대북지원 사회복지 및 NGO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장적·덕조 스님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서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이 10월 10일 무투표 당선됐다. 한편, '구족계 미수지'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법일 스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다.

조동섭 기자

동방대학원대 정 총장 무혐의 판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동방불교대학원대학 정상옥 총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정상옥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0월 7일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봉 행

대한불교 반야종 창종 대법회

초대종정 **회 범 대종사**

원로의원 **도 관 보 성 성 철**

종회의장 **청 명** 종회부의장 **혜 관** 총무원장 **지 법** 총무부장 **용 산** 재무부장 **성 담** 감찰부장 **수 명** 포교부장 **백연화**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구로 봉체하고 보조국사께서 창수하신 수신대법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정혜쌍수를 종지로 삼아 불법을 널리 홍포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대한불교 반야종 종단 창종을 선포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 스님 및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합장

권 일 시 : **불기 2555(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10시**
권 장 소 :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29-1 동아사
권 문 의 : TEL 054)742-2633 / 010-3519-2633
FAX 054)776-2227

▣ 총무원 :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29-1



'佛法지켜서 富者된다'는 믿음부터 갖추자

가치 훼손없는 사업 모색 시급
법인 설립 등 전문성 강화 제시

"불교적 가치와 수익사업 추구가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전문인력의 영입으로 수익사업의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조계종단의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담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도문)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과 재무부 장영욱 총무원 재무부 사업팀장이 발제에 나섰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법인체 설립 등 수익사업의 주체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법안 스님은 불교적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원칙 없는 과도한 이윤 추구로 생명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종단 수익사업에서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불교적 가치와 이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사찰유휴지를 활용한 약초·유기농산물 재배, 생협, 불교식 장례사업, 국제명상센터, 문화재보수사업 등을 제안했다.

불교적 가치 준수에 대해서는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남진 NGO리서치 연구소장은 "종단 사업 설계 때부터 이타적 서비스 구조로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적 가치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는 사고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이를 위해서 종단이 '플랫폼 사고'를 강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진 소장은 "종단이 무엇을 제공하면 많은 불교 인력이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사람을 채용하고, 재화와 가치·능력들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유통시키는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욱 재무부 사업팀장은 '종단 재정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장 팀장은 조계종 생수가 시장의 60~70%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산간 등에 위치한 사찰의 배달문제, 유통 확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 서비스의 경우 불교식 장례식 장례·포교와 결합하지 않아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종단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과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수익사업 추진 경영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또 "현 단계에서는 사업 영역 및 사업규모, 사업성 등과 연계해 기존 법인에 흡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 조직을 행정 조직에서 분리하고 법인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법안 스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스님은 수익사업의 주체를 확립하고,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스님은 "법인 설립의 전초과정으로 '조계종 수익사업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의 일원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2~3인의 종무원들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우와 함께 이상근 대표도 종단이 지주법인 형태의 수익사업체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대표는 또 종단이 재정 확보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전국 2000여 불교관련 사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토론자인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도 불자들 가운데 뛰어난 전문 경영인을 통해 컨설팅을 받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스님은 수익사업의 원칙이 확립된 상황에서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 스님은 "수익사업은 종단의 운명과 같다. 투명성, 공익성,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화의 씨앗이 될 뿐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배치되지 않는 사업을 합리적 경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무문관

천축사 묵언템플스테이 열기로

1964년 건립돼 관응·제선·구암·원공 등 100여 스님들이 정진했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이 폐관 20여 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봉산 천축사(주지 법우)는 10월 5일 무문관을 재개원한데 이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문관 활용계획 등을 밝혔다.

천축사 무문관은 1964년 육영수 여사 등의 보시로 건립돼 4~6년 동안 면벽수행하는 수행처로 유명했다. 1965~1979년 두 차례 6년 결사 동안 100여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였지만 정진 기한을 채운 스님은 4명에 불과했다.

주지 법우 스님은 "천축사 무문관은 조계종의 첫 무문관이다. 1979년 폐관한 것을 선지식들의 뜻을 받들어 3층 규모의 현대식 석조건물로 개비했다"고 말했다.

천축사는 도봉산 입구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된다. 스님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천축사의 지리적 불리함을 명상과 묵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천축사는 먹거리를 참가자가 직접 짊어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천축사는 이런 산중사찰의 특징을 살려 참가자 자신이 갖고 올라온 먹거리를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도 정례화 할 예정이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이 폐관 2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10월 5일 무문관 낙성 법회의 모습.

법우 스님은 "불사를 마친 무문관을 사부대중 모두의 수행처와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겠다. 시민선방과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해 선지식의 수행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미디어는 현대식 사찰…적자라고 없애서야

BBS불교방송 신임 이채원 사장



"IPTV를 비롯한 신문, 방송 등 미디어는 현대식 사찰입니다. 신도의 발길이 적다고 해서 부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9월 26일,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제76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채원 前 강릉MBC 사장(사진)을 제8대 사장으로 선출했다. 사장 선출이 공전을 거듭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사장 취임 후 보름 여가 지난 10월 12일,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은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와 계획 등을 밝혔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을 면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장도 부재한 채 노력해 온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채원 사장은 "(사장을 지낸) MBC는 상업에 가까운 공영방송이지만, BBS불교방송은 종교방송이다. 상업방송의 시청율 지상주의를 종교방송의 모토로 삼을 수는 없다. 둘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BBS불교방송은 오래 전부터 경영수지가 악화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IPTV 등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종편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과 광고수주 감소 등이 불교방송BBS가 직면한 어려움들이다. 이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었다.

이채원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보니 그동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보라고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IPTV 등 BBS불교방송이 운영 중인 미디어를 보는 시각은 신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장은 "IPTV 등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 사찰이다. 신도의 발길이 적다고 해서 황폐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IPTV는 아직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하지만 CATV보다 이용자의 증가세는 빠르다. 이채원 사장은 이를 "IPTV는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사장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독경소리에 잠이 깨고, 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불사가 있는 사찰에는 관광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 불사를 도운 왕보살 어머니의 공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채원 사장은 "자비 등 불교적 규범에 의해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다. BBS불교방송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불교적 규범을 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면담 통해 경영 안정화 방안 모색
> IPTV 진출은 현대식 포교 방편
> 불교적 규범 준수한 경영 다짐
> 공영 미디어랩 포함 위해 주력"

이 사장은 최근 사장대행 체제에서 사측과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노조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BBS불교방송은 빠른 시일 내 지방발령으로 보복인사 논란이 있던 노조위원장을 본사로 복귀시키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조는 비록 정제된 목소리는 아니지만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위험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채원 사장은 프로그램 편성 개편 등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직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장기적인 회사 변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 수지 개선을 위해 공영미디어랩에 종교방송의 하나인 BBS불교방송이 포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BBS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정용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채원 신임사장 취임축하와 협력의 뜻을 밝혔다.

불교방송 노조는 "신임 이채원 사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노사상생과 불교방송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당 및 전각의 마루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마루 바닥을 3~4회에 걸쳐 고르게 원목 그대로 표면 처리 합니다


2. 코팅 후 칠이 마른 다음 한차례 더 표면을 깎아낸 후 마감 코팅을 합니다


3. 완성된 깨끗한 모습.

밝은세상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 이메일 lty64@korea.com

일 주 문



통도사 양산 전법회관 기공식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0월 7일 양산시내에서 양산 전법회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동화사 선지식 초청 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30일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을 초청 일요선지식법회를 개최한다. (053)982-0101



송광사 2011 금강산림대법회
조계종 前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10월 28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사로 나선다. (061)755-5306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02)732-2183



해인사 무생계 수계 대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0월 28일 해인사 경내에서 무생계 수계 대법회를 개최한다. (055)934-3000



고운사 제4회 천년솔 사생대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29일 고운사 경내에서 제4회 천년솔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화엄사 2011 화엄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0월 29일 화엄사 경내에서 2011 화엄제를 개최한다. (02)703-6599



선운사 청년회 창립법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10월 29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선운사 청년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063)561-1422



무심사 지장보살 점안법회
대구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10월 23일 무심사 극락보전에서 지장보살·금강역사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불교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박경준 한국불교도서관협의회 회장은 10월 6~7일 합천 해인사에서 불교도서관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 포교대상

포교원, 제23회 포교대상 수상자 15명 발표

제23회 포교대상 수상자에 설악산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6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오현 스님 등 1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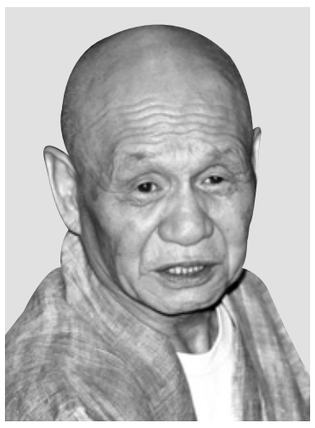
포교대상(종정상)을 수상하게 된 오현 스님은 1968년부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시조시인으로 활동하며 불교정신 서양에 기여하는 포교분야에 지대한 업적을 쌓아왔다. 특히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만해대상' '만해축전' 등을 주최해 왔다. 또한 2006년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전법포교를 꾸준히 펼쳐왔다.

이번 포교대상은 '포교대상운영에관한령'의 개정에 따라 수상대상 범위를 개인에서 사찰 및 단체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공로상(종무원장상)에는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화계사(주지 수암), 반갑다연우야(대표 구자선) 등 4곳이 선정됐다.

포교원은 "정운 스님은 1989년 세원사 창건 후 어린이 및 청소년 법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1995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립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창단해 청소년 선도와 포교에 공헌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윤환 회장은 1991년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이후 2003년 회관 건립, 2006년 법당을 건립해 지역불교단체의 법석을 마련하고,



문화사랑방을 개설해 불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과 불교서적 보급에 앞장섰다. 또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청소년 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계사는 주요공적으로 1964년부터 현재까지 32곳의 해외선원 및 국내서원 개원, 1995년 불교대학 설립 후 2636명의 학생 배출, 111명의 포교사를 배출시켜 각 분야의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갑다연우야 역시 2006년 발족 이후, 이주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진행해 왔다.

이밖에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 호국천룡사 주지 법연 스님,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가수 장미화, 김영란 측추병원 행정원장, 박명혜 사단법인 자행회 회장, 김귀경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 김동확 포교사, 김연우 거창여고 교사, 성불사(주지 학명) 등이 선정됐다.

한편,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25일 오후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스님이라면 응당 한글의례 알아야"

조계종 염불교육도감 위촉된 화암 스님

"조계종 승려라면 새로운 시대 포교를 위해 반드시 한글의례를 집전할 수 있어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10일 염불교육 지도위원으로 조계종 어장 원명 스님 등 4명을 위촉하고 염불지도교수사를 지도할 염불교육도감에 화암 스님(사진)을 위촉했다.

염불교육도감은 각급 승가교육기관에서 염불을 지도하는 한글염불의례지도교수를 육성하고 지도하는 자리다.

화암 스님은 10일 위촉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원은 내년 3월 개설되는 행자교육원과 수계산림에서 조계종 표준 〈반야심경(한글반야심경)〉을 시험과목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젊은 스님들을 축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글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만해·용성 스님들이 펼치신 의례 한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계속 뒷걸음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향후 5~10년의 노력이 중요하다. 각 지역 교구에서 한두명씩이라도 한글 의례 교수에 동참하면 전체 의



식의 한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최근 공포된 한글 〈반야심경〉은 조계종 의례위원회가 수차례 회의와 시연을 거쳐 공포했으며, 조만간 예불문과 〈천수경〉, 법성계, 무상계, 시식 등 의례 역시 한글화를 마무리한 뒤 종회동의와 총무원장 공포과정을 거쳐 각 사찰법회에서 시행된다.

스님은 "고민만 하다 도입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막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화방지연대 회장 대원 문재현 선사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막화는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가 10월 10~2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사막화 방지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선방 수좌 스님들과 '사막화방지국제연대'라는 사단법인체를 2009년 결성해 사막화방지운동에 나서고 있는 사막화방지연대 회장 대원 문재현 선사는 총회 기간 동안 컨벤션센터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문재현 선사는 이번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막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선사는 " 사막화의 실상을 살펴보면 방대한 규모와 진행 속도에 놀라게 된다"며 "사막화의 면적은 현재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장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사는 "사막화는 인간의 개발과 산업 활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것으로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사는 불자들이 간과해왔던 국제 환경이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선사는 "사막화와 같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며 "결국 우리들, 우리 후손들이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한국생활불교조계종 2012년 종단계획 의결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0월 7일 종단 총본산인 영양 관법사에서 종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종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사업을 의결했다. 한국생활불교조계종은 2012년 창종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및 종단 해외교류를 위한 성지순례, 종단수륙재 등을 진행한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총무부장 도흥 스님 외 신임 임원이 임명됐다.(054)682-5808 **노덕현 기자**

40회 일붕문도의날 기념법회

전국일붕문도중앙회(회장 의륜)는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0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날 기념대법회 및 일붕계보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삼중 스님의 일붕사상 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율사조계종 청파 스님의 상축문, 육법공양, 헌화 헌향, 일붕문도회 부회장 만주 스님의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신라 영산대재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10월 8일 제39회 신라분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5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진행된 영산대재는 타종식과 육법공양, 범패와 불교무용 작법무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상주 도림사 산사 가을음악회

상주 도림사(주지 탄공)은 10월 8일 상주문화회관대공연장에서 제10회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도림사 회주 자용 스님, 성백영 상주시장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승정원장 벽봉 원로원장 법령

원로원 월타 지관 대원 일장 무송 혜암 화담 일우

◇각원 원장
호법원장 대원
의전원장 의담
교육원장 남산
포교원장 보광
기획원장 일두
총무원장 도선
비구니회장 혜담
문화원장 도명
연수원장 대공
사정원장 암두

◇각시 도 종무원 원장
창원중앙종무원장 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재현
구미중앙종무원장 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경보
인천중앙종무원장 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청우
영덕중앙종무원장 지공

◇총무원 각부장
총무부장 도흥
교육부장 정봉
사회부장 청암
호법부장 성보
포교부장 도명
교무부장 보현
비구니부장 용정
문화부장 도명
의전부장 성담
중앙포교1부장 금정
중앙포교2부장 효성

◇총무원 각국장
문화국장 보성
사서국장 성덕
사서특보 성만
기획국장 성각
사회국장 원각
종무국장 성원
연수국장 함월
수행국장 보각
수행특보 성민
비구니국장 지현
예능국장 성암
의료봉사국장 법천
포교국장 성우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지명
포교국장 법성
포교국장 성운
포교국장 혜원
포교국장 태룡

◇종립미래로 봉사단
회장학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무 심진화(차영란)
임원 대도심(어월순)
법화심(김막두)
종립예술원원장 묘각(이재인)
종립예술원부원장 보현화(유희연)
가릉빈가합창단장 수선화

◇법사승단 임원
경남원장 도혜
울산원장 법광
충남원장 명보
경북원장 성인
포항원장 명성
충북부장 상학
대전국장 정대
경기부장 덕산
전남부장 혜명
강원부장 성월
재무부장 자운
총무국장 원명
재무국장 덕운
종무국장 혜명
국제국장 지원
부산국장 혜성
사천국장 여랑
울산국장 상학
포항국장 득원
구미국장 혜진
화순국장 보정
포교국장 청운
포교국장 성견
창원국장 세현
대구국장 혜련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고려대장경은 강화도가 아니라 남해에서 조성됐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동국대 정각원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법회서

“초조대장경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77년 동안 판각(板刻)됐고, 해인사 대장경판(팔만대장경)은 강화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해 1236년부터 1251년까지 판각됐다고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강화 선원사가 아닌 경남 남해에서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국 한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은 10월 13일 동국대 정각원이 주최한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특별법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이날 “1978년부터 자료를 수입한 결과 팔만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된 것이 확실하다. 그동안 팔만대장경의 제작을 위해 강화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남해에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해왔으나 두 곳 모두 동일한 곳이었고 남해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상국 원장의 정각원 특별법회 발표 요약이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박 원장은 이날 “고려 대장경판에 담긴 정신이 오늘에 와서 왜곡되고 퇴색돼 과거 유물로만 치부되고 있다”며 “과거의 명성에 머물지 말고 학자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대장경으로 만들고, 고려대장경판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동대신문사)

그동안 일본 강점기부터 초조대장경은 현종 2년인 1011년부터 선종 4년인 1087년까지 77년 동안 판각됐고, 해인사 대장경판은 선원사에서 대장도감이 설치돼 1236년에서 1251년까지 판각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7년 걸렸다는 학설은 비상식적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된 한국 최초의 대장경입니다. 이 대장경은 중국 북송 대장경(971~9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간행된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입니다.

그동안 판각시기에 대해서는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오는 현종 2년인 1011년에 시작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77년 판각기간은 비상식적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판각했는데도 1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조대장경 판각에 77년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 77년은 고려 세가 중 선종 4년인 1087년 등장하는 개국사(開國寺), 흥왕사(興王寺), 귀법사(歸法寺)에 대한 기록이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1011년부터 1087년까지 77년이 걸려 새겨졌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2월 11일(甲午) 행개국사 경성대장경(幸開國寺 慶成大藏經), 3월 7일(己未) 왕여흥왕사 경성대장전(王如興王寺 慶成大藏殿) 4월 19일(庚子) 행귀법사 경성대장경(幸歸法寺 慶成大藏經) 기록을 살펴보면 2월과 4월에 개국사와 귀법사에서 각각 대장경을 한부씩 봉안하는 의식이 열려 참석했고, 3월에는 흥왕사에 대장경 판본 봉안을 위한 대장전이 지어져 그 낙성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경도대 명예교수인 찌쿠사 교수에 의하면, 북송 개보판 대장경은 판각기간이 971년에서 977년까지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는 중국 못지않은 인쇄문화대국이었고,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내용을 일일이 대교하면서 판각됐는데도 준비 기간까지 합쳐서 16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조대장경 판각에 77년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조대장경은 송 개보판 대장경을 저본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에 실린 〈근본설일체비나야파승사〉를 보면, 국전본(國前本)과 국후본(國後本)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전본과 송본 그리고 국후본과 거란본을 비교한 것을 보면 문종 때 새긴 경전은 거란본을 상당수 수용했고 현종 때 새긴 것과 중복되는 경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전본은 송 개보장을 저본으로 하여 현종 때 판각을 완료했고, 국후본은 밀교경전 등 송 신역(新譯)경전과 거란대장경의 일부 경전을 수용해 문종 때 추가로 판각된 것입니다.

문종 때는 초조대장경 판각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초조대장경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속편(속장경)으로 판각된 것입니다. 판각기간은 현종 때의 초조대장경 판각은 1011년부터 10년, 문종 때의 속장경은 1065년부터 5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만대장경도 조성 16년 틀리다. 12년 조성설이라야 맞다.

초조대장경판이 1232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 버려서 다시 새긴 것이 해인사에 있는 일명 팔만대장경판인 고려대장경판입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 판각 시기는 〈고려사〉를 보면 ‘고종 38년(1251) 9월 임오(壬午)에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으로 현종 때 판본이 임진년(1232) 몽고 침입 때 불타 버려 군신이 다시 발원해 도감을 세우고 16년이 걸려 마쳤다’ 고 고유(告由)한 고유제에 참석한 내용에 기반합니다. 학계는 고종 38년을 기점으로 16년 전인 고종 23년에 판각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기록은 대장경의 판각을 모두 마친데 대한 경축 의식을 행한 내용이므로 판각 기간 산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장경판 판각은 이미 고종 35년에 모두 마쳤는데 경축 의식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축 의식이 늦어진 것은 당시 대장경 판각을 모

> 초조대장경 조성기간 10년
> 팔만대장경 조성기간 12년
> 조성지는 강화도 아닌 남해
> 최씨 무인정권 재정 뒷받침

두 마치고 난 뒤 대장경 판각을 담당했던 분사남해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대장경판을 강화의 대장경판당으로 운반해야 했고, 또한 무엇보다 대장경 판각을 지원했던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우가 고종 36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최항이 집권하는 정치적인 과도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판각 기간의 잘못된 추정은 전래된 역사 자료의 결핍 탓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나 현존 판본의 권말에는 정유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丁酉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등으로 간행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간기를 조사해 보면 대장경판의 판각 기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계 통설보다 앞서는 대장경판 조성시기는 고종 19년(1232)에 초조대장경판이 소실됐고 더구나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곧바로 대장경판 조성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정황으로 설명가능합니다.

판각한 것은 1237년 2종 115권을 판각한 것을 시작해 1248년 대장목록 판각을 마지막으로 12년이 걸려 1496종 6568권을 완료했습니다.

강화도가 아닌 남해에서 판각됐다.

그렇다면 고려대장경판각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동안 고려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이 설치돼 선원사에서 판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경판의 간기를 조사해 본 결과 1243년부터 대장경 판각이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대장경판은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판만이 아니라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2종 경전 가운데 전체가 분사판인 것은 51종이고 나머지 21종은 분사판과 대장도감판이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경은 모두 72종 501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각기간은 계묘년(1243)에서 정미년(1247)까지 5년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각 수를 조사해 본 결과, 동일한 각수가 대장도감판도 새기고 분사대장도감판도 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순 799번 생경은 5권으로 구성된 경전인데 권 2와3은 분사대장도감이고 나머지는 대장도감판이며, 경순 800번 불설의족경은 2권짜리 경전인데 권1은 분사판이고 권2는 대장도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사대장도감이나 대장도감판이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강화정부는 대장경판을 판각할 여력이 없었고, 최이가 대장경 판각을 주도했습니다. 최이는 당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였고, 진주 지방 일원은 그의 아버지 최충헌 때부터 식읍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안 조에서 보면 최이가 그 재능을 사랑하여 임금에게 말씀드려 국자제주를 제수하니 정안이 최이가 전권해 남을 시기하고 해치는 것을 보고 그 해를 멀리하고자 남해에 퇴거해 부처님을 좋아하며 명산 승찰을 편력하고 사재를 희사하여 국가와 약속하고 대장경의 반정도를 간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안은 국자제주를 그만둔 고종 28년(1241) 이후 남해로 내려가 대장경 판각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정안의 집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동지역 호족이었고 또 최이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판각이 끝나고 난 뒤 1249년 남해 자기 집을 사찰로 꾸미고 일연 선사를 맞아들였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이렇게 남해는 대장경판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간기를 통해 본 대장경판 판각 연도별 분류표〉에서 보듯이, 실제로 정안이 남해로 내려가 대장경 판각에 참여한 1242년부터 5년 동안 전체 대장경 판각의 3분의 2이상이 판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안이 남해에 퇴거해 대장경의 절반 정도를 간행했다는 내용은 정안이 당시 최우와의 약속과 함께 이 사업을 주관했고 남해에서 대장경 판각사업을 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판전에 100권으로 구성된 〈종경록〉에 ‘분사남해대장도감’ 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어 그동안 추정해 왔던 대장경판 판각 장소가 남해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인사 대장경판 목질을 조사한 결과 대장경판 목재 가운데 남해 근처에서 채취한 목재가 섞여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나눔으로 함께한 10년…소중합니다

노숙인들의 쉼터 조계종 보현의 집 4인방



보현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책임지는 어머니같은 보살들

조계종 보현의 집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노숙인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노숙복지시설이다. 이곳에서 노숙인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10년 넘게 보현의 집에서 급식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자, 이병팔, 오정애, 이명운 보살들이다.

2000년부터 보현의 집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보살들은 이제 한 가족처럼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이 깊이 들었다. 이명운 보살은 "가족처럼 정이 많이 들어서 봉사가 없는 날에도 보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보현의 집을 찾아 따뜻한 식사를 준비한다. 몇 년 전에는 조리 재료를 다듬을 공간이 없어서 마당에서 작업을 했다. 추운 겨울에는 손발이 시릴 정도였지만 이제는 보현의 집에서 휴게실도 마련해줘 봉사활동이 한결 편안해 졌다.

이병팔 보살은 "겨울에 김장 김치가 마당에 가득히 쌓여 있어도 수다를 좀 떨다보면 어느 새 김장이 끝난다. 한 쪽에서 저리면 다른 한 쪽에서는 버무리면서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깊은 신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같은 불자라는 점도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힘이 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자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던 이야기를 하다보면 신심도 더욱 깊어진다.

이명운 보살은 "같은 불자다보니 마음이 잘 통하고 봉사를 하기에도 편하다. 욕심을 내는 사람도 없고 좋다. 그래서 내가 집이 일산인데도 먼길 마다않고 여기까지 와서 도반들과 같이 봉사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정애 보살은 "부처님께서는 바라지 말고 많이 베풀라고 하셨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그 가르침이 바로 봉사라는 생각이 든다.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의 최대 수혜자가 노숙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생각한다. 신심으로 봉사를 하다보니 집안도 평안하고, 마음도 편하기 때문이다.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해
불자여서 봉사도 즐거워

이명운 보살은 "봉사를 하다보니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봉사를 다니면 좋다고 권유도 한다"고 밝혔다.

보현의 집은 성실하고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외부에서 보시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불자들의 보시도 줄어들었다. 눈에 띄게 보시가 줄어든 것을 볼 때면 보살들의 마음도 안타깝다고 한다.

보현의 집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탓인지 오정애 보살은 식당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꿈을 늘 가슴에 담고 있다.

오정애 보살은 "보현의 집에서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참으로 소중한 인연들이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대중과 함께해 온 순례길

108산사순례기도회 5주년…
신행문화 새바람 일으켜



108산사 순례기도회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108산사 순례기도회(회주 선묵혜자)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10월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바른 신심, 자비로운 나눔, 함께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2006년 첫걸음을 내딛은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현재 5000여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을만큼 인기를 끌고있다. 이들은 단순한 성지 순례 차원을 넘어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정립시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혜자 스님은 "108산사 순례회가 단순한 성지 순례에 그쳤다면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실천했기 때문에 5주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08 순례회는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특산물을 회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열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농촌사랑봉사단을 발족해 농촌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또한 순례회는 군종교구를 방문할 때마다, 회원들의 자비로 마련한 초코파이를 보시하기도 했다. 108산사 순례회의 초코파이는 군장병들 사이에서도 유명할 만큼 인기가 많다. 그동안 보시한 240만여 초코파이는 한반도를 왕복하고도 남을 양이다. 108산사 순례회는 이밖에도 환경 사랑 실천 운동, 108효행상 시상, 다문화가정 108인연 맺기, 108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선행을 펼쳐오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룬 성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주 선묵혜자 스님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강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청담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서 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자 스님(사진)은 108산사 순례회 5주년의 성과가 "신심을 발휘한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혜자 스님은 "처음 통도사에서 시작당시, 직거래 장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 회씩 거듭하면서 신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낸 것이다"고 밝혔다.

직거래 장터도 해인사 순례 후 신도들이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상하게 됐다. 군부대의 초코파이 보시도 군법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초코파이라고 대답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확산됐다.

108산사 순례회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7~9명의 대식구들도 볼 수 있다. 108산사 순례회에 참여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식이 대를 잇겠다며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혜자 스님은 "언젠가 북한의 사찰들도 순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을 돕기 위한 공양미 300석을 모으기도 했다"며 "앞으로 회향까지 지금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불교음악으로 하나되자

총지종 창종 40주년 맞아
재가불자대회 · 음악제 봉행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 종사)이 창종 40주년을 맞아 총지종 교도들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음악예술제를 연다.

총지종은 10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KBS홀에서 '총지 40년 통일음악예술제'를 열고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을 주제로 불교음악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에는 200여 합창단 및 공연단원이 참가하며 총지종 전국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메디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주현미, 안치환, 추가열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2000여 관객이 참석하는 이번 대규모 행사에는 새터민과 이주노동자도 함께한다.

음악예술제 집행위원장 인선 정사(총지종 총무부장)는 "기존의 불교 행사가 산사에서 이루어진 공연 위주의 행사였다면 총지종은 이를 과감히 탈피해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27~29일 재가불교의 이념과 전략을 논의하는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를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경희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승단불교와 재가불자'라는 주제로 17개국 50여 학자 및 불교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크리스티나 장(세계여성불자협회 회장)의 'M3 세대와의 만남: 대만 청년불자들과의 대화)', 진 리브스 (중국 북경 인민대 석좌교수)의 '재가불자와 비구니의 후원자 관세음보살', 김호성 교수(동국대)의 '효(孝)와 출가의 딜레마' 등 주제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인선 정사는 "불교의 미래는 재가불자의 손에 달렸다"며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가불자 성장의 의미를 상호 이해하고 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공불련 발전 위해 용맹정진 하겠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공불련 신임회장 취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설동근, 이하 공불련)가 10월 8~9일 대구 동화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사진)이 공불련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설동근 차관은 "그동안 공불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 신행단체의 활동은 타종교에 비해 저조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공불련의 조직력 강화 ▷조계종을 비롯한 종파들과 공불련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강화 등 앞으로 공불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설 차관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불교 신행단체의 느슨한 조직력과 소극적인 대사회활동의 문제"라며 "앞으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라는 깃발을 당당히 내세워 대사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설 차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을 맞아 불교종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불교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연대해 어린이 포교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법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 하복동 前 공불련 회장, 설동근 신임 공불련 회장, 이재만 대구시 동구청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별보기 명상, 동화사 산내암자 순례, 초조대장경 복간본 친견, 건봉사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친견, 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외국인 최초 방문지로 봉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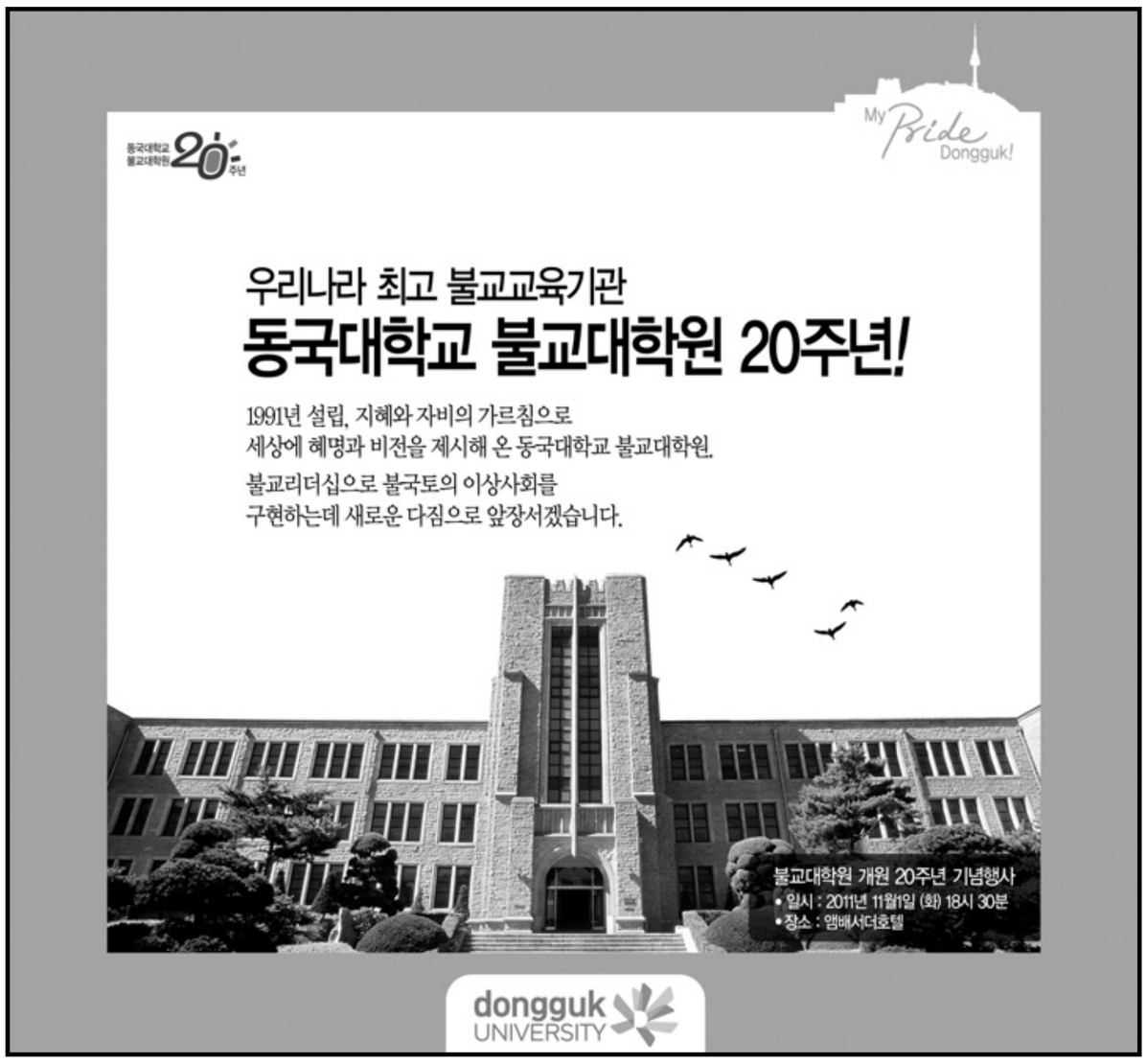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날마다좋은 날이 반갑다연우야,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함께 10월 29일~11월 3일 라오스 비엔티안주 무앙푸안군 파쌍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라오스 파쌍마을은 비엔티안 공항에서 자동차로 4시간 가량 이동해야 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외국인 봉사자의 방문이 전무했던 지역이다.

날마다좋은날은 의료 봉사팀과 실무팀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봉사팀은 혈압검사, 혈당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등의 전문검사를 비롯해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처방과 조제약 배포, 구충제 복용지도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실무팀은 벽화그리기, 즉석사진 촬영, 식사 준비 등을 수행한다.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에는 약 50여 명의 봉사자가 참가한다"며 "현지에서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부처님 인연법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보시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1260년 만에 최초로 석굴암 개별연구 결집되다

"석굴암 불국사의 사상적 기반에는 유가종과 초기 유가밀교종이 있었다."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토함산 석굴사)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8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토함산 석굴 불상의 최초 종합적 연구'를 개최했다.

석굴암 조형물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발표가 진행되기는 751년 석굴암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 1260년이 흘러 처음이다.

석굴암에는 본존불을 비롯해 10대 제자, 십일면관음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감실존상, 제석상, 범천상, 사천왕상, 인왕상(금강역사상), 팔부중상 등 38구의 조각상이 배치돼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 김은선 대전선사박물관 학예사, 강삼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사, 박형국 일본 무사시노(武藏野)대 교수, 김은화 문화유산기록보존연구소 실장, 미즈노 사야 가나자와(金澤)미술공예대 교수, 임영애 경주대 교수 등 20여 불교미술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함산 석굴 사상은 유가종

문명대 소장은 '토함산 석굴의 유가종 사상과 본존불상' 논문을 통해 석굴암의 조성 사상과 도상 해석을 연결시켰다.

문명대 소장은 "'삼국유사'나 2009년 발견된 '석가탑 중수기' 등을 분석한 결과 토함산 석굴은 유가종 또는 유가밀교종에 의해 조성되어 조선 초까지 시종일관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특히 유가종 사상인 유가사상을 초기 유가밀교에서 기본사상으로 삼았고 〈금광명경〉 등을 유가종에서 중시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소장은 "본존불 수인(手印 · 손의 모양)이 항마촉지인인 데다 십일면관음상이나 지장보살 등 불상의 배치 상황 등으로 미뤄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문명대 소장은 "석굴암 본존은 밀교 · 화엄적인 비로자나불상, 정토적 또는 화엄적이 아미타불상, 법화적인 석가불상설 등 다양한 설이 공존하는데 석가불과 아미타불상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석굴 불상의 도상은 〈다라니집경〉에 따라 유기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호국불교, 불국토 수호의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한 위대한 불상"이라고 평가했다.

문 소장은 "석굴암은 차이티야(단일 예배굴) 석굴과 38구의 불상군이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 유일의 예"라며 "석굴암 불상군의 전체와 개별상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통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관련학자를 비롯한 2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석굴암 9세기 증축 가능성 있다.

일본 금석미술공예대학 미즈노 교수는 '팔부중상' 논문 발제를 통해 팔부중상 조각을 구례 화엄사 서 5층석탑, 영양 화천동 3층석탑 등 9세기 후반 석탑의 팔부중상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미즈노 교수는 "현재의 전실은 석굴암 창건 당시가 아니라 9세기 후반 이후부터 10세기 전반 사이에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굴암 앞쪽에는 전실(前室)이 있고 전실 좌우 벽에는 팔부중상(불법을 수호하는 상)이 조성돼 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 연구소장

미즈노 교수는 "석굴암전실의 팔존은 팔부중 보다는 팔부신장으로 칭해야 할 군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팔부중부터 팔부신장으로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9세기 후반경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전실은 창건 초가 아닌 후에 증축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즈노 교수는 "석굴암전실 상의 상립 연대의 상한과 하한을 추측해보면 신라 경문왕대(861~875)보다는 내려가지만 팔부중 특징을 일부 남기는 팔부군상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10세기 전반 이후로 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토함산 석굴의 유가종 사상과 본존불상'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강근 경주대 교수의 '인도 중국 차이티야 석굴과 토함산 석굴', 김은선 대전선사박물관 학예사의 '10대 제자상', 강삼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사의 '11면 관음보살상', 주수완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 박형국 일본 무장야미술대학 교수의 '감실존상', 김은화 문화유산기록보존연구소 실장의 '제석 · 범천상', 임영애 경주대 교수의 '사천왕상',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금강역사상', 미즈노 사야 일본 금택미술공예대학 교수의 '팔부중상'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기록문화 학술행사로 제전 막 열다

오대산불교문화축전 개막

제8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과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 12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기록문화와 디자인' 학술세미나가 10월 1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렸다.

월정사와 평창군이 주최하고 강원일보사와 성보박물관이 주관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주지 정념 스님,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단기출가학교 행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대산은 민족의 성산으로 불교문화 최고의 성지로서 풍부한 기록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풍부한 문화가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불전에 나타난 일반 숫자와 그 의미'를 주제로 한 고승관 홍익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과 함께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의 사회로 4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각 주제별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등 세계적인 수준의 오대산 기록문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대산 불교문화의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또 오대산이 보유한 세계적인 기록문화를 이미지화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제8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은 '생명 · 명상 · 치유의 한마당'을 주제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일간 월정사 등 오대산 일원에서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진각종 회당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진각종이 새 청사인 진각문화전승원의 개관을 앞두고 신교도들의 화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회당학회는 10월 27~28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에서 '밀교문화와 현대사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당학회장 지정정사가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금과 중국 섬서성불교협회 부회장, 나레쉬만 네팔 트리뷰반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당학회는 앞서 2002년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밀교의식을 시연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개최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 스님)은 10월 19일 오전 9시45분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가와 종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교학술대회는 △초기불전에 나타난 불교와 국가의 관계(조준호/ 고려대)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신규탁/ 연세대) △한국 역사에 나타난 국가와 종교(윤세원/ 인천대) △현대 한국사회와 불교(유승무/ 중앙승가대) △서구역사에 나타난 종교와 정치관계(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정준영(서울불교대학원대), 류성민(한신대), 김용태(동국대), 이병욱(고려대), 유재동(서강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고양 길상사 '법화경' 문화재 지정 징광사 목판본 '육경합부'도 함께

고양 길상사(주지 정각)가 소장하고 있는 〈육경합부〉와 〈묘법연화경〉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0월 5일 〈육경합부〉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59호, 〈묘법연화경〉 전 7권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60호로 지정 · 고시했다.

〈육경합부〉는 금강경을 비롯해 화엄경 능엄신주 아미타경 관세음보살예문 묘법연화경 등 6개의 경전을 각각 새겨 합본한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25종 이상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길상사 소장 〈육경합부〉는 조선 성종 22년(1491)에 판각된 징광사 목판본으로 현재까지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유일본이다.

〈육경합부〉는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구인사 소장 〈육경합부〉와 상원사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나온 영제암판본 육경합부, 불갑사 복장에서 나온 육경합부 등 11종이 일괄적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길상사 소장 〈육경합부〉 역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조선 명종16년(1561)년에 판각되어 간행된 목판본으로 현재 전 7권7책이 완질본으로 남아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다. 완질본의 가치로 인해 이 역시 보물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은 "이번에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길상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찰음식박물관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불교전문 교육기관도 추진해 경기북부 지역의 역사문화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수 있는 중생제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스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사 031)898-5698 / 010-2589-7280

대학입시 수능시험합격 발원 *보시금 : 95,000원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 부처님 전에 축원하여 발송합니다.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네이버,다음 에서 '초록원웰빙'을 검색하세요.

양산 전법회관, 지역 불교 활성화 첫 삽 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양산 전법회관(주지 정도)을 마련하고 신도시 포교에 나선다.

양산 전법회관은 10월 7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71-5번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이곳은 양산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8만6000명 가량의 불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신도시에는 포교원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 전법회관 건립이 이 지역 불교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교원 미약한 양산신도시에 자리해
주민 편의시설 갖추고 문화공간 지향

기공식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 30여 명 이상의 스님들이 참석했고 정도 스님의 지도 교수인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도 참석했다. 이 밖에도 백승완 부산대 병원 前 병원장, 전영도 울산불교방송 사장 등 여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2021년 완공예정인 양산 전법회관은 건평 3500평에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건설된다. 내부에는 유치원, 다문화가정센타, 극장식회관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치과, 한의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산 전법회관은 야간 교리 강좌를 원하는 양산 신도시 불자들과 신도시 포교를 위해 건립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통도사 소유로 900여 평의 땅을 이전 등기했고, 2010년 양산전법회관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정도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건립불사기금을 모금했다. 양산 전법회관은 물금읍 뿐만 아니라 양산시와 부산시의 주민과 불자들의 문화 공간 및 복지·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10월 7일 양산 불교 활성화의 마음을 담아 양산 전법회관 기공식이 열렸다.

양산 전법회관 주지 정도 스님은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출가자는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한다며 포교 원력을 세우고 사찰 속에서 사회로, 산속에서 도심으로, 출가 수행에서 재가 불자교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 전법회관도 이런 마음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미니 인터뷰

청하지 않아도 벗되어 돕겠다

양산 전법회관 주지 정도 스님



"신도시는 타종교에 비해 부처님 도량이 부족합니다. 양산 전법회관은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원만회향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양산 및 부산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산 전법회관의 기공식이 첫 삽을 떴다. 주지 스님으로 임명된 정도 스님은 중요한 불사에 많은 사부대중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도 스님은 "지역민들의 문화공간과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신도시 개발이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불자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양산 신도시에 포교원이 드물고 불교대학의 활동도 미흡해 양산 전법회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불교계의 신도시 포교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산 포교원이 착공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정도 스님은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글귀를 통해 주지로서의 마음가짐을 표현했다.

"스스로는 〈화엄경〉의 '不忘初心(부망초심)'으로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불교에는 〈유마경〉의 '不請之友(부청지우)'로서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도와주며, 사회에는 〈팔대인각경〉의 '不念舊惡(부념구악)'으로 이전에 남이 나를 나쁘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수행에는 〈기신론〉의 '不變隨緣(부변수연)'으로 인연을 따르되 청정한 마음은 변해서 안됩니다."

박기범 기자

적멸보궁 빛으로 세상 밝히는 통도사 다짐

통도사 1366주년
개산문화대재 성료


통도사는 개산 1366년을 맞아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개산대재를 열었다.

자장율사가 창건한 불지종가 통도사가 개산 1366주년을 맞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10월 1~5일까지 5일간 '개산 1366주년, 개산문화대재'를 봉행했다.

축제 첫날인 1일에는 BTN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2일 영축사생대회, 3일 통도사부설유치원의 재롱잔치 등 예년과 달리 한층 젊고 활기찬 개산대재가 펼쳐졌다. 이어 4일 부도헌다와 5일 괘불이운 및 헌공, 지역문화발전 공헌자 표창과 불자청소년 장학금전달식, 법요식 등 예경의 장이 봉행됐다.

광우 교무국장스님은 "이번 개산문화대재의 주제가 '개산의 빛 나눔의 장인만큼 진리의 빛으로 어린이부터 연로한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울러 어둠을 밝히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개산대제 기간 중에만 특별히 대중에 공개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개산조 자장율사의 친착가사 배견 및 괘불탱특별전이 성보박물관에서 개최됐다. 통도사에 봉안된 가사는 매년 개산대재 당일에만 공개했으나 올해 특별히 축제 전 기간으로 늘이고, 장소도 성보박물관 괘불전 앞에서 실시됐다.

자장율사가 623년 당으로 유학을 떠난 후 오대산(五臺山)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을 만나 석가모니의 가사 한 벌과 발우 하나, 부처님의 정수리뼈와 치아사리 등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석가모니부처님 가사는 643년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하면서 통도사에 전래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가 봉안돼 있어,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 해인사, 보조국사 이래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와 함께 삼보의 으뜸인 불보사찰의 사격을 지닌다.

이와 함께 보살사 괘불은 국내에서 전하는 불화 중 4번째로 이른 시기인 1649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8월 8일 보물 제1258호로 지정됐다. 이 그림은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로, 세로 530cm, 가로 401cm의 비단 바탕에 안료를 베푼 작품이다.

원산 주지스님은 "올해 유난히 나라안 팎으로 큰 재난이 일어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 다시금 환경과 생명의 실상에 대해 뉘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장율사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신 이유 역시 사부대중의 질서를 바로 세워 속세의 모범을 삼고자 하신 것"이라며 "깊어가는 가을 적멸보궁의 빛이 많은 이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영산재 작법무 제1회 시연회 봉행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작법무 연수원에서는 10월 3일 부산시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시연회 및 호국영령 위령(지전) 봉행제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영산재 작법무 보유자인 전통불교조계종 종정 경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산 영산재 작법무의 시연을 통해 불교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작법무 연수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여러 사부대중께 공개해 문화적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호 스님 외 원산 스님, 혜화 스님, 성조 스님이 다게 작법,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극락무 등을 시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음악으로 찾는 희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제5회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10월 11일 해운대 백병원 지하 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해운대 백병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 투병생활로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2008년 동아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부산대병원, 2010년 부산백병원, 2011년 동의의료원 등에서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부처님법으로 세상 바로세우겠습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불자모임 '법등회' 백명재 회장



9월 30일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법계정사에서는 법등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백명재(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1, 법명 대공) 회장은 취임사에서 "스스로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발원했다. 백 회장은 "청년 불자의 수는 상당히 적고 불교에 젊은이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져 가는 상황에서, 저희 법등회 회원들은 당당히 불교활동을 하며 저희와 같이 불교학생회를 만들려는 법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설립을 도와줄 것"이라며 "아직은 예비 변호사단체이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불자법조인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또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법등회'는 2010년 11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2기 불자 대학생들 주도로 창립했다. 그러나 스스로 불자임을 밝히고, 법회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학우가 없어 제대로 된 법회를 운영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뜻있는 학우들과 모여 범어사(주지 정여) 휴휴정사로 떠난 템플스테이에서 법회의 원력을 모으게 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9월 30일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여법한 창립기념법회를 마쳤다. 현재 4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초발심자로 학업과 수행에 열심이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8월부터 거제도 사찰순례와 하동 칠불사 템플스테이, 창립총회, 부산법조불교회 정기법회 및 부산거사림회 정기법회 동참 등 청년다운 패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세속의 모든 부분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 불교의 진리도 전 영역을 아우른다고 생각합니다. 성냄 없이 웃음이 만연할 수 있게 변화시키고, 억울한 마음 달래주어 원망심을 없애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미물 하나라도 불성이 없는 것이 없으니 우주만물에게 진심으로 하심(下心) 할 수 있는 겸손한 불자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저녁은 짐승이 먹고, 야식은 귀신이 먹는다

2011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 –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

10월 12일 열린 2011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는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이 강연했다. 선재 스님은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을 통해 현대인들이 실천해야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법문했다. 스님은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는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처님 경전말씀에 따라 현대인들이 어떤 식생활을 지켜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모든 생명은 하나

사람들이 저에게 왜 많은 수행 중에 하필 음식을 택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사찰음식에 대해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련원 일을 하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간이 너무 안 좋아 길어야 1년 밖에 못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오빠 역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유전인자를 타고 났던 거 같습니다. 저는 제 논문을 펴놓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문화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식습관을 50% 정도 버리니 건강이 90% 회복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는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식문화 개선을 통해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찰음식 강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사찰음식 강좌를 듣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요리를 배우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생활을 지키면서 암 투병을 이겨내고, 아토피를 없애고,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사분율(四分律)' 에 약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약이라는 뜻입니다.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이 아닌, 식이라는 개념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의 '제병품(除病品)' 에는 "계절에 따라 음식을 취해 먹으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음식문화는 병이 생기기 전, 병을 막기 위한 예방 의학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스님들의 경우,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은 필수입니다.

맑고 건강한 몸은,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돼야 합니다. 맑고 건강한 음식을 얻으려면 모든 자연계 · 중생계가 맑고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근본은 바로 자연계와 중생계의 맑고 건강함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입니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연계가 맑고 건강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요리를 하는 요지입니다.

자연에 맞춰 섭식하라

병이 되는 원인이나 단명이 되는 원인을 사대부조화라고 합니다. 지 · 수 · 화 · 풍이 조화롭지 못할 때는 병의 원인이 되고, 단명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때문에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내 몸의 지수화풍을 조화롭게 함과 동시에 자연의 생태계를 거스르지 않는 일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움이 트고, 새싹이 돋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 안의 에너지는 자연과 함께 돌아갑니다. 봄에는 특별히 일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혈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쓴맛이 요리의 대표적인 맛이라고 했습니다. 절에서는 봄이 되면 쑥과 머루를 3번 이상 먹습니다. 쑥과 머루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쑥과 머루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 키가 크고 작고, 열이 많고 적고, 냉하고 습하고 건조한 사람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중풍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찬물은 피하고 찬바람은 쐬지 말라고 설하셨습니다. 또한 보리, 보리차, 보리밥, 오이, 풋고추, 가지, 아욱, 근대 등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꽃이 필 때는 꽃을 먹으며, 꽃이 지면 잎을 먹고, 잎이 지면 뿌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연(蓮)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입니다. 사찰음식에는 연이 많이 등장합니다. 연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음식입니다. 또한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은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세 계절의 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스님들은 겨울에 9가지나

병의 원인은 사대(四大)의 부조화
부처님 식생활 통해 암투병 가능해
사분율에 따르면 '모든 음식이 약'
식습관 반만 바꿔도 건강해진다

물과 오곡밥을 드십니다. 우리가 제철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많은 음식재료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됩니다. 이는 자연계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 바람, 공기를 통해 삽니다. 이 모든 조건이 부합돼야 제대로 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은 모두 비료와 농약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비료와 농약은 다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암세포를 만듭니다.

제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생명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계와 나는 하나고, 나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리듬에 맞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음식은 마음도 불편하게 해

자연에서 생성된 식재료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분율' 에서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끼니의 음식은 시약입니다. 때의 약이라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뇌가 활동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은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찰에서는 아침예불을 통해서 의식의 세계를 열고, 아침밥을 통해 내장의 기운을 엽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맑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어도 됩니다.

9~11시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간, 신장, 대장이 모두 활동하는 시간이라 이 시간 때에는 간단히 과일즙만 먹으로 했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와 소화되는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때문에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에서 많아야 두 끼만 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선왕들의 식단을 봐도 왕들은 아침에 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단명한 이유는 고단백 음식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신선이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10월12일 열린 빛고을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 선재 스님은 때에 맞는 식생활을 강조했다.

저녁은 짐승이 먹고, 밤에 먹는 음식은 귀신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밥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몸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밤에 먹은 음식은 사람에게 나쁜 기운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김치전을 먹는다고 치면, 낮에 한 판을 먹으면 몸에 흡수가 되지만, 밤에 먹으면 반 밖에 흡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이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먹어야 합니다. 만일 이 시간에 먹지 못 할 때에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간단히 먹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육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한 음식에 의해 내 마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수행을 이루려면 맑고 건강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맑고 건강함 음식을 얻으려면 모든 자연계가 맑고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식문화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문화는 누구보다 우리가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을 먹을 때, 스님들이 수행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이를 통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속에는 단순히 음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 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음식을 통해 예방하라고 설하셨으며, 자연계를 지키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우리 몸의 리듬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고 모든 생명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미료에 대한 음식 맛에 길들여져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입맛도 바뀌는 법입니다. 나쁜 음식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몸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창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행복해요”

제4회 복운 경로의 날 · 주간보호센터 가을 나들이

선운사 위탁운영 시설들 함께 개최

행복한 노년 위한 도반 역할 최선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들이 복지관 광장에서 경로잔치를 10월 7일 마련했다.

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제4회 복운 경로의 날’에는 이강수 군수, 이만우 군의장 등 내빈과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경로잔치에서는 그동안 노인권익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온 어르신 3명에 대한 시상과 실버악단, 태극권, 합창 등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어르신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뿌리예술단의 연극 ‘황혼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여명’이 무대에 올라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격동의 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주간보호센터도 가을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용어르신들과 함께 전남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일대로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13일 다녀온 것.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을 정취를 전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들이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과 거동이 불편해 야외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창군 4-H연합회 회원들이 동행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수발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고창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경로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고창군주간보호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세 이상 치매·중풍어르신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보호하며 재가 및 여가생활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시 펼치는 불교민주화의 기록

광주 문빈정사 ‘무등지’ 통권 발행

당시 발행인 지선 스님 등 참석해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예정

80년대 불교민주화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던 〈무등〉지의 합본호 출간 기념 법회가 10월 1일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 봉행됐다.

이날 간행된 합본호는 ‘역사와 민족과 함께한 불교민주화 운동기록’란 부제목으로 불기 2528년 5월호부터 2531년 6월호까지 간행된 31권의 합본호이다.

합본호 출간 기념 법회에는 당시 발행인이었던 지선 스님(前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오종렬 고문(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김정길 대표(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병규 목사 등 80년대 활동했던 사회운동가 및 1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무등지〉의 통권 발행을 축하하는 기념 법회

기념 법회는 타종을 시작으로 불교의례에 이어 축사와 법문, 사진촬영, 차담 순으로 진행됐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 관련 기록들을 여러 단체에서 찾으면서, 이전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문을 연후 “절에 들어오니까 부처님이 눈을 내려뜨고 있었다.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다. 우리는 과거 농경사회부터에서 정보화 사회를 넘어 마지막에는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 이른다. 부처님은 그런 시공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면, 눈을 감지 않으면 괴로워서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인간을 포함한 불교는 민족, 민주, 역사, 사회와 함께 살아있어야 한다. 공(空)과 무(無), 열반, 적정(寂靜)은 불교가 살아있어야 유지 된다”며 불교의 대중성을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법선 스님은 이날 “이전에 간행된 소중한 기록들이 하나둘씩 소실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종렬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당시 군사독재와 싸우던 지선 스님은 ‘승병사령관’이었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던 ‘대중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스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이어 “군사독재가 끝나고 스님은 절로 가셨다. 조용히 절로 가셔서 불자의 길로 가셨다”며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이날 간행된 합본호는 470여 쪽 분량으로, 당시 발행됐던 판형과 활자를 유지했으며, 당시 글을 올렸던, 지선 스님 고은 송수권 김준태 박석무 문병란 양흥식 고규태씨 등의 글이 실려 있다.

또한 간행된 책은 전부 도서관과 현대사 연구기관 등에 발송해, 현대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천수관음 광주서 국내 첫 공연한다

28~29일, 중국장애인예술단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중국장애인예술단이 광주를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번째 공식 공연이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10월 28~29일 양일에 걸쳐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중국장애인예술단을 초청해, ‘my dream’이라는 주제로 천수관음 공연을 펼친다. 중국장애인예술단은 최근 TV 프로그램 스타킹에 소개돼 큰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1987년 결성 이후, 60여 개국에서 연간 170회의 공연을 진행해 왔다. 2007년에는 유네스코 평화예술가로 지정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의 드라마’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천수관음 공연은 ‘수화로 말하는 나의 꿈’을 시작으로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천수관음’공연에 이어, 두 팔을 잃고도 중국 최고의 장애인 무용수가 된 황양광의 ‘싱싱한 새싹’과 시각 장애인들의 무용인 ‘봄을 보러 가자’, 그리고 한국의 가요 노래와 청각장애인들의 라틴댄스, 경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연 기간인 28~31일에는 호남지역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먹거리장터를 비롯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7080가족음악축전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30일에는 호남불교포교 결집대회도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대한불교조동종 연수교육 성료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제14차 금강계단 수계법회 및 연수교육을 9월 28~30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 수련원에서 봉행했다.

연수 교육에는 종정예하, 총무원장 덕우 스님, 부종정 덕룡 스님, 교육원장 광혜 스님 및 원로스님, 대덕스님, 대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또, 일정기간에 습의교육을 받은 사미, 사미니스님이 탄생했으며 비구, 비구니스님의 구족계 수계법회도 봉행됐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자비의 연탄으로 월동 준비 ‘끝!’

익산불교신도회, 50가정 지원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와 불자들이 익산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연탄 1만800장을 전달해 지역 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다.

익산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숭림사 주지)을 비롯한 태봉사 혜안 스님, 정각사 일행 스님, 관음사 덕림 스님, 북심사 혜각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이한수 익산시장, 배승철 도의원 등 지역내 기관장 등 40여 명은 10월 9일 지역 내 어려운 독거노인, 모자 가정 등 50여 가정에 연탄을 전달했다.

지광 스님은 “불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배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근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것은 작은 보시행의 실천일 뿐”이라며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불보살님들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더하는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심 속 실천도량으로 만들겠다”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 취임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동원사(주지 지장)가 새로운 주지 취임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열린 불교공부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동원사는 9월 30일 대웅전에서 지장 스님의 주지 취임법회를 가졌다. 지장 스님은 취임일성에서 “부지런한 정진을 통해 신도들의 기도와 불교공부, 사회실천 방향을 정착시켜, 광주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백운스님, 지선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지장스님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옛 시를 낭송하며 나누는 차 한잔에 담은 풍류

장성 백양사 담선회서 詩·禪 한마당

“지금 시를 청구하는 백양사 님을 보고, 붓을 잡고 읊조리는 능숙못함이 부끄럽네…”

단풍잎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백양사 입구. 흰 바위와 아름다운 정자가 어울려 조선 8경으로 꼽히는 백양사 쌍계루에서 스님과 성균관 유생, 교수, 지역 기관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옛 시를 낭송하는 담선회(談禪會)가 10월 8일 개최됐다.


쌍계루에서 옛 시를 낭송하는 담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김충호 성균관 교수, 김범수 원광대 문화재 보수학 교수, 이정옥 가사 문학관 해설사,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장과 문화계 인사 등이 쌍계루에서 모여 차와 옛 글 등을 전통 음악에 맞추어 낭송했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인들은 많은 선조들의 글이 쌍계루에 있는 것을 모른다. 후손들을 위해 한문으로 된 시를 우리말로 해석해 후손들에게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차 한잔과 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전했다.

장성군 김양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장성은 선비의 고장이란 말을 많이 했다. 오늘 글과 노래의 만남, 불교와 유교의 만남의 자리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양사 쌍계루에 남겨진 옛 글은 400여 수 넘게 있었으나, 현재는 200여 수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백양사는 이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한글로 번역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옛 글 중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락에 맞추어 낭송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파트건립사업모집공고

개요 : 아래와 같은 고승대덕 원로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포교원건립불사 및 복지후생 건립사업을 결의한다.

주제 : 많은 사람에게 이익한 주택을 저가로 제공하고,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노스님들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구현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당 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 750세대)을 서민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평당 600만원선)자리이타를 실천한다

2. 사업 계획 : 포교원 및 복지원건립불사부지
임야 3000평(평당가 80만원)허가득 봉서산 끝자락 서남향으로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배산임수의 명당터입니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 여 스 님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7-13번지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손을 모으고 말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보였다

서울의 아름다운 길 걷기 명상 – 첫 번째 '오뚝이 마인드 워킹'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 대사는 동굴 속에서 9년 동안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에 집중했다. 달마 대사는 손과 발이 퇴화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잊고 수행에 집중했다. '오뚝이'는 달마 대사의 이런 치열한 수행을 상징한다.

조계사 선림원은 달마 대사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오뚝이 마인드 워킹'을 10월 8일~12월 17일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한다. 서울의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걷기 명상을 하는 첫 번째 '오뚝이 마인드 워킹'이 10월 8일 조계사에서 시작됐다.

화창한 주말, 명상을 떠나다

가을을 맞아 화창한 날씨가 펼쳐진 토요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는 '오뚝이 마인드 워킹' 참가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날 걷기 명상에는 조계사 부주지 의연 스님과 디트로이트 선센터 주지 활선 스님, 명법 스님 등이 함께했다.

'오뚝이 마인드 워킹'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요가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켰다.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은 간단한 요가 동작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햇볕 아래서 익숙하지 않은 요가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몸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요가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뒤편에 마련된 부처님 사리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에는 줄을 맞춰 일렬로 경복궁으로 향했다.

경복궁에 들어선 일행은 잔디밭에 둘러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하는 사이 의연 스님이 걷기 명상에 대해 법문했다.

의연 스님은 법문에서 "수행의 종가는 불교이며 마음 수행은 불교의 전유물이다. 수불 스님과 마가 스님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은 유사수행단체들보다 미약해진 상황이다"라며 불교 명상이 대중화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의연 스님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다. 본성에서는 죽음의 삶과 구분마저도 없다. 이런 본성을 깨달으면 절대 자유를 얻는다. 오늘 명상수행을 계기로 마음의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연 스님은 본성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묵언 그리고 본성 찾기

의연 스님의 법문 후에는 본격적인 걷기 명상이 시작됐다. 경복궁까지는 옆 사람과 대화가 허용돼 나들이를 나온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복궁에서 삼청공원까지는 차수를 하고, 묵언을 하며 걷기로 했다. 차수와 묵언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의 표정도 진지해졌다.

묵언을 하고 걸을 때 참가자들은 오직 자신의 신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내 몸의 균형이 잘 맞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신체에 집중하다 보면 망상에서 벗어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경복궁을 빠져 나온 일행은 돌담길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채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만을 들여다보며 걷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를 맞아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수다를 떨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정신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처럼 맑은 날씨와 따스한 가을 햇살, '서울의 걷기 좋은 거리'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는 명상을 그만두라고 유혹하고 있었다.

묵언하고 걸으니 자신에 집중됐다

한마음으로 노래하니 모두가 하나

삼청동길로 들어서자 도로에는 차량들이 더욱 넘쳤고, 주변 식당에서 풍겨져 나오는 음식 냄새는 온갖 신경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연인이 주말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삼청동은 인도를 따라 묵묵히 걷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오뚝이 마인드 워킹' 참가자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묵언'과 '차수'를 지키며 걷고, 또 걸었다.

하나된 '마음'이 만드는 노래

40분 가량 걸어 참가자들은 삼청공원에 도착했다. 삼청동은 예로부터 물과 숲이 맑아 사람의 마음까지 맑아진다고 해서 '삼청(三淸)'이라고 불린 곳이다. 삼청동에서도 숲이 우거진 삼청공원은 공기가 맑고, 자연경관이 쾌적해 명상 수행을 하기에 적격이었다.

'오뚝이 마인드 워킹' 참가자들은 삼청공원에 들어선 뒤 잠시 휴식을 취했다. 참가자들은 묵언과 차수를 하며 걷는 동안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의연 스님(사진 맨 앞)과 '오뚝이 마인드 워킹' 참가자들이 묵언을 하고 걷기 명상에 집중하고 있다.

참가자 심영희(48)씨는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아서 사실 집중이 쉽지 않았다.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껴서 다잡기 위해서 애쓰며 걸었다. 마음공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걷기 명상은 처음이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삼청공원 공터에 자리를 잡고 '소리명상'을 시작했다. 소리 명상은 활선 스님의 제자인 명법 스님이 지도했다. 명법 스님은 '마음(Ma Oom)'이라는 노래를 통한 명상을 선보였다. 활선 스님에게 전수받은 이 노래의 가사는 오직 '마음' 뿐이다.

명법 스님은 "우리는 이제 같이 기도를 할 것이다. 노래를 할 때는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노래를 할 때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래는 우선 명법 스님과 활선 스님의 제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좌선을 한 상태로 눈을 감고 스님들의 노래를 듣기만 했다. 점차 멜로디가 익숙해지자 참가자들도 노래를 따라했다.

숲이 울창하고 한적한 삼청공원에서 새소리, 바람소리와 어우러진 '마음'이라는 노랫말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라는 하나 된 소리만으로도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본성이 깨어나는 듯 했다.

한 차례 소리명상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자신의 노래 소리가 아닌 전체의 소리와 화음에 집중하며 한 번 더 소리명상에 들어갔다. 처음보다 더 조화로운 소리가 삼청공원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소리 명상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서서히 눈을 떴다. 그들의 표정은 이 세상 모든 고통에서 잠시 벗어난 듯 온화한 표정이었다. 무언가에 늘 쫓기며 살아온 삶 속에서 잠시나마 도반들과 함께 내 마음의 본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뚝이 마인드 워킹' 참가자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일어나 다시 가회동길을 지나 조계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차수와 묵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녁이 되면서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걷기 명상을 마친 참가자들의 마음은 차수와 묵언 없이도 조계사로 돌아오는 내내 본성과 마주하고 있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흐트러짐 없는 행렬 마음의 힘"

김진수 건국대 외래교수

"주변에 정신을 뺏기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건국대에서 화학을 강의하는 김진수 박사는 운동량이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있었다. 김 박사는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고 명상도 배워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뚝이 마인드 워킹'에 참여했다. 김 박사는 이날 하루 체험으로 걷기 명상의 힘과 매력에 푹 빠졌다.

김진수 박사는 "맨 뒤에서 걸었는데, 행렬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수행에 동참한 힘인가 싶어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오뚝이 마인드 워킹'은 차수를 하고 모든 신경을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며 걷는다.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과 주변 풍경 때문에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박사도 자꾸만 잡념이 생겨서 생각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한참 걸으니까 다리도 아픈 것 같고,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도반들과 함께 마음을 집중하고 나를 찾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다. 특히 김 박사는 삼청공원에서 진행된 소리명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김진수 박사는 "참가자들이 모두 하나의 화음으로 '마음'을 노래하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불교 수행이 마음에 주는 큰 평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봉안함이 물속에서도 안전하다고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직접 시험할 수 있고, 물 속에서 조차 안전할 수 있는 봉안함은
(주)태림원의 봉안함 안향(安享)이 유일 합니다.





3중밀봉 · 진공항 구조

3중밀봉함 제품소개



발명특허제품

• 발명특허 제품 (특허 제10-0768910)
· 재질 : ABS, 황토, 백토
습기, 결로방지 및 완벽한 수분차단 입증 제품
부산시 추모공원, 정관 주민자치회 지정 봉안함



습기,결로방지 입증 방법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결로 방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입증.
• 봉안함의 구조가 습기, 결로, 수분유입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내구성(ABS)

• 집어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증 결과
최대수직압 10.7톤



친환경제품

• "친환경 상품진흥원"에서 친환경 표지 인증 (2008. 7. 3)

부산시 영락공원 장묘운영팀에서 함에 티슈를 넣어 땅속에 묻는 실험 시도
1년후 개봉결과 티슈가 원상태 그대로 보존 되어 있음을 확인

• 현장에서 직접 기능 검증을 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신뢰를 주는 유일한 봉안함.
• 물속깊이 함을 넣어도 함속으로는 단 한방울의 물은 물론 수분의 유입 마저도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함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뒤집어도 한방울의 물도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태 림 원 Mobile 010-2257-3887, 02)763-1305 Fax 02)763-1307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5-1 월드오피스텔 805호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기이’(紀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이’는 불교 바탕해 인간·세계 인식한 언표

1. ‘황탄하다’는 평가

조선시대의 유자들은 자신의 저술에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도 대부분 ‘황탄(荒誕)하다’고 했다. ‘황탄’하다는 것은 “말이나 하는 짓이 허황되고 허탄하다”는 것이다. 유교의 명분론이 공고해질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욱 강화돼 왔다. 송시열의 친적인 송준길의 문하에서 공부한 남구만(1629~1711)은 〈삼국유사〉의 “말은 요망하고 거짓되고 비루하고 과장돼 애당초 길거리의 아이들도 속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의현(1669~1745)은 “설명이 매우 황탄하다”고 했다. 강재항(1689~1756)은 〈삼국유사〉는 “황탄하여 가소롭고 변증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정복(1712~1791)은 “더러 채택할 만한 것이 있지만 역시 허황된 말이 많다”고 했다. 이긍익(1736~1806)은 “말이 요망하고 거짓되고 비루하고 과장돼 애당초 길거리의 아이들도 속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덕무(1741~1793)도 “설명이 황탄하다”고 했다. 정약용(1762~1836) 또한 〈삼국유사〉의 세계에 대해 황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주로 단군신화와 역사 및 지리 관련 저작들에서 〈삼국유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단군기’의 기록에 대해 남구만은 “단군으로부터 주몽이 탄생할 때까지가 거의 2000여 년이니, 설령 하백의 딸이 과연 귀신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는 단군에게 시집가고 뒤에는 해모수와 사통한 것이 기필코 똑같은 여자이며, 앞의 부루와 뒤의 주몽이 반드시 형제간임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안정복도 이익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해본 〈고기〉한 책은 바로 신라의 이속(俚俗)을 전한 것으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고 불가(佛家)의 언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또한 고려의 일연이 찬술한 것으로 대개 불가의 문자를 찬한 것이거나 국사(國事)에 언급된 것입니다. 때문에 더러 채택할 만한 것이 있지만 역시 허황된 말이 많습니다”고 했다.

유자들이 〈삼국유사〉의 지리서로서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대부분 ‘황탄’하고 ‘경전에 맞지 않아’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견지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육당 최남선은 〈삼국유사〉 해제에서 “〈삼국유사〉의 결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 내용이 허탄하고 괴상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인즉 허탄하고 괴상한 그 점이 바로 〈삼국유사〉의 생명이며, 우리가 그로 인해 큰 힘을 얻게 돼 깊이 감사드리게 되는 까닭이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육당은 오히려 ‘허상’과 ‘괴상’을 〈삼국유사〉의 정체성으로 확립했다. 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신이와 영험, 기적과 이적을 받아들일 안목과 여유가 애초부터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얕은 시공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이해의 부족 때문이었다.

2. ‘기이’의 참다운 의미

‘기이’(紀異)의 용례는 또렷하지 않다. 중국 한 대의 왕충(王充)의 〈논형〉(80권)에 ‘기요’(紀妖, 64편)라는 용례가 있다. 하지만 ‘기이’라는 용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삼국유사〉의 ‘왕력’에 이은 ‘기이’의 편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이 편속의 조목들을 보면 기이는 ‘기신이’(紀神異)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 ‘기이’의 ‘기’(紀)는 ‘기’(記)와 통하므로 ‘기이’는 ‘신이를 기록한다’의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일연은 ‘기이’편의 ‘서’(敍)에서 ‘괴이’(怪異)와 ‘용력’(勇力)과 ‘패란’(貝亂)과 ‘신이’(神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공자의 가르침과 달리 ‘기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가능한 언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고대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국가의 개조 및 개국조들의 신이한 탄생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록하겠다고 했다.

이 점은 일연이 공자를 성인으로 받들며 그의 가르침을 신주단지처럼 받드는 중국의 사가들조차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중국 고대국가의 개조 및 개국조들의 신이한 탄생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냐는 반론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해 읽어보면 ‘기이’는 ‘신이를 기술하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조선의 유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건을 하나의 팩트(사실)로서 기술한 〈삼국유사〉를 황탄하다고 했다. 그들이 이해하는 황탄의 의미는 〈유사〉의 시공관과 우주관이 유교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자들조차도 조선의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천왕의 아들이고,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며, 신라의 시조 혁거세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색 알에서 나온 하늘의 아들이라는 사고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수의 유자들이 〈삼국유사〉의 세계관을 황탄하다고 여기는 대목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一理)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교적 세계관을 넘어 삶의 실제 국면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 이 관점에는 상당한 무리(無理)가 뒤따른다. 이러한 무리는 유교와 불교의 시공간관의 불일치에 근거한 것이었다. 과거와 미래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을 인정하는 유교의 시간관은 현세 중심의 매우 좁은 시간 인식을 보여준다. 오직 절대자에 의해 피조된 이후의 현재와 미래(내세)만을 인정하는 유일신교의 가르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과적으로 보는 삼세의 시간 인식을 견지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화두를 들고 보면 삼세의 시간관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음이자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

조선 유학자 “〈삼국유사〉황탄하다” 육당은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조선시대 유자들은 〈삼국유사〉를 허황되다고 평했다. 이는 오직 현재만 인정하는 유교의 시간관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시작도 끝도 없는 무량한 것으로 파악한다. 사진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무량수불을 모신 부석사 무량수전.

또 일연은 중국의 황제들만이 사용한 죽음 의식의 문자적 표현인 ‘붕’(崩)을 우리나라 왕들의 죽음의 기술에도 사용했다. 즉 〈예기〉에 나타난 죽음의 기술방식인 황제의 ‘붕’, 제후(왕)의 ‘훙’(薨), 대부의 ‘불록’(不祿), 사(士)의 ‘졸’(卒), 서인의 ‘사’(死)와 같은 하이어라키(위계질서)에 대한 기술방식에서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 역사서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사마천의 〈사기〉의 편재에서 제시한 황제 중심의 기록 형식인 「본기」처럼 삼국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서술에도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중국과 대등한 역사관을 지녔던 종래 이 땅 역사서들의 주체성을 일연이 몸소 계승한 결과였다. ‘신이’는 비합리적인 사실들, 즉 현실적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삼국사기〉가 지향하고 있는 유가 중심주의의 합리적인 사관에 입각해 기술한 것과 ‘다름을 지향한 것’이다. 그 다름은 〈삼국유사〉의 독자성으로 드러났다.

3. 불교의 시공관

〈삼국유사〉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無始無終] 시간인식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명제는 불교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이 말은 모든 존재(현상)는 변화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화 속에서의 존재는 곧 시간 내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현상’ 혹은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이 언표는 어떠한 고정된 현상이나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존재는 시간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인 시간적 존재는 만들어진[有爲] 존재이며 법칙성으로서의 존재[法]이다. 반면 초시간적 존재는 ‘만들어지지 않은[無爲]’ 존재이자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法]이다. 때문에 모든 집착과 그 잠재적인 힘인 종자를 끊어버릴 때 아뢰야식은 전환하며 거기에서 시간과 관련을 지닌 식의 변화는 정지되고 법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불교에서 시간이란 ‘의식 내적 존재’이며, 이것은 ‘언어적 시간’이자 ‘마음의 시간’으로 해명한다.

불교 유식에서는 모든 존재는 유식에 의한 존재이며 인식의 흐름 속에서 표상되는 존재이다. 때문에 외계에 실재하는 어떠한 객관적 존재는 없다. 시간 역시 외계에 실재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인식 내적 존재이다. 그런데 이 식은 ‘인식하기’[舊唯識]도 하고 ‘전변하기’[新唯識]도 한다. 그런데 아뢰야식에는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는 잠재적 능력(종자)이 있다. 이것을 ‘나’(자아)라는 것으로 보면 말라식(자아의식)이 생겨나고, 자기가 ‘오성적으로 인식’한다는 형태를 취하면 육식(六識)이 생긴다. 아뢰야식에서는 파악하는 주체와 객체는 아직 종자로서 잠세(潛伏)적이지만, 자아의식과 육식에서는 그 종자가 현세(現行)화하여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존재가 출현한다. 여기에서 일상의 인식과 선악의 행위가 전개된다. 심층심리와 표층심리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뢰야식의 종자는 원인이 되고(種子生現行), 그것이 현행하여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성립하는 인식 또는 행위는 그 결과가 된다(現行熏種子). 이때 나타난 인식 또는 행위는 영향력을 지니며 그 영향력은 아뢰야식 안에서 새로운 종자가 된다(種子生種子).

이때 현행하거나 잠복하는 종자 자체는 순간마다 생멸한다. 그러면 결국 과거와 미래를 언제나 내장하면서 순간마다 현재의 것으로 재생하여 이어진다. 이것은 시간을 현재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현재가 순간마다 변화를 더하면서 비연속적으로 연속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식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지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것은 아뢰야식 속의 종자가 어떤 외적인 실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서 현행하고 그 현행된 존재에 대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가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체는 유식’임을 체득하는 순간 이와 같은 가상 구조 위에서 성립하는 모든 일상적 시간관념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모든 집착과 그 잠재적인 힘인 종자를 끊어버릴 때 윤회의 근거인 아뢰야식은 전환하며 거기에서 시간과 관련을 지닌 식의 변화는 정지되고 법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유식의 시간론은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혹의 세계를 마음의 분석을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실세계의 구조를 비연속적인 연속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시간의 허구성도 밝혀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단지 우리 의식의 스크린에 표상된 허구적 존재이자 언어적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동시에 불교에서는 시간을 순환적 혹은 나선형적으로 인식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시간은 무명이 일어나듯 홀연히 일어난다. 때문에 불교의 시간은 무시유종(無始有終)의 무명(無明)으로부터 유시무종(有始無終)의 반야(般若)로 나아가는 것이다. 불교의 공간은 동서남북의 상극적 공간이 아니라 ‘동남서북’의 상생적 공간으로 파악한다. 동시에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성문-연각-보살-부처의 십계의 공간으로 해명한다. 그러므로 불교의 우주관은 지구의 천지 모델로 설명하는 유교적 우주관과 달리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계까지 아우르는 우주 모델로 해명한다.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을 제시한다. 즉 사람의 머리가 둥글듯 하늘은 둥글고 사람의 어깨가 네모나듯 땅은 네모나서 불교의 우주관은 시공간을 아우른다. 일연은 이러한 시공관 위에서 〈삼국유사〉를 기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기이’는 불교적 시공관 위에서 인간과 세계를 인식한 언표라고 할 수 있다.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면면이 법등 밝혀 온 스승들의 자취는 허공 가득하고



견성성불의 도량
직지사

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는 그 이름에서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라는 말은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런저런 사변(思辨)에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꿰뚫어 불성(佛性)을 증득하는 것이 선의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직지사는 선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선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인 5세기 초엽에 처음 지어진 절이라는 창건 배경을 보면 선불교와는 다른 인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지사 홈페이지(www.jikjisa.or.kr)에서는 절의 이름과 관련된 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사(本寺)의 초창(草創)은 신라 눌지왕(訥祗王) 2년(418) 아도 화상(阿道和尙)에 의하여 도리사(桃李寺)와 함께 개창(開創)됐다. 그 사명(寺名)을 직지(直指)라 함은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는 선종(禪宗)의 가르침에서 유래됐다고 하며, 또 일설에는 창건주(創建主) 아도 화상이 일선군(一善郡, 善山) 냉산(冷山)에 도리사를 건립하고 멀리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도 절을 지을 길상지지(吉祥之地)가 있다' 고 했으므로 직지사(直指寺)라 이름했다는 전설(傳說)도 있다. 또는 고려의 능여 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측지(測地)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 설도 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모습

사찰의 역사적 연원을 읽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록 속에 전하는 의미입니다. 직지사는 오랜 역사를 두고 부처님의 종지를 밝히고, 밝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에 신명을 바친 도량으로 한국불교의 대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외형으로서의 사찰은 시절인연에 따라 흥성과 쇄락을 거듭하는 것이지만,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밝히는 수행과 전법의 향화는 상전벽해(桑田碧海)가 거듭되어도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황악산 비로봉(1111m)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부터 망월봉 신선봉 형제봉 선유봉 백운봉 운수봉 천룡봉이 소쿠리의 테두리처럼 외호하는 가운데 직지사와 산내 암자들은 오늘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정맥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습니다.

일주문, 금강문, 대양문, 사천왕문을 거쳐 만세루 아래로 들어서면 좌우로 3층 석탑을 거느린 대웅전이 있습니다. 법상(法床)에서 쩌렁쩌렁 사자후를 쏟아내는 조사(祖師)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석가여래 삼존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3배를 올리고 나니 취재일정을 뒤로 미루고 하염없이 앉아 있고 싶어집니다. 법당 안의 불상과 불화, 단청과 각종 조각들이 몸도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은근한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아서입니다.

노전과 관음전, 응진전, 비로전을 차례로 돌아 서별당과 다실 앞을 지나니 설법전에서 제41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의식 집전을 공부하는 시간인지 염불소리가 낭랑합니다. 저 사미(니)들은 과거 어느 생에서든 한 번 쯤은 이 도량에서 수행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꽃이 피었다 지듯, 잎이 피어 낙엽으로 지듯, 직지의 법맥 또한 그렇게 이어져 왔을 것이므로.

직지사 부도밭은 본사를 벗어나 중암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널찍한 터에 파릇파릇한 잔디로 단장하고 담으로 둘러쌌는데, 부도밭은 영락없는 설법전입니다. 역대 고승들의 숨결이 활활발발한 법문으로 울리는 설법전 말입니다. 부도밭은 몇 개의 석축으로 구획을 나누었는데, 중간 단에 새로 이사 온 부도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따로 부도밭이 없어 옛 부도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초월해 직지의 정맥을 증명할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고 면면이 법등을 밝혀 온 스승들의 자취가 허공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부도밭 중앙의 통로 옆에 키가 낮은 오석(烏石) 몸돌의 비가 서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부도전조성기' 가 앞뒤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맥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한자의 괄호를 생략하고 원문 그대로 옮겨 봅니다.

도량 곳곳에 흩어졌던 부도 한 곳에 모아
정혜 선사 활달자재한 일대기 큰울림 남아

"浮屠는 先師들의 몸이요 혼이다. 그럼에도 歲月이 깊고 庵子는 스러져 풀더미에 뒤덮인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민망한 일이 따로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映虛綠園和尙이 大衆과 더불어 옛 부도암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새로이 부도밭을 造成하고 山中에 흩어진 浮屠들을 한 곳에 모아 다시 香火를 받들 수 있게 했다. 極樂殿 뒤편 언덕에 있던 十二基, 能如庵터 입구의 五基, 北庵터 입구 솔숲에 있던 四基를 移運하였으며, 下臺石만 남아 있던 一基는 나머지 부분을 새로 만들어 奉安하였다. 이운 과정에서 三基를 제외한 나머지 부도들은 불행하게도 舍利裝置가 遺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부도의 舍利盒을 白磁로 정성스럽게 다시 만들고 사실을 적은 白磁片을 그 안에 넣어 再奉納했다. 아울러 碑座만 남아 있던 옛 碑石의 遺構에 맞춰 碑身을 깎아 세우고 저간의 사실을 그 위에 새겨 後日의 詳考에 對備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戊子年 가을에 시작하여 己丑年 봄에 마무리하였다.

여기는 綿綿히 法燈을 이어온 先師들의 자취가 밝은 햇살 아래 냇물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 저녁노을에 흥건히 물드는 곳, 별빛에 조촐히 젖는 곳. 이곳은 慧命을 밝힌 龍象들의 法音이 바람소리에 섞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자리, 心魂을 흔들어 깨우는 터, 心眼을 조용히 눈 뜨게 하는 마당. 江山과 더불어 이 터전이 無窮하리라. 日月과 함께 이 언덕이 長久하리라."

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을 맡아 본말사의 성보들을 발굴 정리 보존하는데 온 정성을 쏟고 있는 흥선(興善) 스님의 글입니다. 단아한 문장에 직지사 부도밭의 새로운 역사가 다 담겨 있어 한 줄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유실된 사리장치를 대신해 모든 부도에 백자로 만든 사리함에 이운에 즈음한 사실을 적은 백자편을 넣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 모를 부도라 할지라도 불조혜명을 받들었던 한 수행자의 흔적이 면면이 직지의 정맥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백자편에 적은 이운기(移運記)에는 해당 부도가 원래 있던 자리를 밝히고 주인의 식별 유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굴과정에 드러난 유품을 비롯한 특기사항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이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들이어서 직지사를 거쳐 간 수많은 고승들의 자취를 더듬을 수 없다는 점은 끝내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높지 않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비 하나가 큰 위안입니다. 직지사 조실을 지낸 탄옹당(炭翁堂) 정혜(正慧; 1890~1947) 선사의 비입니다.

반듯반듯한 서체에 먼저 눈길이 멈추고 한 줄 한 줄 읽다보면 웅혼하면서도 정갈한 글맛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정혜 선사의 손상좌 되는 흥선 스님이 글을 짓고 송천 정하건 선생이 글씨를 썼습니다. 명문장에 명필의 조화가 활달자재하게 '직지인심' 의 본명(本命)을 뚫었던 선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비문에 따르면,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정혜 선사는 1910년 12월 20일 해인사로 출가해 제산(霽山; 1862~1930)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속복을 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산 스님은 사명 대사의 적손인 우송(友松) 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직지사 벽안당에서 17년 동안의 장좌불와로 수행의 사표를 보인 '수행제일' 의 조실이었습니다. 그런 큰 스승을 모시고 출가한 정혜 선사는 해인사에서 대교과를 마치고 금강산 장안사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사교입선(捨敎入禪)의 기틀을 다져 20하안거를 성만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기, 정혜 선사는 항일불교 민족불교의 거점이었던 선학원에서도 활약을 했을 만해 스님이 종종 설법좌를 양보했다는 일화가 정혜 선사의 가풍을 가늠케 합니다. 비문의 중간에 특이한 이력이 있어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스님의 敎化(교화) 가운데 자못 이채로운 것은 演劇(연극)을 통한 傳法(전법)이다. 1935년 9월부터 11월까지 스님은 朝鮮佛敎聖劇巡禮團(조선불교성극순례단)을 꾸려 대구를 시발로 김천 상주 경주 포항 예천 안동 울산 초량 김해 밀양 등지를 순회하며 4막 7장의 〈佛陀의 一代記(불타의 일대기)〉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다. 이 공연에는 空超(공초) 吳相淳 (오상순) 선생이 함께 참여하였으니, 연극이 단지 허울만이 아니었음을 推察(추찰)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성황을 이루었다는 신문기사가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극이 일상사처럼 가까워진 오늘날에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일을 그 캄캄하던 시절에 실행에 옮긴 스님의 앞선 발걸음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시조와 그림에 조예가 깊었다는 내용과 함께 또 한 줄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에 感化(감화)되어 一世(일세)를 風靡(풍미)하던 一葉(일엽) 스님이 발심 출가하였다 하니 긴 설명이 무에 필요하랴."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미얀마 연방 공화국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대표부 승격
한국주재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승격

새 롭 게 태 어 났 습 니 다

한국에서의 단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관광청과 문화원 대표부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관광청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고 보니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얀마 문화를 알리는 양국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연방 공화국 호텔 및 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신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의 개척 으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성스러운 곳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전국 각종단과 불교 단체 큰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성지순례에 따른
설명회와 각종 불교 행사 및 봉사활동, 인간방생 법회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열락주시면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성실하게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문화원 : 02)733-5665. 관광청 : 02)733-5670 팩스 : 02)733-5671

타 단체 및 여행사에서 한국내에서 미얀마 관광청 및 관관청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6~7월 차창 밀고 쏟아지는 얄궂은 밤꽃 향기의 비밀

밤나무 이야기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동시에 내 고장 한반도의 6·7월은 밤꽃 향기가 진동하는 계절이다. 어질하고 느끼하고 비릿한 밤꽃향!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도 멀리 밤나무골에서 그 향기가 차창을 밀고 쏟아져 들어온다. 그런데 밤꽃의 향기는 맡을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참으로 독특하다. 꽃향기라면 당연히 달콤하고 감미로워야 할 텐데, 비릿한 밤꽃 향기는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니다. 밤꽃향이 후각을 휘저으면 일행 중 한 명은 반드시 한마디 한다.

"이성과 거시기 하려거든 밤꽃 숲으로 가면 이루어진다."

라일락은 감미롭고도 낭만적인 향기이고, 장미는 청춘남녀의 춘심(春心)을 발동시키는 향기를 풍긴다. 여성을 유혹하는 밤꽃 향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옛날에는 밤꽃이 필 무렵이면 부녀자들이 외출을 삼갔다. 과부들은 이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성분이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는 밤꽃 향기의 성분이 정액 냄새의 성분과 같기 때문이다.

정액 성분은 스퍼미딘(spermidine)과 스퍼민(spermine은 정액이란 뜻), 푸트레신(putrescine)과 카다베린 분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네 분자는 모두 휘발성이 있어 대체로 냄새가 고약하다. 생선 비린내도 아민류 화합물 때문이다. 이런 성분은 질 내부 환경이 산성으로 이뤄져 있어 정자가 산성을 못 견뎌 죽게 되므로 이를 중화시켜 정액 속의 정자를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자기 방어 본능의 액취인 셈이다.

밤꽃향에는 양기(陽氣)가 뭉쳐져 있다. 양기가 뭉치면 비릿해진다. 단전호흡을 하는 수련가들은 밤꽃향을 맡으면 하단전으로 기운이 쑥 들어와 축적된다고 한다. 가장 영양가 있는 향이라는 것이다.

단학(丹學)에서는 3가지 보물인 삼보(三寶)를 강조한다. 하단전의 정(精), 중단전의 기(氣), 상단전의 신(神)이 바로 그것이다. 정액을 밖으로 누설하지 않고 축적 해 놓으면 정(精)이 강해지고, 기가 강해지면 상단전의 신(神)이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신이 충만하면 잠을 3~4시간만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동의보감〉에도 정기신(精氣神), 삼보를 보강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삼보가 충만하면 무병장수한다. 삼보의 첫 단추는 정을 보강하는 방법인데, 향기를 진동시키는 밤나무 아래에 1~2시간 앉아서 야릇한 밤꽃 향기를 흠뻑 맡는 것도 전통적인 양생법의 하나라고 전해진다.

밤나무는 참나무과(-科 Fag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6~7월에 암·수꽃이 잎겨드랑이에서 꼬리처럼 생긴 꽃이 핀다. 암꽃은 꽃차례의 아래쪽에 3송이씩 무리지어 핀다. 수꽃은 6장의 꽃덮이 조각과 10개 정도의 수술로 되어 있고, 암꽃은 6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씨방과 6개의 암술대로 이루어져 있다. 열매는 9~10월에 견과(堅果.단단한 껍데기와 각정이에 싸여 한 개의 씨만이 들어 있는 나무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도토리, 밤, 은행, 호두 따위)로 익어 길이가 3㎝ 정도 되는 가시가 많이 난 밤송이가 되며, 그 속에 1~3개의 밤이 들어 있다.

밤나무의 재목은 물과 습기를 잘 견디므로 철도 침목, 가옥 토대, 토목 용재, 선박재, 북의 동체, 다리 건설 등에 쓰인다. 변재는 암황색, 심재는 황갈색으로 경계가 뚜렷하고 나이테도 분명하다. 재질이 강인하고 결이 곧아 잘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 공작하기 쉽고, 가지는 말뚝으로 널리 쓰인다.

뼈아프고 고생스러운 일을 다 겪어보았다는 뜻의 "밤송이 우엉송이 다 끼어보았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시가 있는 밤송이와 갈퀴 모양으로 굽어서 찌르는 우엉의 꽃송이에서 나온 말이다. 밤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와 꽤 자랄 때까지 밤껍질이 어린 나무 뿌리에 계속 붙어 있다. 그래서 밤나무를 근본(조상)을 잊지 않는 나무로 여겨 밤을 제상(祭床)에 올린다.

제사상에 올리는 다른 과일들도 이유가 있다. 감은 자식을 키우며 속이 상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며 놓는다는 설이 있다.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한 감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 검은 심이 없으나 감이 열린 나무를 꺾어 보면 검은 심이 있다.

라일락은 감미롭고 낭만적 향기 풍기고
장미꽃 내음은 청춘남녀의 춘심 발동시켜
양기 뭉친 밤꽃의 향기는 여심을 유혹해

대추는 암수 한몸인 나무다. 이 때문에 꽃이 핀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그 수도 많아 후손의 번창함을 뜻한다. 또한 대추씨는 통 씨로 절개와 순수한 혈통을 의미해 제사상에는 빠지지 않고 오르는 과일이다. 배는 노란색 껍질을 가져 황인종을 뜻한다.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고 이는 민족의 긍지를 나타낸다. 배의 흰색 속살은 '백의민족'을 뜻하며 동시에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올린다는 설이 있다.

한편, 제사상에 못 올리는 음식도 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고 한다. 제상에 올리면 조상님이 왔다가 혼비백산해 돌아간다고 한다. 또한 진한 향이 나는 마늘, 파, 고추, 부추, 미나리 등의 음식도 제물로 쓰지 않는다. 조상이 향에 취해 정신이 맑지 못할까 염려해서다. 천하다고 여기는 음식도 제물로 쓰지 않는다. 끝자가 '치'로 끝나는 갈치, 참치, 꽁치, 멸치 등이 이에 속한다. 등이 푸른 색을 띠는 고등어도 천하다고 생각해 제상에 올리지 않는다.

그나저나 굵은 송충이 같은, 비릿한 향기를 뿜는 밤꽃에서, 어찌 탱글탱글하고 달작지근한 밤이 열리는 것일까? 참 오묘하다. 뻘밭 같은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것도 오묘하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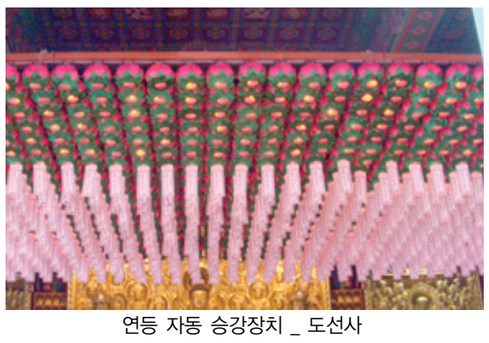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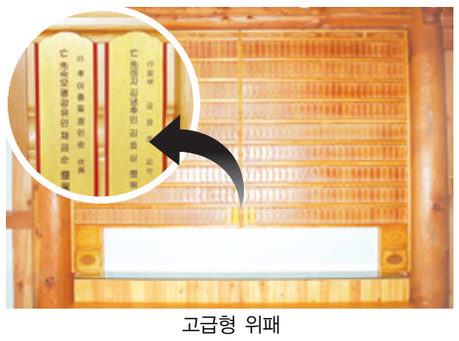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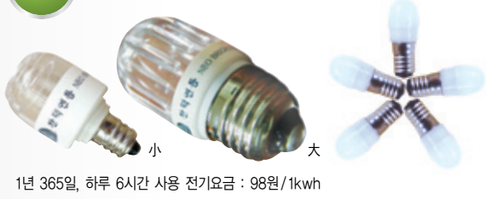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의천의 입송구법, 정치적 결과 수반해

대각국사 의천 Ⅱ ㊤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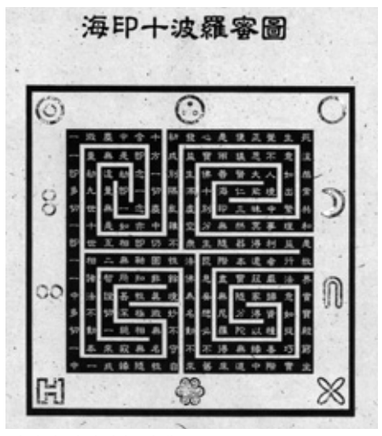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의천 스님의 입송구법은 종교적인 열정과 순수성을 전제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치적 행위의 핵심은 정원법사 및 혜인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혜인원은 오늘날의 항주에 있는 고려사를 말하는데, 이 절은 의천 스님의 방문을 계기로 후에 고려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의천 스님의 짧은 입송구법 기간에 만난 인물들은 적지 않았고, 그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은 의천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리고 의천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도 의천 스님에 대한 사모의 정을 놓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의천 스님이 지속적으로 교유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역시 정원이었으며, 정원이 주석했던 혜인원 역시 그 교유의 대상이 되었다. 의천 스님의 입송구법에서 혜인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천 스님과 정원의 교유는 물론 인예태후를 비롯한 고려왕실의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과 당시의 여·송 관계에서 혜인원이 상징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송 신종연간인 원풍 8년(1085), 이곳에 주석하던 정원을 방문한 의천 스님이 화엄종의 불전 주석서[玄要] 600여 상자를 제공함으로써 화엄교학 부흥의 기폭제를 제공한다. 이후 의천 스님의 형인 선종과 인예태후 역시 금자 〈화엄경〉 170권과 화엄경각(華嚴經閣)을 건립할 경비를 제공하였다. 정원이 입적한 이듬해인 1089년에는 의천 스님이 제자인 수개 등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고, 1099년에는 다시 화엄경각의 수리비로 금 2,000냥을 제공하였으며, 의천 스님은 입적하던 해인 1101년에도 송 영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 편에 백금 천 수백 냥을 보내 노사나불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봉안토록 하고 있다. 이 외 중국에 전해진 금석자료에 의하면, '高麗'의 2자가 추가된 〈금강경〉, 1095년의 대흥왕사판 〈금강경〉 등 총 7300여 질의 교장이 의천 스님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의천 스님의 혜인원에 대한 후원이 일시에 거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귀국 후 천태종을 개창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인요원 선사 같은 이와 지속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인원처럼 지속적인 후원을 그것도 고려 왕실 차원에서 지속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혜인원은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고 조명기 교수님에 의하면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모두 1010부 4858권, 그 중에 해동의 전적이 142부 402권이고, 거란의 전적이 39부 190여 권이며, 일본에서 구한 것이 〈인왕경소〉 1권이다. 따라서 나머지



의천의 화엄일승 법계도

약 4000여 권은 모두 송에서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이 4000여 권의 전적이 송에서 구한 것이라고 해도 송에서는 갖추어 구비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송의 교종 종파로서는 행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의천 스님과 고려 조정에서 송의 상인들을 활용하여 고려에 없는 장소(章疏)들을 비용을 제공하고 판각해서 수입한 사례들은, 의천 스님과 고려 조정이 그 장소(章疏)들을 마땅히 요청할 대상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송의 교종 사찰이나 승려들은 자력으로 장소(章疏)를 간행할 형편이 되지 못했음을 의천 스님이 귀국한 후 법회의 비용을 요청하거나, 의천 스님의 요청에 의하여 신구(新舊)의 장소(章疏)를 구하여 교열하고 판각할 것을 요청하거나, 의천 스님에게 새로 간행된 장소(章疏)들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장소(章疏)들을 모두 판각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화엄종 사문이었던 의천 스님이 화엄의 장소만은 대부분 판각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 인출전적 역시 대부분 혜인원에 공여했으리라 보인다. 7000여 권에 이르는 혜인원 봉안 교장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외에 혜인원 혹은 정원법사와 관련된 장소(章疏)의 수집과 간행기록은 별도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가 〈문집〉에서 발견된다. 그 외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혜인원에는 수차례에 걸쳐 의천 스님 개인 차원에서 혹은 고려 조정 차원에서 금은재화가 헌납되어 불사의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후 명대 초반까지 300여 년간 혜인원의 성세가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혜인원이 소장하게 된 장소(章疏)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이다.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조계종, 친정부 성향 탓 사회운동 소홀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최연과 여익구의 노력은 민불련 구성이라는 결실로

"공동 불교야학연합회 공동세미나로 교사들 공동연수도 시키고 이랬어요."

당시 불교야학연합회가 결성됐음을 말한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컸다는 점을 반증한다. 비록 수사 당국에 의해 와해되었지만 그 학생운동은 승가단체인 지도법사단과 연계되면서 80년대의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배경에는 최연과 여익구의 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최연은 1979년 말 제대와 함께 불교운동에 복귀하였고, 여익구도 이 시기에 승려 생활을 접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한다. 최연이 대불련을 중심으로 활동한 배경이 있다면 여익구는 탄허 스님을 시봉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스님들과 교류하였다. 최연이 대불련 후배들을 운집시켰다면 여익구는 승려 중심의 지도법사단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대불련 내에서 어쨌든 인제 거기는 (여)익구 형이 있으니까 진보적인 활동도 하는데 민중불교적인 그거보다도 더 뛰쳐나와서 하는 이건 더 급진적이다. 아주 급진적이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대불련 내에서는 그러니까 대불련 내에서는 차곡차곡 그런 어떤 기반들을 쌓았지요. 지도법사단들 의식화 시키는 거 하고 대중들을 일정부분 있잖아 의식을 고양시키는 대회도 하고 그래하고 저희들이 사원화 운동하면서도 여름대회 할 때는 간사로 참여해주고 다 했어요. 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 대불련은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그 헤어집니까? 익구 형하고 안 헤어져.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이제 민불련(민중불교운동연합)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둘의 노력은 마침내 1985년 '민불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최연의 대불련 활동과 여익구의 민청학련 이후 이어지는 활동에



개운사 독성각 모습

서 현대 한국불교운동사의 일면을 보게 된다. 그들의 활동이 이어질 때 승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최연은 대불련이 승가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자평한다.

"70년대 까지만해도 그 사실 정권과 너무 밀착돼 가 있었고…."

"조계종이 너무나 있잖아 등한시 핸 거예요. 그럼 지금 조계종의 많은 문건과 토론에서도 나오는 자기 반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요러한 스님들의 의식이 계기가 (변하게) 된 게 사실은 1976년도에 생기게 됩니다."

"사회 참여도 하고 또 어어 그 어떤 그 포교 새로운 어떤 전략과 전술 즉 포교 방법론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불련에서 계속 해왔죠."

승가, 구체적으로 조계종이 대 사회운동에 나서지 못한 원인은 조계종단의 정화운동과 친정부적 성향이었다고 말한다. 정화과정에서 비구승와 대처승 간의 대립으로 불교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렸음과 동시에 스님들의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최연 자신이 대불련 회장이었을 당시(1976)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승가의 대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은 10·27법난 이후 구성된 대불련 지도법사단이라고 말한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불교설화집 〈사석집(沙石集)〉의 편저자 무주 이치엔(無住一圓) ㊤

민간의 입으로 통념을 바꾸다


쵸보지의 무주 좌상

어느 산사에 살고 있던 욕심 많은 승려가 엿을 만들어 혼자서 먹고 있었다. 이것을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보관하여 놓아두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이가 먹지 못하도록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 두었지만, 이 아이는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승려가 바깥에 볼일이 있어 외출하자마자 선반에서 엿을 꺼낼 때, 그만 엿단지를 엎어 버렸다. 평소 입고 있던 옷에도 머리에도 엿이 묻어버렸다. 늘 먹고 싶다고 생각했으므로 두 번, 세 번 먹고 싶은 만큼 먹었으나 승려의 비장의 물병이 낙수물 떨어지는 돌 위에 부딪혀 깨져 버렸다. 승려가 돌아왔을 때, 이 아이는 앙앙거리며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니, "소중한 물병을 잘못해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단맞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저지른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한 번

무주는 민담 등 화예의 선구자
민간포교 설화 등 모아 저술해

먹어도 죽지 않고, 두 번 세 번 먹어도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옷소매에 묻히고 머리에 묻혀보기도 했습니다만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엿은 먹어 없어져 버렸고, 물병은 깨져버렸다. 욕심 많은 승려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이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다. 학문의 재능으로 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을 것이다.

중세 무주 이치엔(1226~1312)의 불교설화집인 〈사석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는 18세에 현재의 이바라기현 동북부 지방에 있는 호온지(法音寺)에서 출가하였다. 소·대승의 불전을 공부한 그는 지관, 선, 진언 등을 수행했다. 37세 때 비로소 나고야에 자리한 쵸보지(長母寺)의 주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뒤에 미에현 호케지(法華寺)의 주지도 겸직하면서 50여년을 지냈다. 이 〈사석집〉 전10권이 탈고된 것은 1283년 58세 때의 일이다. 또한 이후 노년의 정력을 기울여 74세 때 〈성재집(聖財集)〉 3권, 80세 때 〈잡담집(雜談集)〉 10권을 탈고했다.

일본 내에서 무주는 일본 고유의 시가(詩歌)인 와카(和歌)가 즉, 불교의 다라니라는 설을 제창하여 낙어(落語), 만담(漫談), 강담(講談) 등을 칭하는 화예(話藝)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한다.

무주는 〈사석집〉 서문에서 "사금을 모으고자 하는 자는 모래를 모아 여기에서 채취한다. 옥을 가지고 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돌을 주워 이것을 갈고 닦는다. 따라서 사석집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였다.

앞에 제시한 설화도 이러한 잡다한 신변의 일이나 민중 가운데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일상의 지혜나 불교 교의의 심오한 진리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불교관련 기록문화는 고대의 일본영이기, 왕생집류, 영험기 등을 볼 때, 불교의 다양한 민간포교나 전승과정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주가 되었다. 무주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의 토착화는, 높은 봉우리의 가르침이 골짜기와 시내로 흘러들듯 민간의 입을 통해 대중의 통념을 바꿔간 일상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집은 먼저 제1권에 신불습합(神佛習合)에 기반한 본지수적(本地垂迹)의 설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중세에 이르러 일본에 불교가 본격적인 토착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라는 이문화(異文化)가 이미 확립된 전통신앙과의 습합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불(佛)이라고 하는 이신(異神)이 본지이며, 수많은 토착신이 수적이라고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민간포교를 담당했던 무명 불교인들의 희생적 정열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 · 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간경입문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살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 · 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사바세계는 견디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心如畫師심여화사 雲水衲子운수납자 법정

올해로 도불 50주년을 맞아 경복궁 앞 갤러리 현대에서 '빛의 울림' 이란 테마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기념전시회를 하고 있는 방혜자 화백(74). 61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면서 연 고별전에서 법정 스님을 뵈었으니, 선생 도불과 스님 만남은 나란히 간다. 반세기.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해도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나그네가 만난 분 가운데 스님과 가장 오랜 인연을 이은 어른이다. 50년 전 방명록에는 '心如畫師 심여화사 雲水衲子운수납자 법정 합장' 이라고 적바림되어있다. 마음을 빚는 화가란 뜻으로 쓰지 않으셨을까. 법정 스님은 운허 스님과 함께 〈불교사전〉 편찬 일로 서울에 와 계실 때였다.

"50년 전이니까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께서 불교 정화운동을 하셔서 새로운 바람이 불던 때로 스님들이 산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사회 참여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200달러를 손에 쥐고 오른 유학길.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집에서 보내오는 적은 돈으로 가까스로 살아냈다.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가나와 똑같이 80달러 수준이었던, 가난한 나라 도움받기가 부끄럽고 양심에 걸렸던 선생. 유학한 지 세 해째 되는 1963년. 처음으로 그림 세 점이 처음 팔리자, 절반을 부모님께 부쳐드리고 자립한다. 그때 점심은 빵 한쪽에 달걀 한 알, 저녁은 쌀과 채소를 넣고 끓인 죽으로 살았다. 먹고 난 달걀껍질은 그림재료로 쓰고, 화포畫布가 떨어지면 치마를 찢어 그 위에 그림 그리며, 스스로 선택한 가난을 불씨삼아 예술혼을 불태웠다.

"가난은 마음을 비우게 만들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욕망이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1982년 전시회 때문에 귀국한 방혜자 선생. 고국에 돌아와서 흙도 밟아보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 위만 걷다가 돌아가게 되었다며 후배에게 하소연했다. 법정 스님하고 가까웠던 후배는 불일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 "후배 덕분에 불일암에서 일주일이나 머무는 행운을 누렸죠." 그동안 고국을 그리며 외국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나 크고 작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저녁이면 후박나무아래서 쏟아져 내리는 별을 헤이곤 했다.

"어디에 손 내밀지 않던 어른이 불쌍한 동포가 왔다며 큰 절에 내려가 찰밥과 맛있는 음식도 얻어다 주셨어요. 제가 장작불을 때서 밥을 할 줄 몰라서, 스님께서 손수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식구처럼 따뜻이 대해 주시며, 사바세계란 견디고 살아볼만한 세상이라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보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다소 상기되어 말씀하는 선생 얼굴이 당신 그림처럼 환히 빛난다.

"떠나오기 전에 보니까 땔감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묵던 방에다 봉투를 하나 살짝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그 봉투가 제 가방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겠어요? 무슨 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리 풀어보려 해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고 단호하게 베푼데 대한 조그만 성의조차 마다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담백하고 청렴한 수행자 모습을 가까이 뵐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러웠다고 돌아본다.

91년 귀국한 선생은 가장 먼저 불일암을 찾았다. 82년에 입은 은혜 갚음으로 프랑스에 모셔서 유럽 종교계를 돌아보시게 하려고 법정 스님을 초대했다. "망설임 없이 선뜻 마음을 내시고는 꼭 청학 스님과 함께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청학 스님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비행기 표를 보내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원고료 받은 것이 있다고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파리에 스튜디오를 하나 구해드렸더니 두 달 동안 계시면서 유럽을 돌아보셨어요."

그때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장로 자녀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림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달래던 그 학생이 어느 날 느닷없이 '파리엔 절이 없어요?' 하고 물었다. 그 물음에 종교가 달라도 절은, 외국에 나와 사는 한국사람들에게 귀의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학생을 가장 먼저 스님께 데리고 갔더니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스님께서는 그때 이런 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울 수도 있는, 고향에 온듯한 느낌이 드는 명상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내신 것 같아요."

> 선택한 가난을 불씨삼아
> 예술혼을 불태웠다
>
> 시멘트 바닥 위만 걷다 갈 뻔한
> 불쌍한 동포를 보듬어 준 어른

누구나 살다보면 울고 싶은 때가 있다. 그러나 다른 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실컷 울 곳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건축가 김중업은 집 어느 구석에서든 울고 싶은 곳이 있어야 한다며, 집을 지을 때 꼭 울음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방혜자 선생. 스님을 모시기 전에 파리에 있는 불자모임 사람들을 만나서 스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고 안내를 부탁했다. 1991년 5월 19일 만들어진 불자모임은 '재불교민불자회' 다.

법정 스님을 모신 법석에서 이곳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또 자연스레 나왔다. 그때 청학 스님이 일을 꾸며보자고 선뜻 나섰다. "스님께서 따뜻한 글과 말씀으로 우리 겨레 동포들을 보듬어 주셨다면, 청학 스님은 뒤에서 궂은일을 다 하셨어요. 파리와 서울 길상사를 만든 주역으로 최근에는 광주 무각사 중창을 하고 계시는데 타고난 미감에다가 추진력이 대단하시죠." 선생을 뺀 파리 길상사를 떠올릴 수 없듯이, 청학 스님을 빼놓고 길상사 얘기를 꺼낼 수 없다.



건립 기금 모으기 위해 한-재불화가가 어울려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고, 법정 스님도 길상사 건립 모연募緣 강연회를 가졌다. 그밖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93년 파리 길상사가 문을 열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법장궁 보살님과 이보란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길상회를 만들어 창건 초기 파리 길상사 어려움을 돕게 되었어요. 법정 스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길상회를 위한 법회를 해주셨습니다." 이 열기가 뒷날 성북동 길상사 창건으로 이어지니, 뜻으로 살피면 지난 10월 2일 '꽃비 내리는 날' 이란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파리 길상사가 성북동 길상사 본사本寺인 셈이다.

"개원식 때 계를 받는다고들 하는데, 저는 수도修道를 많이 해야 계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계를 받을 생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개원식 날 보니까 저만 빼놓고 모두 다 계를 받았어요. 스님께서 몹시 섭섭하셨나 봐요. 법명을 다 지어놓으셨는데 저만 계를 받지 않았으니. 서울로 돌아가신 스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 다음에 법명이 필요하면 연화장蓮華藏으로 하시오.' 요전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고,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는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법정 스님은 시몽詩夢엄마(방화백)는 불자도 아니면서 길상사 개원에 온 정성을 쏟았다고 말씀했다. 선생은 2년 뒤 법정 스님께 계를 받았다. "전에는 책 보내실 때 '시몽이 엄마에게' 라고 보내주셨는데, 계를 주시고 나서는 꼭 '연화장 보살' 에게라고 보내주셨어요."

개원식 전날 밤 선생 꿈. 법정 스님이 금빛 가사를 입으시고 앞서서 절 안으로 들어가시고 선생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데 일주문 앞에 선 분이 선생에게 묘연妙蓮이라고 돋을새김된 도자기로 만든 둥근 판을 주었다. 선생은 그 판을 가슴에 안고 절에 들었다. 묘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스님이 법명을 연화장으로 지어놓으셨다니 너무 신기하죠?"

현대미술 중심지 파리 후불탱화를 추상화로

"여긴 불란서 파리니까 추상화로 한 번 해보지." 길상사 개원을 앞두고 법정 스님은 이곳은 현대미술 중심인 파리니까 우리 전통후불탱화보다는 현대화가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했다. 절대미감인 법정 스님다운 발상이시다. 어쩌면 세계 최초 시도일지도 모를 추상후불탱화(1994)는 그렇게 태어났다. 생명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추상으로 나타낸 탱화. 선생은 이곳에 해마다 파리에 계신 많은 화가 작품이 번갈아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리 길상사는 지금도 여전히 선생 후불탱화 '피어오르는 생명' 이 지키고 있다.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주지 김영제

총무 곽수산 재무 구성해 노전 박인덕

신도회장 장영일

신도일동



관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불교회화의 시작 "불화초"

■ 전시일시 : 10월 2일~11월 27일 오전 10시~오후 5시

■ 관람문의 : 02)3460-5300 (매주 월요일 휴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번지 전화 : 02)3460-5300 / 팩스 : 02)3460-5200 www.gwanmunsa.org

무심사

지장보살, 금강역사 점안대법회

증명법사 : 혜인 큰스님(단양 광덕사, 제주 약천사 회주)

지장보살 봉안 복장불사 생축자 및 선망부모영가 1위당 금니 소금강경 영구히 모셔지는 복장불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지옥제도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과 선연 인연 맺으시어 가피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11시

장 소 : 무심사 극락보전

매주 토요일 천수다라니 철야정진기도 및 방생도량

안내전화 : 053)616-8080, 055)532-0408. 010-9898-0108

계좌번호 : 농협 702058-51-003978 (예금주 : 무심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810번지

무심사 주지 무 심 합장



빛에 둘이 없다. 빛은 다 한 덩어리 듯 진리 또한 분명히 그럴 것이다. 빛을 그린 화백의 그림을 처음 봤다. 스님과의 인연을 들었다. 열흘 쯤 지난 뒤 스님과 선생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다. '빛과 빛이 만났다' 고 느꼈다. 하필이면 빛을 그릴까에 대한 답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녀의 몸속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밝음을 그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스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가셨다. 빛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두분의 만남을 '빛의 만남' 이라고 여긴다.

그 인연 메아리로 선생은 리움미술관장 홍라희 여사 부탁을 받아 익산에 있는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 입구 중앙 홀에 추상불화 세 점을 그려 보냈다.(1995) 그리고 전통과 현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보각사에서는 선생이 그린 후불탱화(1998)에 맞춰 부처님을 모셨다. 보각사 후불탱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은 선생을 수소문해서 추상영단탱화(2007)를 모셨다.

눈은 우리 몸안에 있는 오관 중에서 유일하게 빛을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천지의 아름다움, 찬란한 우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맑은 어린 아기눈빛을 바라볼 때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면서 받아온 두 눈 빛은,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에 모여 송과 체에 닿게 됩니다. 송과체는 두뇌 가장 중심에 있는 지혜 샘으로서 두 눈 빛이 송과 체에 이르면서 빛의 눈, 제삼의 눈, 마음의 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빛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외형뿐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나 인간 본성까지도 꿰뚫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밝게 열어주며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 책 〈마음의 침묵〉 '마음의 그림' 꼭지에서

"제가 예닐곱 살 때 빛을 신비스럽게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이 되었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아차산 밑에서 살았어요. 과수원이 있고, 그 뒤로 개울이 있었는데 늘 거기서 놀았죠. 말간 물속에 자갈돌,

햇빛이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
빛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빛이 되어
그림 속에 들어가 노래한다
둘이 '하나' 되어 노래 부른다

–선생 시

해초들이 있는데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면서 저런 것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 빛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한 지 60년 뒤에 생각지도 않게 그 세계가 나왔어요."

그 때 물속에 빛이 막 반짝이는 그 모습이 선생 어느 구석에 잠들어 있다가 60년 뒤에 솟아오르듯이 깨어났단 말씀이다. 그 화폭에 나그네도 어릴 적 냇가에서 봤던 그대로, 부서져 내려앉은 빛과 높고 낮게 찰랑이는 잔물결이 어우렁더우렁 영롱하게 재현되어 있다.

선생 꿈은 온통 빛이다. 물성과 빛이 하나가 되고, 물속에서 책을 읽는데 책이 젖지도 않는 꿈…. 어느 꿈에서 커다란 화폭에 바다를 그리고 있었다. 반짝이는 금빛 물결을 그리는데, 선생 손 옆에서 또 다른 손이 나와서 그 빛을 그리고 있었다. 그 손을 따라 그리고… 손과 손이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 "제 손과 그 손이 하나가 되어 그려나가는데 화폭이 진짜 바다가 되어 출렁거려요. 그렇게 빛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빛을 그린다하는데 과찬이에요. 빛을 그린다기보다는 빛의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지 않을까?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가는 존재, 별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놀이, 우주가 함께하는 놀이다. 둘이 아닌 경지.

선생은 나그네를 만나러 화실로 내려오는 길, 눈에 뜨지 않을 만큼 작디작은 야생화 꽃잎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며 찬탄해 마지않는다.

선생 그림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온 자연채색, 식물성 안료와 자연에서 온 접착제로 한 땀 한 땀 수놓아 아롱진다. "보는 사람이 자연 숨결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빛 한 점 한 점을 그리는 일이 사랑과 평화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범부는 自他의 다름을 걱정한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곧 잘 눈에 띄는 광고물을 발견하게 된다. 두 얼굴을 대조해 놓고 수술 전 · 수술 후라고 표기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로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판별하기 어려운 영 딴판의 얼굴이다. 수술 전 취약한 부분을 수술해 미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내면 보다 외형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며칠 연휴가 낀다거나 방학이 되면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수술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옛 모습으로는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면접 때 외모를 많이 참작한다고도 한다. 그러다보니 입사시험을 치러야하는 젊은이들은 너 나 없이 성형외과를 남나들기 일수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세상에 어느 재벌이 얼짱이나 몸짱이었다는 말을 들어 보았던가. 또한 위대한 정치인이나 과학자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다 떨어진 배잠방이를 입은 촌부와 값진 밍크코트를 입은 부잣집 마나님을 보자. 그 마나님이 시선을 끈 것은 값비싼 외투 때문이지 그녀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다. 그 외투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나면 몰골이 사나운 사람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반면에 땀내 나는 배잠방이를 벗어버린 촌부의 모습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이 세상에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는 뿌듯함을 볼 수 있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선비가 담소를 나누다 헤어져 3일 후에 만나면 예전의 친구를 알아 볼 수가 없어 눈을 비비고 보아야 만이 이전 친구를 알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상대 친구가 성형외과에 가 여기저기 뜯어 고친 것이 아니다. 촌음을 아껴 독서에 매진했던 선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상서(尙書)〉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얼굴 좋은 것은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 이 말은 미모 보다는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몸짱, 얼짱을 엄중히 경계한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말 가운데 '아무개는 상호가 좋다' 는 말을 쓴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sha?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전적으로 외적인 문제이다. 외형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낮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석존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외적인 문제보다 내면세계의 확대와 내면세계 견고함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굴절된 마음, 일그러진 마음의 순화에 치중하여 마음 닦기를 한결 같이 역설했다. 마음을 닦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에 있는 것이다.

어느 성인에게 걱정이 있었다. 그 하나는 덕을 닦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문을 열심히 익히지 못하는 것이며, 셋째는 의로운 것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며, 넷째는 자신의 착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범부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는 게 큰 걱정거리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화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일 수 이다. 그리고 돈타령, 출세타령, 시대타령, 이웃타령을 하다가 종국에는 부모타령까지 하며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모든 사단을 상대편에 돌리고

선비는 3일 후 만나면 눈에 띄게 변해
'괄목상대' 란 독서에 매진한 모습서 유래
얼굴보다 몸이, 몸보다 마음이 중요해

자신은 쏙 빠지고 만다. 이러한 사람은 날씨가 타분한 날의 육신과 마음의 상태와 흡사할 것이다. 타령조의 인생이 진취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뀌는 길은 삶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다. 성인의 걱정거리가 곧 나의 걱정거리로 여기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연소시키려 하는 것이다.

목적의식은 모든 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산에 오르면 그 주변에 많은 구름이 끼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구름은 목적의식이 있는 산악인에겐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가식은 오래 가지 않고 그 허구성이 이내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일상도 뭐 다를 게 없다. 세상에 진실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의술에 의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세월 앞에 그 인위적인 S라인도 얼짱도 퇴색하기 마련이다. 가식 없고 청순한 삶 이야말로 값진 화장품의 향기 보다 그 내음이 오래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에 훈풍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바로 지금 내면의 세계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자. 생각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실천이다.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호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윤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지혜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부 원 장 김원열법사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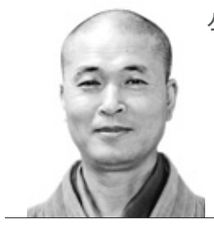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범패, 육효, 학인모집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도인이 침 뱉는 정도의 일일뿐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진실이 관(觀)하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진실이 없지는 않지만 관할 수는 없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결국 뜻이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진실을 잃을 뿐이야."

問 諦爲什麽觀不得 師云 諦即不無 觀即不得 云畢竟如何 師云 失諦

제(諦)는 불교에서 진리 진실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을 4성제(四聖諦:4가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는 진리보다는 진실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관(觀)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을 관(觀)이라고 한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게 마음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어찌 또 생각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참 뜻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어떻다고 딱 말하면 벌써 진실은 잃어버리고 만다. 잘 생각해보라. 진실은 말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고, 흉내 내지 못하지만 진실은 항상 나타나고 있다. 네가 지금도 진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것을 물건을 보듯이,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이해해라. 우선 너 자신에 대한 것부터 이해해라.
너의 주인공에 대해 마음이라고도 말하지 말라. 마음이라는 글자가 네가 아니지 않는가. 마음을 깨달아라. 네가 너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면 우주의 진실도 알고 세상의 진실도 알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수행해도 도달되지 않으며, 질문해도 도달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달하는 것과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도인이 침을 뱉는 정도의 일로 밖에 보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그 일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은 땅 위에 침을 뱉었다.

問 行又不到 問又不到時如何 師云 到以不到 道人看如涕唾 云 其中事如何 師唾地

하! 이 얼마나 명쾌한 설명인가. 원래 수행하지 않아도 도달되어 있으며, 질문하지 않아도 도달되어 있는 것이다.
도달하는 것과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한 도인은 침을 뱉을 뿐이다. 공연히 도달과 도달하지 못함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라.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짓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조사의 뜻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거기에 있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본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와 너의 눈이 서로 보고 있는 외에 제2의 주인공이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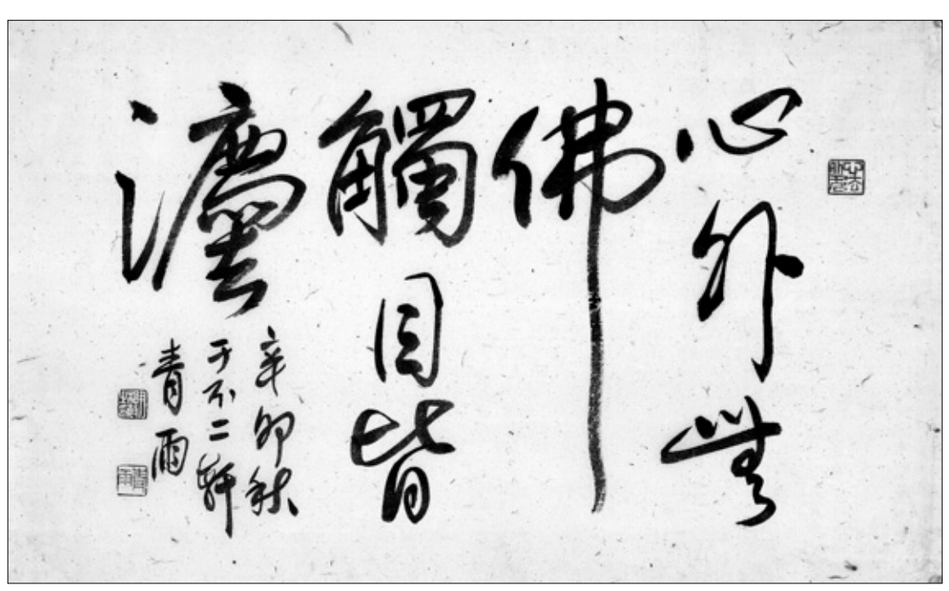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如你不喚作祖師意猶未在 云 本來底如何 師云 四目相睹 更無第二主宰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가져 온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선(禪)을 알고, 도(道)를 알고, 우주를 안다. 조주 선사는 "네가 조사의 뜻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거기에 있지 않아" 라고 말했다.
'조사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다. 거기에도 조사의 뜻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하는 곳에 조사의 뜻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선사를 찾아가서 방(榜)을 당해보라. 그 때 문득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심외무법

마음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



心外無佛 觸目皆法(심외무불 촉목개법)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이다. - 미상

觸: 닿을 촉
皆: 다 개

청우법촉불심
우불신무 외
이묘개 무
헌추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선비요법경

구마라집이 번역한 선 수행서

〈선비요법경〉 3권은 구마라집에 의해 3권으로 번역된 것으로 선의 수행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관법 및 조심(調心)과 조식(調息) 등 선관에 대한 방법을 부정관법(不淨觀法)을 중심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전이다. 설법의 대상은 1250명의 상수대중(常隨大衆)과 500명의 성문대덕(聲聞大德) 등이다. 대비구 1250명과 500명의 성문대덕들은 설법을 듣고 깨침을 터득했지만 마하가치라난타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문이 있고 사념처 수행을 닦지 않은 까닭에 금생에도 깨침을 터득하지 못했다. 이에 부처님은 가차라난타 및 그 자리에 있던 마하라비구 및 미래의 비구들을 위해 게으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을 설법한다.
제1 계념법(繫念法)은 조용한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발가락 끝에 마음을 갖다 두고 그것을 점차 온 몸으로 확장해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제2 백골관상법(白骨觀想法)은 마음을 이마에 갖다 두고 집중한다. 그리고 점차 머리 전체로 확장해 대상을 바꾸어 관찰하는 역관법(易觀法)으로 진행해 차례로 40명의 백골을 관찰한다.
제3 참회자책관(懺悔自責觀)은 마음을 왼발의 엄지발가락에 집중하고, 점차 다리 및 온 몸으로 확장

부정관법 중심으로 구체적 방법 제시
게으름 없애고 마음 집중하는 법 담겨

해 자신의 몸이 모두 더러운 물질로 충만해 있다고 가정해 관찰하는 부정관(不淨觀)으로 관찰한다.
제4 팽창농혈관(膨脹膿血觀)은 왼쪽 엄지발가락에 마음을 두고 점차 확장해 몸이 썩어 부풀어오르는 모습을 10회에 걸쳐 관찰한다. 그 악취가 삼천대천세계까지 미치지만 끝내 공적하다는 것을 관찰한다.
제5 박피부정관(薄皮不淨觀)은 왼쪽 엄지발가락에다 마음을 두고 그 엷은 피부의 안과 밖의 온갖 더러움을 관찰해 점차 온 몸까지 확장한다. 이로써 아귀 및 육대(六大)를 관찰해 그 실상을 파악한다.
제6 후피충취관(厚皮蟲聚觀)은 왼쪽 엄지발가락에다 마음을 두고 피부속 작은 벌레들이 몸속 오장을 갉아먹고 온 몸의 아홉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리고 몸은 육대의 물질로 이뤄진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무아(無我)임을 사유한다.
제7 극적어니탁수세피잡상관(極赤淤泥濁水洗皮雜想觀)은 오른 엄지발가락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을 머리끝까지 확장해 일체의 피부와 살과 몸의 기관들이 썩어 흙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한다. 남은 뼈는 붉은색 및 흐린 물과 같음을 10회에 걸쳐서 이것이 삼천대천세계까지 미친다는 것을 관찰한다.
제8 신사상관법(新死想觀法)은 왼쪽 엄지발가락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을 머리끝까지 확장해 그것을 금방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 5회에 걸쳐 관찰하는데 그 시체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줄을 안다.
제9 구신상관법(具身想觀法)은 왼쪽 엄지발가락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을 머리끝까지 확장해 모든 뼈를 관찰한다. 모든 뼈마디가 하얗고 완전하다는 것을 10회에 걸쳐 관찰해 점차 확장시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줄을 안다.
제10 절절해관법(節節解觀法)은 오른 엄지발가락의 두 마디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을 머리끝까지 확장해 363개의 골절로 구성돼 있음을 관찰한다.
제11 백골유광관법(白骨流光觀法)은 오른 엄지발가락의 마디가 백광으로 가득차 있음을 관찰한다. 363개의 뼈마디를 모두 관찰해 32상과 80종호가 모두 백광을 비춘다고 관찰한다.
제12 사대관법(四大觀法)은 척추의 마디마다 백광이 흘러나와 일체의 몸을 비추고 그것이 확장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찬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사대로 구성돼 있음을 관찰하고 일체의 인연도 사대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다.
제13부터 제15관법까지는 사대를 자세하게 분류한 것이다.
제16 보상관법(補想觀法)은 자신의 몸이 지나치게 공하다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약으로 몸을 추스르는 것처럼 보완한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제17 신념처관법(身念處觀法)과 제18 신부정잡예상관법(身不淨雜穢想觀法)은 자신의 몸을 오색이 감싸 청정해지고 투명해짐을 관찰하여 무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제19 염불관법(念佛觀法)은 다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으로 설법의 장소가 변경된다. 여기부터는 선난제비구를 위하여 죄업장의 참회 및 사견(邪見)과 살생의 번뇌에 대하여 설법해주는 내용이다.
제20 수식관법(數息觀法)은 관불삼매(觀佛三昧)를 터득하고도 성현의 과보를 얻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으로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터득하도록 하는 관법이다.
제21 구상관법(九想觀法) 및 자심관법(慈心觀法)은 온 몸에 온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는 난법(暖法)을 설명한다.
제22 · 23관법은 정관법(頂觀法)을 중심으로 14회 관찰하면 출정과 입정에 항상 신체가 안락함을 터득한다고 설명한다.
제24~30관법까지는 지 · 수 · 화 · 풍 · 오음 등을 통해 공(空) · 무아(無我) · 무상(無相) · 무작(無作)에 대해 설한다.
마지막 유통분에서는 계를 지키고,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며, 업장을 녹이고,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당부한다. 특히 이 경전에 대하여 미래세 말법시대에는 함부로 범부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이처럼 〈선비요법경〉은 주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그것이 부정(不淨)하고 무상(無常)하며 (空)하다는 도리를 설명한 것이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 아함경 -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투어 industour 인더스투어

인더스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서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롭고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인도 불교성지+나란다 8일
- ▣ 인도 불교성지순례 핵심일주 9,10일
- ▣ 인도/네팔 불교성지완전일주 11,12일
- ▣ 인도 불교성지완전일주+오랑가바드석굴 14,15일
- ▣ 인도 불교성지 대열반열차 11일

◈ 이 밖에 스리랑카, 라오스/미얀마, 중국 성지순례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불교성지순례 상품은 www.industour.com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사찰의 상황에 맞게 최상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인더스투어 불교성지순례팀 직통 : 02)2252-8226

창사 18주년 기념

VVIP 성지순례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16일, 1월 27일, 2월 7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10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11월 ~ 12월 14일까지 출발상품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74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90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2,100,000원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불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미산 | 구채구 | 낙산대불 | 황룡사 6
■ 방콕 | 파타야 5일
■ 세계7대불가사의 앙코르왓트 씨엠립 5일
■ 라오스 5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10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10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④ 약쑥초 밀대 4.7ƒ×25cm
⑦ 약쑥초 3호 4.7ƒ×13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ƒ×13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ƒ×34cm
⑤ 약쑥초 1호 5.9ƒ×18cm
⑧ 약쑥초 4호 4.7ƒ×10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ƒ×14cm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③ 약쑥초 돈타레 5.6ƒ×27cm
⑥ 약쑥초 2호 5.9ƒ×14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ƒ×10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ƒ×18cm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④ 밀납초 밀대 4.7ƒ×25cm
⑦ 밀납초 3호 4.7ƒ×13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ƒ×13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ƒ×34cm
⑤ 밀납초 1호 5.9ƒ×18cm
⑧ 밀납초 4호 4.7ƒ×10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ƒ×14cm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③ 밀납초 돈타레 5.6ƒ×27cm
⑥ 밀납초 2호 5.9ƒ×14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ƒ×10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ƒ×18cm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달마도 100여 점을 한눈에 보는 책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김나미 지음
렛잇비 출판사 | 1만6000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선종의 공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달마는 선종 초조로 숭산 소림사를 창건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달마는 인도 남천축국 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석가모니처럼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일반인들에게 달마가 유명한 것은 선종사적 의미 외에도 '달마도'의 영향도 크다. 달마도는 그 그림에서 나온다는 불가사의한 힘으로 인해 여러 가지 효험·기적들이 이뤄진다고 소문이 나있다.

종교 전문작가 김나미 박사는 최근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를 펴냈다.

책은 저자가 1992년부터 〈해인〉 지에 '달마를 찾아서'를 타이틀로 5년간 연재했던 원고를 모은 것이다. 저자는 연재를 하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다니며 달마도에 관한 자료와 글을 수집해 하나로 모아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를 펴내기도 했다.

저자는 "달마도는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인가증명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제자에게 전해주는 일에서 비롯됐다"며 "흔히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 스님은 그것을 그린 사람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저자는 달마도가 갖는 의미를 ▷예배의 대상이 아닌 평등의 지향 ▷깨달음을 추구하는 달마 정신의 상징 ▷특별한 화법·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여백이 많음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의 지향 ▷반드시 선수행자만이 그릴 수 있음을 들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1~6장에는 달마도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써 달마에 관한 소개와 설화, 행적 등을 담았다. 7장에는 100여 점의 달마도를 수록했다. 책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년 예산을 통틀어 사왔다는 김명국의 달마도에서부터, 단원 김홍도의 달마도, 걸레 스님 중광의 달마도, 영화 '아제아제바라아제'에 나왔던 범주 스님의 달마도 등을 볼 수 있다.

저자는 "각 그림에는 달마 스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법보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중시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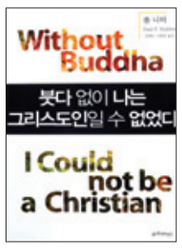


김명국의 '달마도'

책은 어려운 용어나 사상을 피해 초심자나 일반인에게 술술 읽힌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불교에서 찾은 그리스도교 해답"



붓다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폴니터 지음
정경일·이창엽 옮김
클리어마인드 | 1만9000원

종교다원주의신학의 세계적 석학 폴 니터 교수의 저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가 한글로 출간됐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발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은 니터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의문점을 불교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개인적 경험의 고백서인 셈이다.

서론인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에서 폴 니터 교수는 직설적으로 "이 책은 담고 있는 내용들과는 달리 다소 이기적인 책이다. 나는 주로 나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개인 안에 가두지 않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반에 대한 관심과 고민으로 확산시켜왔다. 불교를 접하면서도 개인 수행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그리스도교 영성과 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사회적 실천에 관심이 많은 폴 니터 교수는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교 교회에서의 공동체적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불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책은 니터 교수가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면서 불교의 전통에서 깨쳐온 성찰을 7개의 장을 통해 비교·설명하고 있다. 각 장은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이 폴 니터 교수 자신과 그가 속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질문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제시하고 있다.

폴 니터 교수는 오랜 세월 그리스도교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것들을 불교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제5장 '그리스도 예수와 붓다 고타마'에서는 불교를 통해 예수의 신성을 깨달음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폴 니터 교수는 십자가의 법도 〈법구경〉에 나타난 "증오는 사랑으로만 없앨 수 있다"는 구절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다. 니터 교수는 〈법구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증오하기 보다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만 하는 사랑이라고 풀이한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니터 교수는 이처럼 불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통찰과 더 분명한 진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은 안도감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들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폴 니터 美 유니온신학대 교수

그는 불교가 자신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자 신학자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폴 니터 교수는 이 책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는 예수에게로 귀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일 수 없었다〉는 그리스도교적인 물음에 대한 불교의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폴 니터 교수는 이를 서양의 종교학계와 신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여러 종교 전통에 속하기'로 보고 있다.

폴 니터 교수는 "여러 종교전통에 속하기는 종교간 대화와 평화를 더 깊고 인격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런 성찰이 복합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한국의 종교인과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행복하려면 '나'를 배워라

서광 스님, "'진짜 나'를 알아야 진정 자유로워져"
마음공부 워크북 '나를 치유하는 마음기행' 출간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수영, 테니스, 피아노를 배우듯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 돼야 합니다. 행복에도 학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히 젊고 매력적일 것 같은 자신이 어느 날 문득 초라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비쳐질 때, 잘난 나에서 못난 나를 발견할 때.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이 뿌리 채 흔들리는 초라한 현실의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

삶의 여정에서는 누구나 한번쯤 지금껏 알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무척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져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라는 물음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심리학 전문가인 서광 스님(사진)이 현실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나를 치유하는 마음기행〉을 출간했다. 마음치유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에만 치중하거나 실천법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지만, 책은 진아(眞我)를 만나 마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시킨 워크북 형태로 구성됐다.

> 자기계발에 시간투자하듯 행복에도 공들여야
> 올바른 지혜 나오려면 진실로 사유할 토대 필요
> 불안 등 극복하고 사랑·연민 길러주는 안내서

서광 스님은 "불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올바른 지혜가 나오려면 진실로 사유할 수 있는 자료와 토대가 필요하다"며 "책은 '사유의 소재'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뤄지는 말과 행동들에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음 공부는 현대인에게 필수요소가 됐다.

서광 스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종교심리학 석사와 자아초월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 보스톤 서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 원장,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 대학에서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 자아초월심리치료 관련, 워크숍,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님은 이미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30송〉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등의 저서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다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왔다. 스님은 이번 책에서도 '유식30송'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다.

서광 스님은 "'유식30송'은 심리치유적으로 해석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치유적 접근이 '유식30송'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학이 대중에게 유행하던 시대에는 사유가 철학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문학이 주류였던 시대에는 사유가 문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며 "현대에는 사유가 영성이나 화두, 치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본다"고 설명했다.

마음의 진실을 궁구하는 유식(唯識)은 반야사상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유식 30송'은 유식의 요지를 5언4구의 30게송으로 정리한 것으로 불교심리학, 불교심리치료의 정수를 담고 있다.

책은 본래 서광 스님이 집단그룹상담에서 사람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만든 교재용 책이었지만,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쉽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3부로 나눠져, 1부에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의 목적,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것, 주요기법, 프로그램의 구성 등의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유식30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개념과 유식 치유의 과정과 기법을 5단계로 풀어놨다. 이어 3부에는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의 실습과정을 총 8회기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책은 시시때때로 '가짜인 나'가 빚는 고통과 불행을 예방하고, 불안 우울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을 극복해 사랑 연민 친절 공감 등의 마음으로 길러주는 안내서이다.

나를 치유하는 마음기행 | 서광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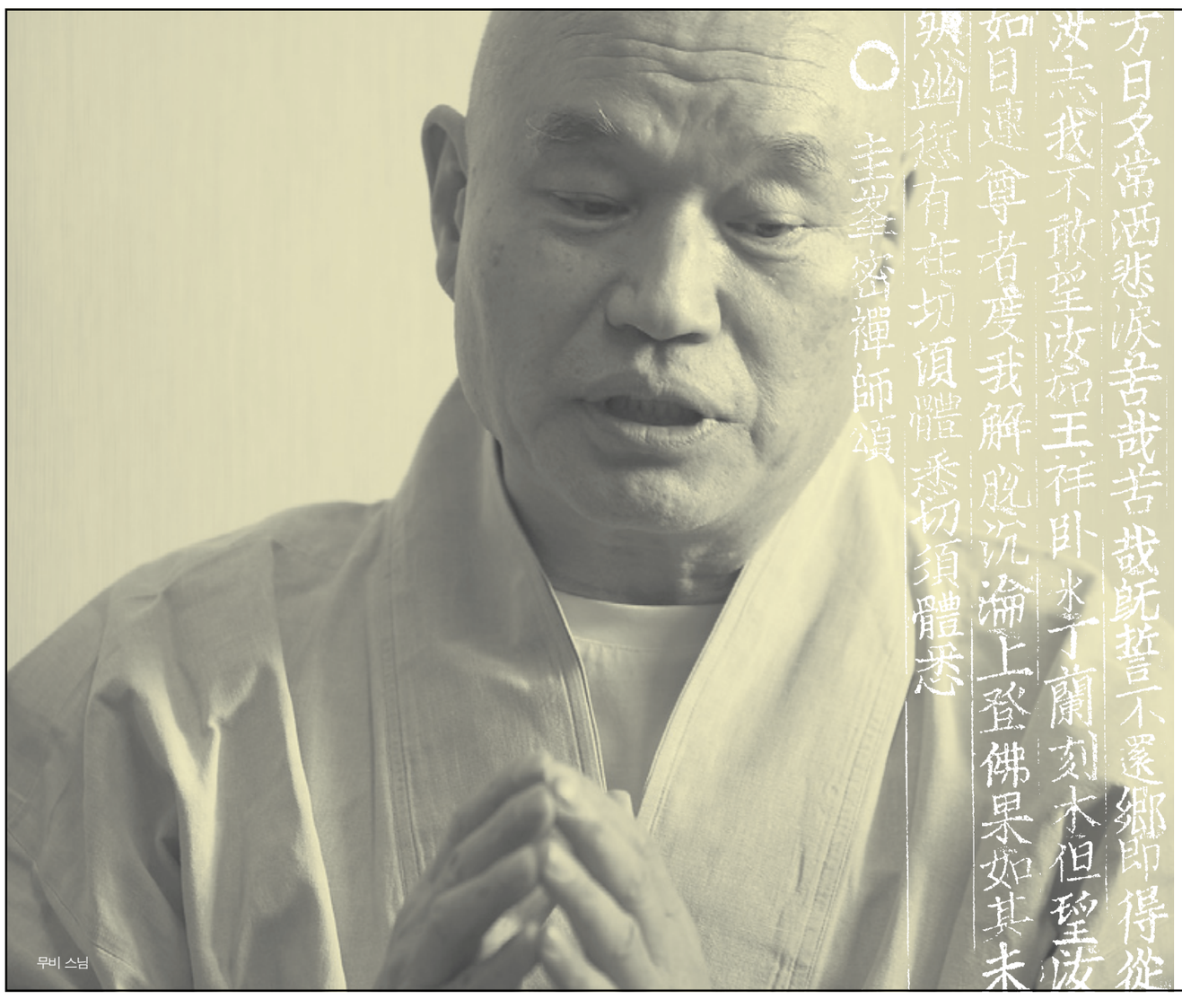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5~10/1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5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6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7	대념처경	묘원	행복한숲
8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	컬처북스
9	스님의 흰죽 가게	스제천	모벤스
10	공겁인 (한국의 유마 백봉거사와 제자들)	최운초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KBS 1TV 특집 4부작 다큐멘터리 '다르마'의 1편 '붓다의 유언'에서의 장면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거든 '다르마'를 보아라

KBS 1TV 특집 4부작 다큐 '다르마' 방영

대장경에는 행복 비결 담겨
대장경 메세지 현대적 해석
1년여 8억원을 투입 · 제작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려대장경에는 인류의 마음을 흔들고 고뇌하게 했던 간절한 질문과 대답이 담겨져 있다.

2011년은 고려초조대장경 1000년의 해다.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세계문화유산' 대장경이지만 정작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KBS 1TV가 고려시대 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다르마'를 선보였다.

'다르마(Dharma)'는 진리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다. 이 다큐멘터리는 팔만대장경이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1년 여 간의 제작 기간에 편당 2억원씩 총 8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4부작 '다르마'는 내용과 형식에서 기존의 한국표 대형 다큐멘터리들과 차별성을 시도하며 대장경을 재발견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최근영 PD는 "'다르마'를 통해 대장경의 가치를 문화재와 역사성으로만 조명하던 기존의 협소한 시각에서 탈피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콘텐츠의 가치를 재발견하려 했다"며 "1000년 전 경판에 새겨진 내용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골칫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지니고 있음을 천명하는 다큐멘터리"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대장경에 새겨진 지혜와 가치를 우리나라의 것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기존 다큐멘터리와 다른 독특한 형식과 과감한 포맷을 사용했다.

대장경의 역사를 개괄하는 1편을 제외하고 2 · 3 · 4 편은 지구 반대편 두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전개해 두 곳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독특한 형식을 시도했다.

KBS 1TV는 10월 15~16일 토 · 일요일밤 1 · 2편 '붓다의 유언'과 '치유'를 방영했다. 1편 '붓다의 유언'에서는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의 3D입체 대장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세계인들이 붓다의 최후를 기록한 고려대장경을 릴레이로 읽어가는 독특한 형식으로 대장경의 역사를 살폈다. 2편 '치유'에서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최신 의학병원과 영국 런던 외곽의 불교 사원을 넘나들며 '알아차림'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0월 22일 토요일 밤8시에 방영될 예정인 3편 '환생과 빅뱅'에서는 빅뱅실험이 벌어지는 유럽핵물리학 연구소와 4100미터 고원의 티베트 불교수행처를 교차시켜 보여주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3일 일요일 밤 8시에 방영되는 4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서는 오스트리아 베네딕트 수도원과 지리산 쌍계사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며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다큐멘터리 음악은 영화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수상하고 '리틀붓다' '바벨' 등 헐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맡았다. 그의 동양과 서양, 실험적인 컨템포러리와 클래식을 오가는 그의 음악세계가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진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다시보기는 www.kbs.co.kr/1tv/sisa/dharma/vod/index.htm 로 가면 볼 수 있다. 또는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다르마'를 검색한 뒤 '다시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화꽃 향기 맡으며 가을 축제를

조계사, 11월 10일까지 국화향기 나눔전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해 여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된다.

조계사(주지 토진)는 10월 21일~11월 10일 조계사 경내에서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을 개최하고 모연음악회, 국화전시, 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조계사는 21일 오후 6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꽃이되어요' 모연음악회를 열어 국화향기 나눔전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22일 오후 2시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교리경진대회 - 범종을 울려라!'가 열린다. 조계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개인전,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는 1~10위까지 상금과 상품이 준비됐다.

25일 오후 2시 조계사 경내에서 실버 예술제가 열린다. 조계사에서 운영 지원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그동안 각 기관에서 갈고 닦은 풍물, 포크댄스, 탭댄스 등을 발표해 지역주민과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국화 영산재가 시연된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하늘에 감사의 예를 올리는 제천의식을 거행한 유래에 따라 괘불을 설치하고 영산재가 봉행될 예정이다.

행사명	일 시	장 소
'꽃이되어요' 모연음악회	10월 21일(금) 오후 6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
교리경진대회 – 범종을 울려라!	10월 22일(토) 오후 2시	대웅전 앞마당
실버예술제	10월 25일(화) 오후 2시	조계사 경내
어린이 미술대회 – '나는 화가다'	10월 30일(일) 오전 10시	조계사 경내

30일 오전 10시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내에 전시된 국화꽃을 소재로 한 미술대회가 열린다.

이와 더불어 조계사는 '나비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남 함평군과 도 · 농간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 차원의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기간동안 전남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국화 · 분재를 전시 · 판매하며 농 ·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조계사를 찾는 내 · 외 관광객 및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조계사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젊은세대, 노인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도 · 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간 소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732-2183

이나은 기자

염소 한 마리면 한 소녀 학교 보낸다

삼소회, 에티오피아 여성 위한 사진전 열어



여성 수도자 모임 '삼소회'는 지난 4월 에티오피아 현지를 방문했다. 사진작가인 김옥미 젤아나 수녀가 찍은 에티오피아 소녀의 모습

한국 여성 성직자 모임인 삼소회가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소녀 · 여성 돕기의 일환으로 사진전을 개최했다.

삼소회는 10월 5~11일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염소 한 마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에티오피아 아이들과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 37점을 전시했다.

에티오피아는 6 · 25 한국전쟁 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나라이다. 하지만 현재 에티오피아는 영아 사망률 세계 1위 인구 40%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 수준은 매우 낮아 15살도 채 안된 소녀들이 준비되지 않은 출산과 성적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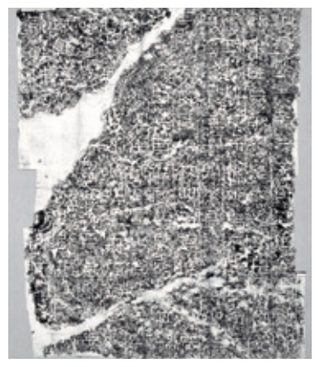
이에 삼소회는 한 마리당 2만원하는 염소를 소녀의 가정에 주고 소녀를 학교에 보내는 기금마련 운동을 하고자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에는 삼소회가 올해 4월 직접 에티오피아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마련됐다.

삼소회는 전시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여성 돕기 기금 모연을 진행했으며 지속적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성금계좌는 우리은행: 1006-001-362259(예금주: 한국여성수도자 모임 삼소회)

이나은 기자

광개토대왕비를 만나자

국립중앙박물관서 다음달까지 '한국고대문자전'



광개토대왕비 원석 탁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1월 27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을 통해 국보급 문자자료를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연가7년명 금동불상(국보 제119호)' '진솔선예백장 인장(보물 제560호)'과 같이 이미 잘 알려진 국보급 문자자료는 물론, 국내 최초로 '광개토대왕비 원석탁본'과 정창원 문서 등을 공개한다. 고대인의 생활을 조망할 수 있는 본격적 문자자료 전시로서 총 전시품 500여점에 달하는 이번 전시는 국내 문자자료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문자자료의 수용과 그 발전 과정을 통치, 생활, 사상의 면에서 조명했다.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역사민속박물관 소장 광개토대왕비 원석 탁본이다.

원석 탁본이란 석회가 발라지기 이전에 뜬 탁본으로 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1차 자료인 광개토대왕비의 원모습을 전해주는 일급자료이다. 지금까지 10여 종의 원석탁본이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원석 탁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02)2077-9000

이나은 기자

Hanmaum Choir Festival

이 세상을 다 집어서
이 생각을 다 굴려서
내 이 근본에다가 하나로 뭉친다면
이 세상을 다 들이고 내고 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

대행 큰스님 禪法歌 '원통속을 벗어나려면' 中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 (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묵,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

그들은 아직도 눈 한 번 깜박이지 않았다




영산전

⑰ 영천 거조암(居祖庵)

산을 쓸고 내려온 바람이 돌담의 코스모스를 흔든다. 노랗게 익은 감들이 햇살에 빛나고, 양지 바른 쪽의 단풍은 붉은 물이 올랐다. 드문드문 드나들던 인적도 끊어진 마당에는 낙엽이 이리저리 구르고, 조용한 석탑 하나가 긴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 거조암이다.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가 시작됐던 곳이다.

거조암은 은해사의 산내 암자로 신라 효성왕 2년(738) 원참 스님이 창건했다. 13년 뒤에 혜림(慧林) 스님과 법화 스님이 영산전을 짓고 오백나한(五百羅漢)을 모셨다. 영산전은 몇 안 되는 고려시대 건물로 국보(제14호)다.

영산전이다. 은은한 불빛 속에서 오백나한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그 옛날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눈빛, 그 눈빛들 사이를 걸으면 부처님의 설법을 모으던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승천선존자의 눈빛을 본다. 너무도 또렷한 영혼과 시간. 부처님을 기억하는 영혼과 그 영혼이 간직한 아득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자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지켜왔던 부처님의 설법. 잊지 않고 전해준 그들의 눈빛 속에 그 날이 보인다.

오백나한 중엔 자신과 닮은 얼굴이 하나 쯤 꼭 있다고 한다. 한 불자가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의 나한과 눈을 맞추며 절을 올린다. 자신과 닮은 얼굴을 만났을까.

다시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해는 기울어 서산에 떨어지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낙엽 위로 낙엽이 또 떨어진다. 가을이 깊어간다. 눈이라도 한 번 깜빡거려야 '세월' 일 텐데 그들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 얼마나 짧은 세월인지 거조암 영산전에 가면 알 수 있다. 그토록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도 고단하다. 특히나 고단한 이 가을, 나한의 눈빛이라도 한 번 보고 올 일이다. 나와 닮은 나한을 만나서 그 날의 설법을 들어볼 일이며,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일이다. 그들은 아직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나한(羅漢) – 아라한(阿羅漢)의 약칭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뒤 다섯 사람의 수행자에게 설법을 했다는 초전법륜(初轉法輪) 이후 다섯 사람이 모두 정각을 이루게 됨으로써 부처님을 포함한 여섯 아라한이 생겼다. 여래10호 중 하나인 아라한의 의미는 존경할 가치가 있는 사람, 수행을 완성한 사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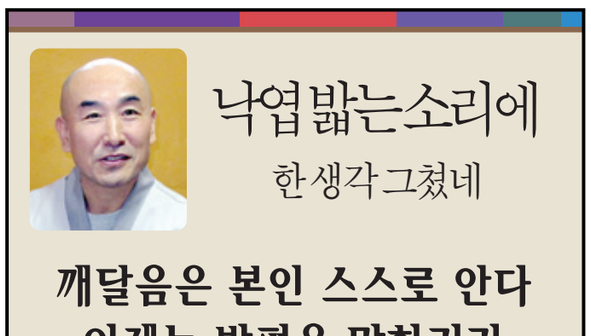
오백나한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오분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직후 왕사성에서 열린 제일결집 때 500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결집했다고 되어있다. 또한 오백나한이란 부처님 당시 500의 제자나 부처님 열반 후 결집한 500의 나한과 비구 등을 칭하는데 두루 쓰이고 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낙엽밟는소리에
한생각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남양后人 홍길동 靈駕 行孝 伏爲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마지막회〉

중국 · 한국 · 일본의 선원(禪院)-같은 점과 다른 점

방편을 달리하니 三國이 三色이네

선(禪)의 본고장이자 발상지는 중국이다. 5가(家) 7종(宗)의 다양한 선풍을 비롯하여, 〈임제록〉 · 〈벽암록〉 · 〈무문관〉 등 유명한 선어록과, 그리고 '무(無)' '간시궐' '마삼근' 등 오늘날 우리가 참구하고 있는 화두도 모두가 중국에서 형성된 것이다. 선의 뿌리는 중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근현대 중국불교는 아쉽게도 신해혁명과 문화혁명(1966~1976) 등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 고풍 나는 가람은 홍위병들에 의해 90%가 파괴되고 지금은 200년 된 당우(堂宇)도 보기가 쉽지 않다. 사찰은 모두 그들이 점령하여 공장이나 제재소, 혹은 돼지 축사(畜舍) 등으로 사용했고, 스님들은 강제로 환속 당하거나 절에서 쫓겨났다.

문화혁명 기간 불교는 무위도식하는 무산계급(無產階級), 부르주아 계급으로 규정되어 유교와 함께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 공자의 상(像)이 모셔져 있는 사당은 허물어지고 달마 · 육조혜능 · 마조 · 임제 등 유명한 선승들이 법을 폈던 사찰도 여지없이 파괴됐다. 폐허, 그것이었다. 명청(明淸) 때 당우가 남아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세납 70~80된 몇몇 방장을 제외하면 법랍 30년 이상 된 스님도 드물다. 중국 사찰의 방장 나이가 평균 40대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예로 간화선의 거장 대혜종고가 법을 폈던 항주 경산사(徑山寺) 같은 곳은 남송 당시 5산 가운데 1위로서, 1500명이나 넘는 납자가 수행했던 중국 최대의 총림이었다. 서호(西湖) 옆에 있는 정자사(淨慈寺)도 5산 총림 가운데 4위로서 법안종 도량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90%가 파괴되어 경작지가 되었다. 최근에 다시 콘크리트로 크게 급조하고 있다. 또 5산의 2위였던 영은사도 현존 건물은 대부분 근래 20~30년 사이에 새로 지은 것이다. 다행히 묵조선의 도량 천동사와 영파 아육왕사는 청대 당우가 남아 있다.

중국불교는 짧게는 문혁을 전후(前後)한 20여 년 동안, 길게는 신해혁명 이후 70여 년 동안 사상 유례 없는 법난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종파를 따질 것 없이 문화와 전통은 물론 수행법도 거의 단절되었다.

최근 중국은 세계제패와 관광수입을 위하여 다시 사찰을 복원하고 있는데, 주로 콘크리트로 짓고 있다. 대신 건물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크다. 사찰관리도 모두 당(黨)에서 관리, 통제하고 있는데, 근래 하나 둘 씩 단순히 관리권만 스님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몇 몇 고승들이 전통을 재건하고 있어서 미래를 기대해 볼만하다. 선종사원에 한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선원총림의 가람 : 총림의 가람은 7당가람((七堂伽藍) 구조이다. 남송 때의 정형으로서, 법당(설법당) · 불전(佛殿, 대웅전) · 고원(庫院, 부엌) · 승당(僧堂, 禪堂, 좌선당) · 욕실(浴室) · 동사(東司, 화장실), 산문(山門, 정문. 三門이라고도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전을 중심으로 앞에는 산문이 있고 뒤에는 법당, 좌측에는 승당, 우측에는 고원이 있다. 승당 밑에는 동사, 고원 밑에는 욕실, 그리고 법당 위에는 방장(주지실)이 있고 그 밖에 좌우측으로 여러 채의 요사를 배치한다. 현재 7당가람 구조에 맞는 곳은 (필자가 본 곳에 한함) 일본 조동종 영평사이고, 그 밖에 규모가 큰 일본 선종사원은 대부분 7당구조이다. 중국은 천동사가 이 구조이고, 우리나라는 무관하다. 다만 회암사 옛터가 7당 구조이다.

승당(僧堂; 禪堂, 좌선당) : 승당 내부는 가운데가 복도이고 사방 벽 쪽은 마루(즉 長連床)로 되어 있다. 마루에서 취침, 좌선, 공양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 영파 천동사, 아육왕사의 선당 내부의 구조와 형식이 당송시대의 모습으로서 청규의 설명과 일치한다. 백림선사, 임제선사, 오대산의 현통사, 벽산사도 그와 같다고 하나 사진에서는

중국, 문혁 이후 수행법도 단절
일본 대규모 선종 사원 7당 구조
중국은 오래전 발우공양 사라져

좀 차이가 있었다. 약 80%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영평사의 경우는 현재 90% 이상이 남아 있는데, 과찬한다면 당송시대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200명 정도가 여기서 좌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온돌 문화의 영향 탓인지 한 곳도 없다. 다만 지리산 칠불암 아자방이 형식면에서 같다. 아자(亞字) 중앙은 복도이고 단(單) 즉 벽쪽 높은 곳은 취침, 참선하는 곳이다.

승형문수상(僧形文殊像) : 선당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상이나 승형문수상(머리 깎은 사문형)을 모시게 되어 있다(간혹은 달마상, 2조혜가상을 모시기도 함). 지혜가 있어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수상을 성상(聖像), 성승상(聖僧像)이라고 하는데, 중국 천동사와 아육왕사 그리고 일본 영평사, 임제종 향악사 등에는 모두 승형문수상을 모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다. 최근에 지은 선원은 불상을 모신 곳도 있다.

발우공양 : 청규에는 4개의 발우를 가지고 승당(선당)이나 중료(衆寮, 대중방)에서 공양하도록 되어 있다. 당대에는 승당, 송대에는 중료에서 공양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통대로 발우공양을 하고 있으나, 뜻밖에도 중국은 발우공양이 사라진지 오래다. 주발(周鉢) 1개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재당(齋堂, 식당)에서 공양한다. 대만도 같다. 언제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근대 100년 사이가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이다.

화두(공안) : 공안은 조사선 시대의 용어이고, 화두는 간화선의 용어이다. 지금 중국에는 '무' '간시궐' '마삼근' 등 전통적인 화두는 사라지고, '염불자수(念佛者誰,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각 선원마다 선당 입구에 '조고화두 염불자수(照顧話頭, 念佛者誰)' 가 붙어 있다. 명대 이후 선과 정토가 손을 잡은 영향인데, '염불자수' 로 통일된 것은 청말의 최고의 고승인 허운화상의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뭣고' 이다. 일본의 경우 영평사는 묵조선이므로 화두를 참구하지 않는다. 임제종은 '화두' 라는 말보다는 '공안' 이라는 말을 쓴다. 〈벽암록〉 100칙과 〈무문관〉 48칙, 그리고 〈갈등집〉과 〈임제록〉 등에서 뽑아서 약 200여 측 이상의 공안을 참구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모두 참구하고 있다.

상당법어, 조참(朝參), 만참(晩參), 소참(小參) : 방장이나 조실이 법상에 올라가서 행하는 법어를 상당법어라고 하는데, 당대에는 5일마다 한 번씩 있었다. 한 달에 6회(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 있었는데, 그것을 '5참상당(五參上堂)' 이라고 한다. 송대에는 15일마다 한 번씩 있었다. 조참은 아침법문이고, 만참(晩參)은 저녁법문이며, 소참(小參)은 필요에 따라 행하는 수시법문인데, 현재 중국 선종사원에는 송대의 회수도 지키는 곳도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송대 방법을 거의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실이나 방장이 있는 선원에 한해서 결제, 해제 때만 상당법문을 한다. 그리고 조참, 만참, 소참을 하는 곳은 없다.

입실(入室), 독참(獨參) : 입실, 독참은 개인지도, 개인 상담이다. 자신의 참구한 공안이나 화두를 가지고 방장실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점검 및 지도 받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국은 잘 알 수 없으나 단절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일본은 청규대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독참이



간화선의 거장 대혜종고가 법을 폈던 항주 경산사

한국은 주로 무(無)자화두 참구
예불은 한국만 저녁공양 후 실시
일본은 청규따라 입실 · 독참 준수

없어졌다. 상당법어 등 법문과 독참은 좌선과 함께 성불(成佛) 작조(作祖) 중요한 시스템이다. 속히 복원해야 한다.

제창(提唱) : 조사어록이나 고칙, 공안을 제기(提起), 거량, 강독하는 것임. 중국은 임제선사(臨濟禪寺)는 임제록을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당송시대처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책은 금물이라고 하여 경전은 물론 조사어록도 강의, 제창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으로서 조사어록, 고칙, 공안은 제창해야 한다.

기상시간 : 청규에는 5경(更)종이 울리면 일어난다고 하여 4시 기상이다. 지금 중국은 4시이고, 일본 영평사도 여름엔 4시, 겨울엔 4시 30분이다. 임제종은 3시 30분임. 우리나라는 3시 기상.

저녁예불 : 예불은 저녁 공양 전에 한다. 청규에는 포시(哺時)에 만과(晩課, 저녁예불)한다. 지금 중국은 오후 4시 혹은 4시30으로 거의 같음. 일본도 같음. 한국만 저녁 공양 후에 예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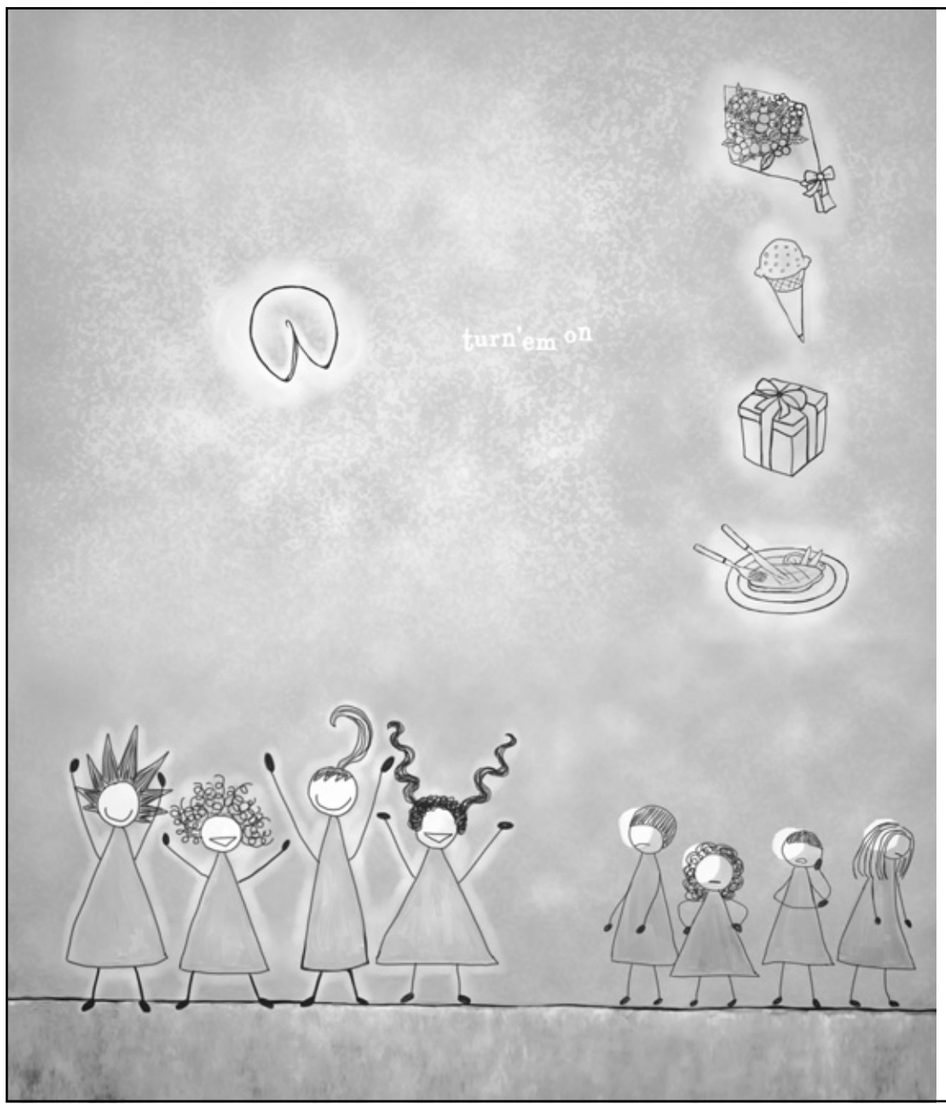
좌선 회수와 시간 : 당대(唐代)에는 입실(즉 독참, 개인 지도), 청익(추가 문의)만 규정하고, 좌선회수와 앉아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 여부에 맡겼다(除入室請益, 任學者倦怠, 或上或下, 不拘常準). 남송 때부터 이른바 '사시좌선(四時坐禪)' 이라고 하여 하루 4차례 좌선했다. 즉 후야좌선(後夜坐禪, 새벽 4시40분 경부터 공양(6시) 직전까지), 조신좌선(早晨坐禪, 오전 9시경부터 점심공양 직전까지), 포시좌선(哺時坐禪, 포시는 辛時로서 오후 3시에서 5시를 가리키지만, 실제 포시좌선은 오후 2시경부터 4시 예불 전까지임), 황혼좌선(黃昏坐禪, 저녁 좌선으로서 '초야좌선' 이라고도 함. 대략 저녁 7시부터 8시 40분 경까지). 1회 좌선 시간은 일주향(一炷香) 1개 타는 시간으로서 약 40분임. 상당법어, 독참, 보청(울력), 행사 등이 있는 날에는 좌선을 생략한다. 따라서 실제 하루 좌선 시간은 6시간을 넘지 않는다.

선원에서 쓰는 일상용어와 소임 명칭 : 현재 중국 선종사원에서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당송 시대 때 청규의 용어는 약 50%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원대와 명대 이후의 명칭이다. 일본 임제종과 조동종은 당송시대 명칭을 70% 이상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용상방, 장군 죽비, 용맹정진, 간병, 천수물, 방부, 입방, 큰방 등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로서 청규에는 없는 말이다.

원래 용상방은 집사단(執事單), 장군죽비는 경책(警策), 7일 용맹정진은 선칠(禪七) 혹은 타선칠(打禪七), 간병은 열반당주(主) 혹은 연수당주(延壽堂主), 천수물은 절수(折水), 천수통은 절수통(折水桶)이라 한다, 방부는 괘탑(掛塔), 큰방은 중료(衆寮), 다각은 다두(茶頭), 해우소(화장실)는 동사(東司), 객승(客僧)은 잠도(暫倒, 잠시 온 스님), 객실(客室)은 단과료(旦過寮, 하루 묵고 가는 집), 선방은 선당(禪堂), 좌선당이고, 울력은 보청(普請), 작무(作務)라 하고, 새벽예불은 조과(朝課)라 하고, 취침은 개침(開枕, 잘 때 벼개함을 열고 벼개를 꺼내기 때문임)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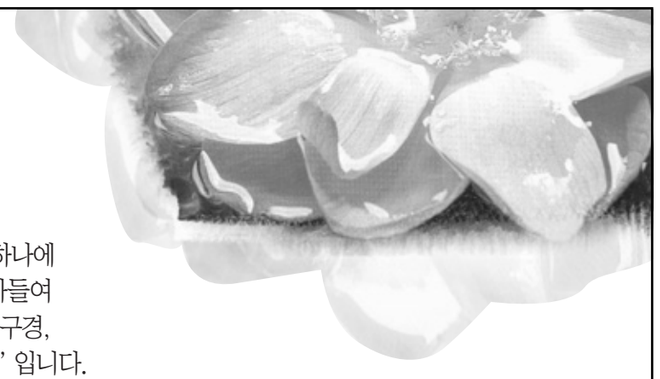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누구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법당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어느 날 오후, 환자복을 입은 초로의 거사님이 법당 문 밖에서 계속 머뭇거렸다. 얼른 법당 밖으로 나갔다. "거사님, 들어오세요." 두 손을 내밀며 사양하는 거사님의 이유는 이랬다. "병실에서 내려오면서 복전함에 넣을 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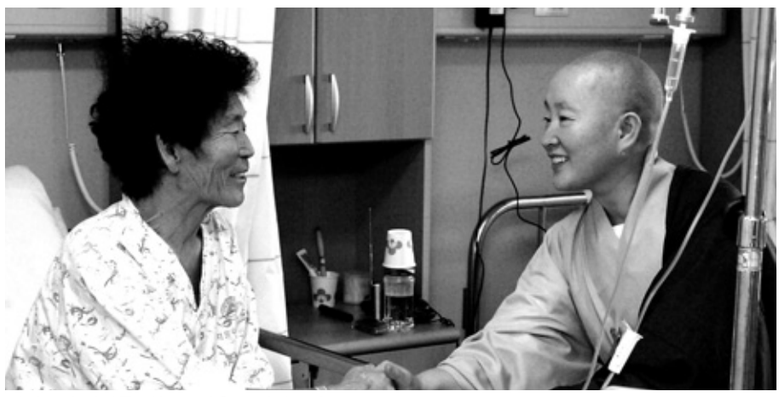
곧바로 손을 저어하며 말씀드렸다. "치료받으시고 수술하실 때 환자분들께 힘이 되라고 있는 법당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세요." 몇 번을 권해도 거사님의 대답이 한결같다. "부처님 앞에 그렇게 정성 없이 나아가면 부끄럽습니다, 스님."

보다 못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까지 거든다. "그냥 들어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세요. 수술 앞두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법당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사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입원하고도 병원 안에 법당이 있는 줄 모르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부처님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병실 올라가서 준비해 갖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없이 부처님께 인사드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환자분이 민망하지 않게 같이 웃으면서 말씀드렸다. "우와, 거사님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병원 법당이라서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불전 가지고 꼭 다시 오세요. 법당 문은 24시간 열어 놓았으니 아무 때나 거사님 오시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몸 힘드시면 그냥 앉아서 부처님께 인사만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가끔씩 연세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법당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거나 법당에 들어서면서도 편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물어보면 늘 듣는 대답이다. "급하게 오느라 불전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안에 법당이 있는 줄 모르고 왔다가 우연히 들려서 불전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 계신 곳 문턱이 너무 높았나,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는 메시지 보드라도 붙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지홍 스님의 모습.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불교의 장점이다.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이나 부처님 재세시의 카스트제도를 부정한 승가 구성을 보더라도 불교적 평등주의가 어떠한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종교 구성원들의 무차별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 어느 종교에서도 종교상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하지 않는다. 불교 경전과 율장의 기록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나 사회 안에서 제한받고 있는 개인의 차별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르겠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비뚤어지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비뚤어져 있다면 충격이 클 것이다. 식사 도중에 음식물이 볼과 잇몸 사이에 고이거나 흘러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안면신경마비가' 가 온 것이다.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흰자위가 보이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으며 한쪽 볼의 감각이 둔해지고 입에 바람을 넣어도 새어 나오고 휘파람이 불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 생길 수 있으나 20~50세에 많다.

한의학에서는 '와사풍(喎斜風)' 이라고 하여 '풍(風)' 의 범주에 넣는다. 중풍(中風)의 여러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으로 얼굴에만 풍을 맞은 병이다. 풍은 갑작스레 발작하고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며칠 전부터 마비된 쪽의 귓뒤에 있는 튀어나온 뼈 주위로 통증을 느끼는 등 약간의 전구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바로 나타난다. 와사풍은 중풍으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인은 주로 찬 기운이다. 찬바람을 맞거나 창문이나 방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든 경우에 잘 생기므로 겨울에 많지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적지 않다. 여름철에도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자거나 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거나, 캠핑 등 야외에 나가 찬 곳에서 잔 뒤에 생길 수 있다. 물론 질병을 앓은 뒤나 과로 등으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잘 생긴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면역기능저하, 감기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이염 등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다. 그밖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도 큰 원인이 된다.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에 열이 많이 생겼거나 오래도록 기분 나쁜 것이 지속된 경우 등에서 유발된다.

음식 문제로도 생길 수 있다. 얼굴에 생기는 병은 거의 위장과 관련이 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기가 돌아다니는 통로를 '경락(經絡)' 이라고 하는데, 주요한 것이 12개이다. 그 중에 얼굴에 많이 지나가는 경락이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으로 위장의 경락이다. 그러므로 위장 경락의 기가 약한 상태에서 과식하거나 찬 기운을 접하게 되면 와사풍이 잘 생긴다.

안면마비의 치료는 침과 전기침, 적외선 치료와 함께 한약을 복용한다. 얼굴을 따뜻하게 하고 찬바람이 닿지 않도록 하며 하루에 2~3회 정도 더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한 뒤에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마비되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눈에 안대를 해 주어야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결막염과 외상을 예방할 수 있다.



안면마비는 일반적으로 발병 후 48시간 내에 증세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가 평균 7~10일째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6~8주 사이에 완전히 회복된다. 발병한 지 2~3일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효과적인 치료가 늦었거나 초기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 예후가 좋지 못하다. 환자의 20~30%에서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가 크고 마비 정도가 심한 경우, 미각과 청각 이상이 동반된 경우, 귀 뒤나 얼굴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연세가 많은 경우, 임신 중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늦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다.

후유증으로는 웃거나 말할 때 얼굴이 비뚤어지고, 얼굴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덜 감기는 상태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밖에도 눈과 입 주변의 떨림, 눈물 감소, 미각장애, 청각장애, 청각과민, 이명 등의 후유증이 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비정상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악어의 눈물 증후군' 이나, 어떤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 엉뚱한 근육이 함께 움직여지는 증상 등이 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4〉

내일은 그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어린 시절 모친을 따라 사찰에 가 법당 내부 뒷면에 그림으로 그려진 동화이야기를 자주 보았다. 한참 자란 후에 그 내용이 인도의 전설적인 한고조(寒苦鳥)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종강 날, 학생들에게 이 새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한다.

인도 대설산, 히말라야산맥에 예쁜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새가 사는 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고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낮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이산 저산을 날아다니며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환락에 빠져 지냈다. 그런데 주인공 새는 밤만 되면 잠잘 쉼터(둥지)가 없었다. 결국 친구 집을 기웃거리며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애걸하지만 낮에 함께 놀던 친구들은 냉정히 거절한다. 간혹 하룻밤 재워주는 친구도 있지만 달가워하지 않았다.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한 밤에는 추위에 오돌 오돌 떨면서 맹세한다. "오늘 날만 새면 내일은 친구들과 놀지 않고 반드시 내 집을 지어야지." 그러다 정작 날이 밝으면, 그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노는 일에 정신

즐거움만 탐닉해선 도 못깨우쳐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시간
현재의 충실함이 밝은 미래 연다

팔려 지냈다. 또 밤만 되면 밤새도록 떨면서 '내일은 꼭 내 둥지를 지어야지' 라고 맹세를 거듭하다 어느 날 밤, 결국 새는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즐거움에만 탐닉해 게을러서도를 깨치지 못하고 밥만 축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간 수행자를 한고조에 비유한 전설이야기다.

옛날 스님들은 황혼 무렵이 되면,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또 하루해가 저무는구나"라고 한숨 쉬며 다리 뻗고 울었다고 하는데, 나는 해만 저물면 다리 뻗고 쉬고 있다. 예전에는 옛 스승들의 경책 문구를 보면 가슴 한켠에 휑하니 지나는 바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무디어 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재밌게 보았던 그림을 어른이 된 지금, 수행의 끈이 늦추어질 때마다 한고조를 떠올린다.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다. 공덕이든 수행이든 스승이 대신해줄 수 없음이요, 도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의 경책이 중요하다.

내일은 그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다면 적어도 한고조와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하루살이는 3년 만에 알속에 있다가 깨어나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날개짓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미물도 이러할진데 부단한 노력과 정진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요, 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애플사 창립자이자 前 CEO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나는 첨단을 달리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잡스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명상한 명상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살아생전 그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가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다. 오늘에 성실하면, 밝은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장밋빛 미래를 원한다면 바로 현재 충실함이요, 현재에 충실함은 바로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살다보면 꿈이 바뀔 수 있고, 인생관이 바뀔 수 있다.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바뀔 때 바뀌더라도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목표지점은 없다.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인간은 시간이라는 씨줄과 공간이라는 날줄 속에 존재한다. 현재 순간순간 씨줄과 날줄의 긴밀함이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잠시 휴식의 여유, 명상이라는 쉼을 갖자. 현 시간과 공간에서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에 대해 자신을 살펴보자.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니라, 현재 나의 마음가짐을 있는 그대로 관조해보는 일이다. 이 관조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도록 해준다. 이 현재 중시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다. 다음은 '장로비구니게' 에 전하는 비구니 스님의 게송이다.

"짧은 인생, 늙음과 병고가 인생을 갉아 먹고 있구나. 이 몸이 부서지기 전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겠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불교복지사업분야 지원대상 모 집 공 고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에서는 불교복지사업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1. 덕행이 겸비된 스님
2. 종단간부 스님
3. 조직력을 갖춘 간부 불자님
4. 활동력이 있는 재가 불자님
5. 장례 및 상조사업에 관심이 있는 신도

◑ 활동분야
1. 상 장례, 납골, 수목, 자연장, 안치단 관련 및 후불식 상조사업
2. 실버노인 요양 복지시설 건립 및 추진사업
3. 각 사찰 염불 봉사단
4. 장례복지사 (수강지도 후 활동)

◑ 모집기간 : 선착순 지원 충원 시 까지

◑ 지원특전 : 지원자 중 총괄에 선발된 분은, 본 연합회 이사로서 선임자격 부여 함.

◑ 지원방법 : 전화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 또는 e-mail 상담을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열린마음으로 기다립니다.

◑ 연 락 처 : 1588-6528 / 직접상담 011-772-2177

◑ 팩 스 : 02)998-6529

◑ E-mail : nowon1566@hanmail.net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
회장 현오 . 단장 청안 합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알라딘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산된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충장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율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장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불교,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춘양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 특수 교육강좌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이사 택일, 궁합,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배우자 구함
평생도반으로 지내실
여성분 (50-58세)을
원합니다.
010-7473-6886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명리학 음양오행 무료강의

강사 : 성은사 우리법사
일정 : 매주 수요일 14시
장소 : 성은사(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 종점 옆
010-9376-5633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7번출구 3분거리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생각과 감정으로 낭패를
본자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 대 혜 종 고 -

- 대덕사 스님께서 제자를 모집합니다.
  -10대, 20대, 30대: 비구니 스님
- 비구니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꼭오실분한해서 전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삼척 대덕사
  010-9416-7743

삼밀유가연구회

금강선원
- 제령, 퇴마, 영가천도 전문
- 식재, 증익 작법
부산 금정구 구서2동 1023-4
051)517-1080

염불 • 역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011-716-3811

급! 인연 찾음 (그림같은 토굴)

- 임법당, 약사여래부처님 청동해수관음부처님,
- 삼존석불, 3층석탑, 석등 방2 거실 다실 실내화장실
- 황토굴, 창고, 집기류 일체, 주차가능, 전세 3천만원
- (월세 천만원에 10만원) 비구니스님 수행처로 최적
- 넌말 해외 출국으로 급함(장기 임대가능) 몸만 오면됨.
- 노스님 수행하며 해외 포교에 참여할 년령불문 비구니스님, 신심있는 보살님 급히 구함

(영광 불갑사 인근 토굴)
010-9478-1322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6266-4669

60대 기도수행
스님입니다.
빈 산중 사찰 시주나
장기간 맡겨 주실 분.
010-8558-9317
해 공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불사를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과
사무장님, 화주, 시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남
041)835-393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경기 가평
011-774-4099

비구니 행자(출가자) 모집

1. 학력,나이 관계 없음
2. 신체조건 관계 없음
3. 3년 공부 후 주지임명
4. 출가 동시 기도스님 임명
5. 성실히 자기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울산 지장정사
011-858-030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웬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돌맹이를 손에 쥐고 하는 기도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무소 직원(pc가능자)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부산 기장군 일광면
010-3553-0993

신심이 깊으신
60대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 하동
010-3138-4897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미국 LA에서 부전
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비구니 기도스님
및 부전스님
또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거제
010-6815-9878

금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부적 소장하실 분

소승은 시각장애자 68세 심안으로 금달마와 황금용주도 부적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있으면 안됩니다. 스승이 일러드리는데로 소장하시면 만사 평안하실 것입니다. 약간의 보시금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좋은인연이 되어 그 가정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망산 부처바위에서 기도중입니다. 기도에 가피를 바라시는 분 모십니다.
* 조용한 산속에 빈집 빌려 주실 분 찾습니다. 남은 여생 나를 시봉하실 보살님 약간의 후원도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후원계좌 : 농협 302-0007-1645-21 (예금주 장치법)
큰스님 직통 010-9003-7783 / 주문처 011-9957-2660 혜주 보살

한국불교대학 편입생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공동체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종교(불교) 개혁에
뜻 있는 분을 찾습니다
010-6243-3527

빙의 · 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30년 빙의치료 대가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회원모집 - 직접상담

- ▶ 야생화 등산모임 (월1회)
- ▶ 교육상담 및 대안 방안제시
  산만한 자녀, 청소년(초,중,고),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
- ▶ 취업상담 (면접, 서류작성 방법지도)
- ▶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상담
- ▶ 전문 교육상담 교사 상주

성천사 교육관 010-8522-2203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좋은 인연 · 멋진 인생

- ▣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한량무...
- ▣ 불교의식 : 예불, 범패,바라무, 법고...
- ▣ 제반불교의식 집전과 출장지도도 가능합니다.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실 도반을 모십니다.
풍류학인 만법당 월송 합장 010-9314-0950

---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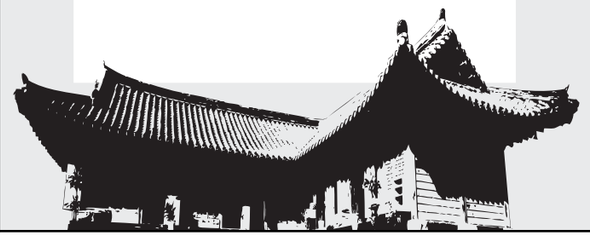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858호 | 불 자 정 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 FAX 02) 737-069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소재
- 평수: 대지 63평
- 법당 11평, 방3개, 현대식 주방 욕실완비, 주차시설 완벽
- 비구니 스님 및 철학하시는분 아주 좋음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55-336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봉덕동
- 2층,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절충

011-322-000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 마산역에서 3분거리
- 시장안
- 전세 500만원 월 16만원
- 시설비 500만원
- 전세 조정가능

010-5042-1003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게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1억 7천만원

011-9807-57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건물: 5층 건물에 1층
- 보증금 2000만원 월 65만원
- 시설비는 만나서 결정

010-8408-028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동
- 대지 98평
- 건물 1층 65평
- 2층 35평, 방7개
- 계단위 도심속 산자락
- 가액: 3억 5천만원

010-2563-5550

도심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60평(3층건물)
- 가액: 5억(은행대출가)
- 양도받을 분의 조건에 맞춤 양도

011-800-0005(주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62번지, 국도 59호선 옆
- 전체 부지 2,640평
- 대지 230평, 건물 57평(1,2층)
- 요사채(주택) 65평
- 가액: 4억, 집옆에 12m 와불

011-810-70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부산외곽)
- 법당 : 20(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급매가)
-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목조)
- 요 사 : 70평
- 부 지 : 실평 200평
- 가 액 : 6억 8천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0평
- 가 액 :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870평
- 목조법당 30평, 요사채 및 사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가액 3억 5천

울산 시내

- 총부지 : 2,600평
- 목재법당 30평(내9포 외5포) 산세 전망최고, 주차장 500평
- 아파트 5만 세대
- 총가액: 1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북한산)
- 법당 20평
- 요사 50평(2동)
- 부지 약 500평
- 동쪽 수락산을 마주보고 있는 영험한 기도도량임
- 가액: 6억 5천만원

기도터(토굴)

- 위치:경기도 양평
-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청정계곡(해발 600m)
- 남향 토지 350평(사용할수 있는 국유림 700평) • 합 1000평
- 현재 농가주택 한 채 있음
- 심야전기 보일러, • 마당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2천

대 력 불 사

031)775-8110 /011-531-5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 종합 터미널 10분거리
- 대지 50평
- 방3, 세놓을 수 있음
- 법당 – 아미타 삼존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1-381-11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3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보시고 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소불65불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 ,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
- 건물 62평
- 법당 30평
- 공양간20평, 방2,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
- 건물 62평
- 법당 30평
- 공양간20평, 방2,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 몸만 오시면 됨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혈동 53-7 (태백산 백단사 입구)
- 평수: 대지 87평, 건평 37평
- 시설: 큰방 2, 거실 1, 분리 주방1 욕실2,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등
- 가액: 1억 6천 2백만원

010-4344-2400

사찰 전원 주택

- 위치 : 고양시 지축동 산 접 조용한 집
- 대지 300평 건물 60평, 2층 신축
- 남향, 주차장 (증축가능),
- 전철3호선 지축역 10분
- 가액: 12억(주인직접)

010-9244-13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낙민지하철역 1분거리
- 대지 68평
- 1층 요사 111.39㎡,
- 2층 법당 84㎡, 3층 삼성각 27.44㎡
- 각종 부속물 있음
- 가액: 4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사찰안내(암자포함)

경치가 수려하고 암자는 고찰터로경허선사 , 천태종 상월조사 공부터임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암자 30평
- 산신각 3평
- 가액: 15억

010-2713-66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삼방시장옆
- 평수 45평, 3층에 2층
- 석가 삼존불, 신중, 영단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7164-713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지구
- 2층건물중 2층 (약 40평)
- 법당 주방 다용도실 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답사 후 상의 절충 가능

010-3693-5543

사 찰 (터) 안 내

- 충남공주시 유구읍 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 : 전 • 면적 : 20,03㎡(2필지)
- 가액 : 7,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 위치
- 도로, 토목, 전기공사 완료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유구IC 5분거리
- 조망 최고임, 암자, 기도처 추천

010-2429-2069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터미널 앞 주공2단지 부근
- 평수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3240-3272

포 교 원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포교원
- 바닷가 전망최고 6층법당 약 7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불상탱화시설인수, 비인수가능)절충

- 부산 진구 가야동 산속토굴 小건물 4동
- 여성발복터 시설비 3천만원(대지는 남의 소유)

017-588-0235 (주)개업자전화사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3천만원

010-8585-138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상주
- 대지 150평
- 건평 35평
- 법당, 요사채, 방4칸
- 가액 1억 5천만원

010-9515-9559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북구 읍내동
- 2층 약 50평, 방3칸, 주방 ,욕실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199-7897
053)311-96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평가량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면담 후 결정

055)277-0146
010-4135-119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자골산 부자골
- 대지 330평, 건물 70평
- 천신기도도량
- 마당 앞 바로 계곡 있음
- 가액: 상담 후 조절

055)573-8802
010-8904-9284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대구시
- 부지 : 110평
- 법당 : 50평
- 요사 : 70평
- 가액 : 8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기차역 걸어 10분)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 70평)
-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영단
- 연등LED 300구 냉, 온풍기(천정형)
- 방2개, 공양간, 남,녀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포함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함(현재 법회중)
- 모든 주방용품(130인분) 인계함

011-212-7709

선 방, 절 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 약 600평
- 임야 980평(절터자리)
- 밭 350평, 집터 600평가량
- 가옥 5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 맑고 신선한 기운터로 인정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 3억5천 (답사후 조정가능)

010-8582-010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 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7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사 찰 안 내

처음 시작 하는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전주시내 최고중심
- 법당1, 방1, 주방, 욕실, 도시가스
- 깔끔하고 편리함 , 뒷문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모든 의식 가능, 주차 충분히 가능
- 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063)246-848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윙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도심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 의창빌라 상가 2층
- 평수 54평, • 방3, 및 주방 화장실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호신불100불
- 비구니스님도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8211-8590
010-8602-3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 평수 800평
- 대웅전 20평, 판넬조립식(도색완료)
- 요사채 20평(블럭 시멘트 제작)
- 산신각 3평(목조, 골기와)
- 주차장 100평, 조경완료
- 가액: 2억 8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전망 좋음
- 대지 : 50평
- 사용평수 : 12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장 넓음
- 가액 : 2억 8천만원

010-4601-78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남구봉덕동남구청4거리부근)
- 5층건물중 3층(40평)
- 3층.법당 삼존불
- 엘리베이트시설, 각층, 화장실,에어컨시설 완비
- 교통편리, 신축건물임
- 보증금1천만원,월6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53)251-5188
010-8181-50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종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절만 분할판매 가능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8천만원대출)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9514-7787

차분한 말투였지만 분명히 위협적이었다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11)



삽화 · 김홍인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설탕과 철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나크는 난다가 다시 끼어들자 맘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설탕뿐만이 아니야. 잠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다는군."

나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덧붙였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설탕이란 게 입에만 달콤하지,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 쉽게 스르르 녹아 사라지고, 기분 나쁘게 끈적이기까지 하지. 그런데도 인간들은 한 번 그 맛을 보면 빠져나오질 못해. 쯧쯧."

그는 안타까움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제야 난다는 자신이 느꼈던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알 거 같았다. 수아나를 찾아 헤맸던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수아킴의 끈적거리던 손과 잠부의 배가 도착했다며 들떠있던 그의 목소리.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난다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괴로운 신음 소리를 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나크는 이유를 아는 지, 모르는 지 또다시 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무니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낮추고 집을 나섰다. 수아나의 부모가 나눴던 대화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태우던 옷이 수아나의 아빠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내 알 수 있었다. 그보다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에게 맞는 옷으로, 무니도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옷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수아킴의 옷을 태우고 있는 것일까.

"흠. 저것도 풍습인가."

하지만 딸의 장례가 있는 날에 아들의 옷을 태우며 우는 부모라니, 이상했다. 무니는 일단 소녀가 발견 되었다는 동굴의 반대편 입구 쪽으로 다시 가보기로 했다. 질퍽거리는 길에 발자국만 한 쌍씩 찍히기 시작했다.

동굴의 입구는 무니가 떨어졌을 때 봤던 그대로 지면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처음에 그곳에서 떨어질 때는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었다. 난다의 말로는 일종의 결계 같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동굴 쪽으로 올려보았다.

"어라? 그냥 닿잖아?"

무니는 생각과 달리 쉽게 어두운 동굴 안쪽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문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칸타카도 없었다. 등잔을 챙겨올 생각도 못했다니! '돌아갈까?' 망설여졌지만, 무니는 이내 마음을 바꾸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동굴 안으로 향했다. 차라리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

"뭐 어때? 그냥 걷는 거잖아!"

그러나 막상 어둠 속에서 걷는 건 그냥 걷는 게 아니었다. 씩씩했던 무니의 발걸음에 조금씩 힘이 빠졌다.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자꾸 자신이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꼭 동굴 벽에 부딪힐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무니는 동굴 안에 자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이 주는 압박 때문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었다. 무니는 발끝을 세우고 조심조심 걸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걱정했던 대로 결국 동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벽은 아니었다. 무니는 감았던 눈을 떴다. 여전한 어둠이었지만, 동굴의 반대편 입구와 가까워진 느낌으로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않았다. 무니는 자신이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손으로 더듬어보았다. 그것은 자루였다. 누군가 커다란 자루들을 동굴의 벽 쪽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같았다. 처음엔 보릿가루인가 싶었지만 자루에 부딪혔을 때의 촉감을 생각해보니 결이 고운 곡물 가루는 아닌 듯했다. 무니는 허리춤에 있던 아루나검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역시 신중하게 자루 하나를 칼로 뚫었다. 그러자 차르르하는 소리를 내며 가루가 쏟아졌다. 무니는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 맛을 봤다.

"설탕이잖아?"

'설탕?' 난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들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었다. 무니는 미간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풀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가까운 곳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무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칸타카?" 무니가 속삭이듯 말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에 대답하듯 다시 풀피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바로 무니 앞까지 다가온 거 같았다.

"거기 칸타카인 거야?"

무니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며 다시 물었다. 풀피리 소리 대신 "아니!"라고 대답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니는 흠칫 놀라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어이쿠. 조심해야하지 않겠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니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말랑말랑한 손이네.' 무니는 생각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지? 잠부어를 하다니.'

"글쎄, 내가 누구일까?"

상대는 마치 무니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대답했다. 그리고 무니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런데 너는 누구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어두웠던 주위가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러게. 나는 누구지?' 무니는 자신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로 몸과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한편, 난다 역시 동굴을 향해 있는 힘껏 뛰어갔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통수를 계속해서 잡아당겼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수아나가 발견됐던 바위가 보였다. 동굴 입구에 있는 것들 중에선 가장 크기가 큰 바위로 어린 여자애가 자기 몸 하나 숨기기에 적당했다. 난다는 종이버터로 등불을 밝히고 수아나가 봤을 장면들을 생각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걷지 않아 자신이 짐작했던 걸 발견했다. 처음에 무니를 뒤쫓아 동굴에 들어섰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설탕 자루였다. 꽤 많은 양이었다. 그때였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난다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수아킴이 서 있었다.

"잠부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조금은."

수아킴이 난다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지금의 그 모습은 수아나의 다정한 오빠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어른 같았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당신이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모두 설탕인가요?"

"응. 그래 그건 설탕이야. 그래서 뭐? 넌 이제 떠나야 하지 않아? 그 여자애는 이미 네 친구하고 함께 있을 텐데."

"그 여자애?"

"사라졌다고 했던 그 소녀 말이야."

"데비?" 난다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이름은 나도 모르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봤으니까. 수아나가 죽어버린 날, 내가 네 친구가 갇혀있는 창고까지 데려다 준 걸. 그 아인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하더군."

"당신이 수아나를 죽인 거죠?"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럴 이유도 없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럼 데첸은?"

"내가 대답을 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

수아킴은 덤덤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이유가 뭐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고 여동생이라구요. 고작 이 설탕 때문인가요?"

"설탕은 달콤하지. 사람들 모두 좋아해. 사람들은 내내 설탕 이야길 했어. 그 맛은 잊혀지지 않거든."

난다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라고 외쳤다.

"데첸 역시 마찬가지였지. 잠부에 다녀온 후론 언제나 그 이야기였어. 달콤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 오직 데첸 자신 만이 맛보았다는 듯. 데첸은 정말 잠부를 좋아했어.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듯."

"그럼 수아나는 왜?"

난다는 수아킴이 하는 말 모두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단지 이유가 듣고 싶을 뿐인데,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수아킴은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이유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네 말대로 데첸과 수아나를 죽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지? 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루는 건 그 누구도 아닌 결국 나일 텐데. 그 대가가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난다는 할 말을 잃은 듯 등불에 일렁거리는 수아킴의 얼굴을 쳐다봤다. 두 사람은 시선을 마주친 채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막상 엄청나고 충격적인 진실에 마주치자, 난다는 오히려 머리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이미 수아킴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변화 없던 수아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 친구는 아마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차분한 말투였지만, 분명히 위협이었다. 난다는 다시 그의 눈을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 어둠 속을 걸어갔다. 무니를 만나고 싶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이렇게 알 수 없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 일단 무니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난다는 동굴 끝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등 뒤로 수아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불자정보 858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자겸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37번 국도변 삼거리
-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진 명당자리
- 대지 257평, 건물(별채까지)45평 텃밭, 마당 넓음
- 가액: 5억 전세 가능
- 같이 하실분 환영, 사주카페, 요양원가능

031)775-2631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 가액: 3억 1천 만원

010-2637-61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 입주 가능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08-4766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웅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왜촌면 팔공산 갓바위 근교
- 청통. 와촌IC에서 8분거리
- 토지: 492평, 정남향 전망최상 (주차 30대) 이상 가능함
- 건물사용: 약 70평 2층법당 1층 요사채
- 삼존불, 칠성, 산신 모셔있음
- 에어컨 4대, 대형냉장고 4대 집기류일체(A급)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가액: 2억 8천만원

010-8554-018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 대지 300평, 전 526평, 임야 186평
- 요사채(45평), 대웅전(18평), 산신각
- 마을과 인접한 독립된 조용한 숲속사찰

010-4629-18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010-8993-3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53평, 4층 건물 3층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4547-4915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 평수 330평. 전망 좋음
- 심야보일러
- 수행정진하기 좋은 곳
- 총가액: 5500만원

010-4144-68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구미 인동
- 평수 55평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500만원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010-9395-1335

임법당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근처, 동대구역
- 버스 등 교통편리, 공항인접
- 대지 37평
- 임법당 삼존불
- 반지하(30평가량), 옥상 증축가능
- 편리한 용도로 사용가능
- 전망있는 도량자리
- 가액: 답사 후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188-708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 대지 48평, 전 100평
- 양명한 남쪽향 뒤에는 산 마을 아님
- 전기, 도로 물 좋은곳 접
- 가액: 3천만원

010-8890-686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내
- 전망좋고 주차공간 넓음
- 임법당, 방4개(온돌1), 공양간, 창고
- 당일 집전가능,
- 대지 120평, 건평 60평
- 대웅전부지 220평
- 가액: 9500만원

010-3543-9490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
- 대지 170평, 건물 40여평
- 창고 약 6평, 방4개, 법당1개, 공양간, 화장실2, 보일러실 별로(연탄, 기름겸용)
- 삼존불, 후불탱화, 108 호신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0-8653-321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 영산강 바로 위
- 법당1, 산신각1, 종각1, 요사채2
- 가액: 3천만원(절충가능)

010-8675-338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 대지, 도지 1년 35만원
- 건물 약 28평, 전체사용
- 건물 개인 등기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위치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가액: 4천만원

010-729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남양주 호평동, 역 인근
- 평수: 3,4층 각 54평
- 가액: 4천만원에 16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516-5563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개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807-570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수
- 3층에 3층 37평(지하철역 입구요지)
- 법당, 방1, 주방, 사무실, 화장실(최고시설)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노블공인중개사

053)795-3666

저렴한 절터

일월산 아래 언덕위
국도가 눈앞에 휴양지
접한 전 560평은 시세보다
저렴한 좋은땅 준비는
완성의 시작이죠
- 가액 : 3800만원

054)682-4949
010-4534-4949

조선조 왕실 여인의 가련한 삶이 아득히 보이는 곳

영조의 친필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 가 있는 청룡사(靑龍寺)



서울 창신동의 청룡사 대웅전 모습. 왕가의 여인들이나 사대부 여인들은 과부가 돼 출가하면 정업원에서 생활했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창신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온 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청룡사가 나온다. 이곳에 옛 정업원 터임을 가리키는 비석인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 가 있다. 영조가 47년(1771) 8월 28일 정업원의 옛터에 누각과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고 친히 내린 글씨이다. 9월 6일에는 왕세손과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비석 세운 일을 직접 아뢰고 이곳에 들렸다. 사찰과 마주한 봉우리에도 올랐는데 정순왕후가 이곳에서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망봉(東望峰)' 이란 글을 써서 바위에 새겼다. 청룡사 한쪽에 세워진 비각 속에 비석은 존재하나, 바위에 새긴 글씨는 일제 때 채석 하느라 없어졌다. 봉우리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바뀌었다.

영조가 친히 이곳을 방문한 것은 정순왕후의 사릉(思陵)이 무너진 것을 고친 다음이다. 영조는 정순왕후 일에 관심이 많았다. 47년(1771) 8월 능의 일부가 무너지자 즉시 보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바로 행해지지 않고 지체되자 책임자 예조 판서 이창수를 파직할 정도였다.

영조는 이곳에 오면서 누가 정순왕후 일에 대해 잘 아는지 물었다. 참판을 지낸 정운유가 추천되었다. 정운유는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후손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낸 세조는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어 한양 안에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왕후는 동대문 밖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살기를 원했다. 세조는 재목을 주어 집을 짓도록 하였다. 홀로 남은 왕후는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양자로 삼아 단종 없는 66년을 지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집과 마주한 봉우리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다보면서 보냈다.

왕후는 자신을 돌봐준 고마움에 죽기 3년 전인 중종 13년(1518) 7월 노비와 재산을 정미수의 아내에게 주었다. 1521년 왕후가 죽자 정미수의 선산에 장사지냈고, 그 후에는 정씨들이 그의 제사를 받들었다고 숙종 24년(1698) 11월 9일 기록은 전하고 있다.


지금은 공원이 된 봉망봉자리

이런 사실로 보아 이곳은 정순왕후가 지냈던 곳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영조는 정업원 옛터라는 글을 내려 비석을 세웠을까? 조선시대 정업원은 어떤 곳일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조선시대 여인들의 출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조선시대 과부의 재가는 금지였다. 왕실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선왕의 중전을 제외하고 후궁들은 궁궐 밖으로 나갔다. 먹고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재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왕실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조용히 지내는 일뿐이었다. 그런 후궁 가운데 출가하는 분들이 있었다. 지체 높았던 그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정업원이었다. 지체 높은 사대부 여인들도 출가하면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조선 초기 정업원은 도성 내에 있었다. 태종 11년(1411) 6월 병조에서 승려들이 남산과 안암 등지에 초막을 짓고 재를 베풀자 모두 철거해 버리자고 주장하였다. 이때 도성 안에서 비구니 사찰이 세워지는 것이 금지됨과 동시에 정업원 이외에는 모두 철거되었다. 정업원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의 비구니 사찰과 위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29년(1447) 6월 왕은 정업원 주지가 자신의 친속이며, 그곳에 있는 여승들은 모두가 사족(士族)으로서 논밭과 노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달라도 한참 달랐을 것 같다.

그런 정업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종 15년(1433) 7월 도성의 풍수를 이야기 할 때 정업원의 위치가 나온다. 정업원에서 동으로 동대문에 이르러 왼편을 막는 난간이 되었고, 또 한 줄기는 동남으로 내려가서 종묘와 창덕궁의 맥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동대문 안 창덕궁 위쪽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업원이 궁장(宮墻) 곁에 있어 범패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기록과, 창덕궁 담 밖의 정업원이란 표현으로 볼 때 창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위치는 연산 9년(1503) 11월 정업원 서쪽 골짜기 북쪽 고개를 따라 소격서(昭格署)로 가는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고, 정업원 동쪽 언덕에서 성수청(星宿廳) 북쪽 고개까지 모두 푯말을 세우고 사람을 금하여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곳으로 지금의 삼청동 쪽이고, 성수청은 무속과 관련된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창덕궁과 창경궁 위쪽으로 짐작된다.

그런 정업원이었지만 조선의 배불정책은 피해갈 수 없었다. 태종 때부터 없애자는 논의는 세종 때까지 이어졌다. 세종 29년(1447) 6월 의정부는 정업원이 궁장(宮墻) 곁에 있어 범패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기록과, 창덕궁 담 밖의 정업원이란 표현으로 볼 때 창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위치는 연산 9년(1503) 11월 정업원 서쪽 골짜기 북쪽 고개를 따라 소격서(昭格署)로 가는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고, 정업원 동쪽 언덕에서 성수청(星宿廳) 북쪽 고개까지 모두 푯말을 세우고 사람을 금하여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곳으로 지금의 삼청동 쪽이고, 성수청은 무속과 관련된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창덕궁과 창경궁 위쪽으로 짐작된다.

동방봉은 영월 있는 동쪽 바라봄서 유래
단종 유배보낸 세조, 정순왕후는 도성에
정순왕후는 영월 보이는 곳에서 기거해
영조, 사능 보수 후 '정업원 옛터' 글 남겨

여승의 특혜가 다른 곳보다 지나쳐 폐단이 있고, 전답의 세금을 사사로이 쓰므로 없애자고 하였다. 이런 견해에 세종은 갑자기 없애면 과부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앞으로 정업원에 있는 사람들이 줄면 보충하지 않고 점점 없어지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정업원의 사세가 기울어지더니 세종 30년 11월 정업원 노비를 상림원(上林園)에 주면서 결국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이곳의 불당에 금으로 만든 인왕불, 미타삼존, 옥불, 불치(佛齒), 불골(佛骨) 등의 법보가 있기 때문에 대궐을 청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여덟 사람을 선발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이렇게 없어진 정업원을 다시 복원한 것은 세조였다. 불심이 남달라 재위기간 동안 불교를 보호하였다. 그는 3년(1457) 9월 정업원을 세우고 노비와 전지 백결을 주어서 여승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후에도 이곳을 방문하여 비단을 내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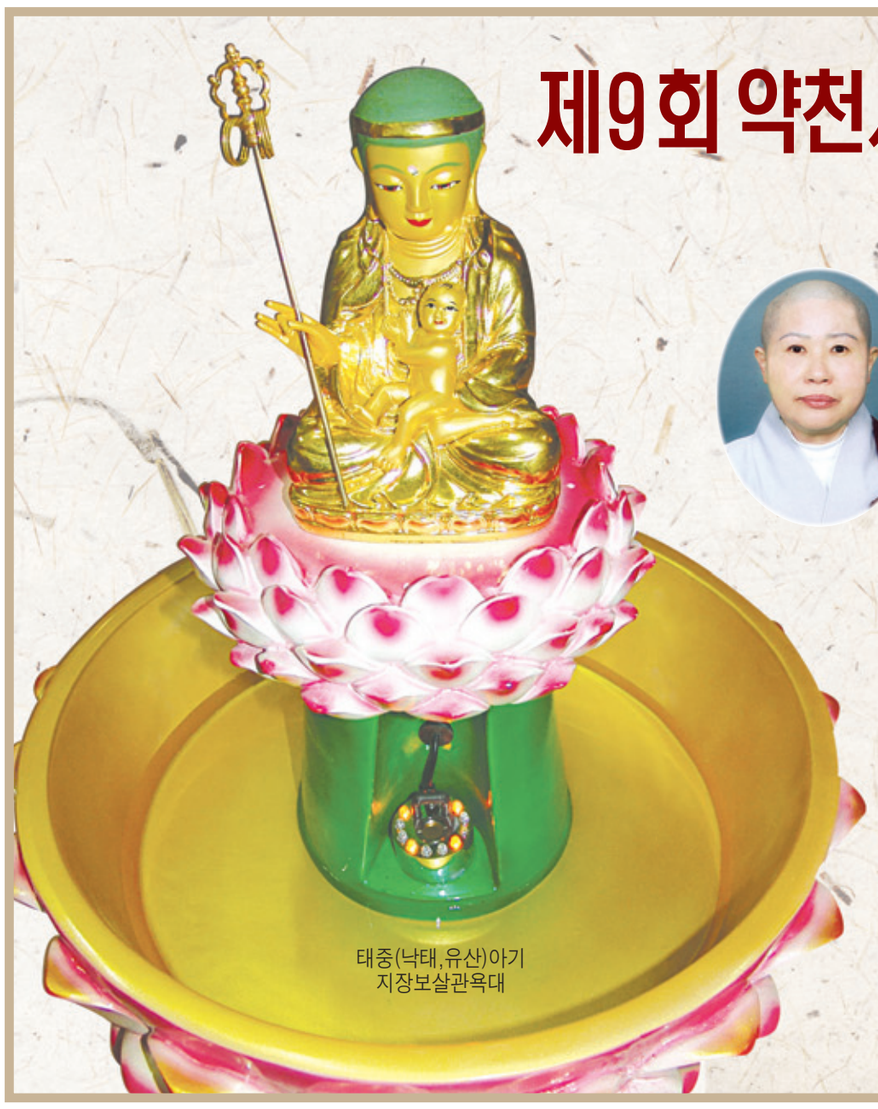
이렇게 복원된 정업원이었지만 성종 때 와서 불거진 불교배척의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1년(1470) 9월 예조가 도성 내 사찰을 없애자고 하자 관청에서 창건한 사찰과 사당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짓도록 하였다. 6년(1475)에는 비구니들이 도성 안에 여염집과 섞여 살아 품행을 어지럽힌다는 원상들의 의견에 비구니 사찰을 헐게 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11년(1480) 정업원의 노비를 각 관사에 나누어 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9년(1503) 11월 정업원 주변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였고, 10년(1504) 7월에는 이곳의 비구니를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면서 결국 정업원은 없어지게 되었다. 폐사된 정업원은 중종 때 사대부의 독서당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독서당이 동호(東湖)로 옮겨지면서 빈터로 남게 되었다.

이런 정업원이 다시 세워진 것은 명종 때 문정왕후 덕분이었다. 명종 1년(1546) 7월 왕후는 선왕의 후궁을 위하여 인수궁을 지으면서 별도로 정업원을 세우려 하였다. 이때 관리들은 후궁을 위해 인수궁을 세우는 일은 괜찮으나 비구니를 위해 정업원을 세우는 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렇지만 명종은 4년(1549) 11월 정업원 터에다 인수궁을 지었다. 그리고 후궁이 질병을 앓게 될 경우 옮겨 살 수 있도록 정업원을 세웠다. 그때 세워진 곳이 영조가 방문한 곳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 후 명종 11년(1556) 4월 정업원이 성 동쪽 10리쯤 되는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문정왕후가 죽은 뒤 다시 시작된 불교배척으로 불교계는 선교 양종이 폐지되고, 승과도 없어지는 등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분위기는 선조가 즉위하면서 계속되었다. 정업원의 폐쇄를 주장하는 대신들과 유생들에 대해 선조는 예전부터 선왕의 후궁이 있었던 곳임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생들의 끈질긴 상소와 관리들의 배척으로 정업원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이후 광해군, 인조, 효종, 그리고 현종 등 오랜 기간 실록에도 거론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간의 뇌리에서 사라진 정업원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숙종 24년(1698) 행해진 단종의 복위와, 무너진 사릉을 고치고 글을 내린 영조의 배려 때문이다.

240년의 세월을 지내온 비각 속의 비석을 보니 세상사에 묻힌 정업원의 역사를 복원한 영조의 고마움도 크지만, 그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조선조 여인의 가련한 삶을 보는 것 같아 애절하기만 하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제9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 (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입재 : 양력 10월 16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 의 편리를 위해 '나' 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9월 2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6일 (음, 9월 20일)
- 3 재 : 양력 10월 30일 (음, 10월 4일)
- 5 재 : 양력 11월 13일 (음, 10월 1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7일 (음, 11월 3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대행 스님

나를 이끌어가는 나 자체를 똑바로 보라

여러 큰스님,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라 하는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한데 귀결돼서 한 주먹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알라신교든 힌두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부자든 풀 한 포기든 모두 생명이 있고 또 근원이 있어서, 그게 불이니만큼 불교 안에 모든 종교가, 이름이 거기에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종교 저 종교 따지면서, 내 집 네 집을 따지면서, 내 생명 네 생명을 따지면서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49년을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뜻을 바로 일러 주시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걸음도 걸은 예가 없고, 한 말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해서, 나 하나만이 독불장군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 생명이 다 같이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아니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가설이 돼 있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너나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둘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고, 수억겁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고 진화되고 화하고 나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사람 개개인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 있는가?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는 이 몸에 말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어제 내일 오늘도 없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기고 인연이 생기고 인과가 생기고 윤회가 생기고, 유전성이니 업보성이니 그 모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발견할 것인가. 나에게는 나를 이끌어 가는, 바로 수억겁 전부터 끌고 왔으며 지금까지도 진화시켜 가면서 화해서 돌아가게 하는 나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다가 상대를 두고서 부처님을 찾는다거나 상대를 두고서 갖은 이름을 다 찾으면서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한 치도 꿰뚫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서로 둘이 아니게 꿰뚫어보려면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됩니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를, 이끌어 가는 나를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나 자체가 바로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일체제불을 다 한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 꺼낸다 하더라도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자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나 하는 거를 지켜보는 그 자체가 참선인 것입니다. 좌선을 한다, 입선을 한다, 행선을 한다, 와선을 한다 하는 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 자신 주인에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그러하지마는 이 세상의 마음들을 모두 내 놓으라 해도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문을 찾아서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만 리 먼 것입니다. 천칠백 공안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천당 지옥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부처님 법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유마힐 거사의 그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과 의식과 모습이 바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됐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재에 사는 것을 지켜본다면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몸뚱이 속의 업식이, 악업 선업이 뭉쳐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니라. 네 몸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하고 네 몸속에서 벗어나야 네 몸뚱이를 굴릴 수 있으며 이 세상 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그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끓어서 술술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다는 말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팥죽 솥이라면 수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 업식이 바로 그 솥에서 나오는 죽 방울이 아니겠습니까? 제 솥에서 제 죽 방울이 일어나는 것이지 딴 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니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이 수없이, 좋게도 나오고 언짢게도 나오고 병고도 나오고 애고도 나오고 화도 일으키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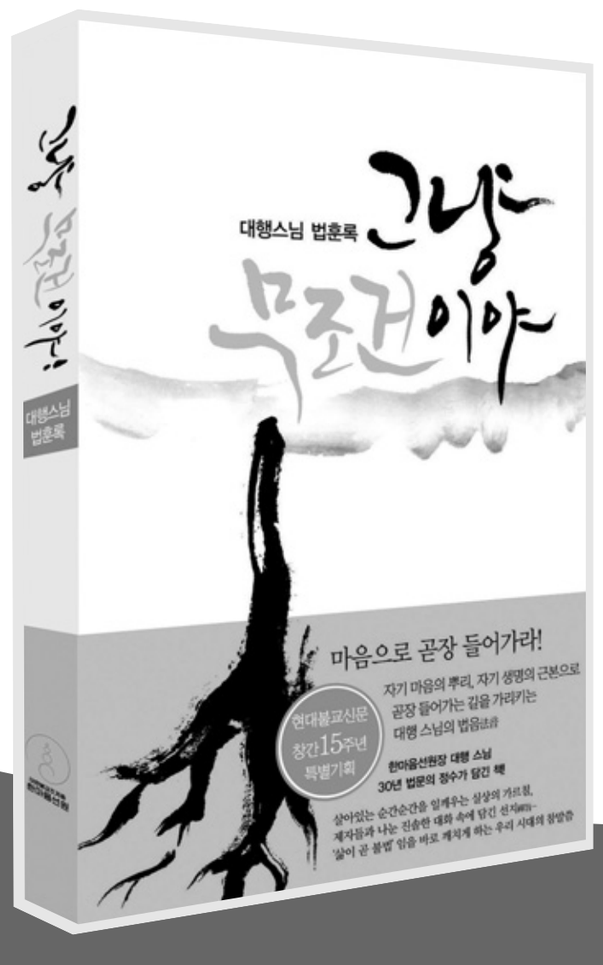
지금으로 따진다면 자동 컴퓨터죠. 숙명통이란 자동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모두 오신통은 가지고 있으나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통 속에서 벗어나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목마르면 물 한 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저 스님은 잘하고 저 스님은 못하고, 또는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망했고…, 그러면서 시비를 합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도 "저놈 저렇게 하다가는 깡통이나 차지." 하고 자식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지 여러분의 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심통이다, 천이통이다, 신족통이다, 천안통이다, 숙명통이다 하는 것도 모두 여러분



그림 · 최주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이 돼서 됩니까

☞ 29면에서 계속

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고 통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선이 있고 오심이 있어서 만법의 기준을 한데 합쳐서 오르고 내리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기들도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나 지수화풍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허무하게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내 몸뚱이도 지수화풍이라, 그래서 허망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허망치 않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참다운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깨쳤다 하더라도 바로 한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보!" 하면 금방 남편이 돼서 말도 행도 다 그렇게 나가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나가듯이 부처님 마음도, 명이 짧아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칠성으로 응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사로 응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장으로 응해 주시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 용신으로 화해 주시고, 길을 가다가 원하면 지신으로 응해 주시고, 어떠한 병고가 있고 가난해서 염원을 하면 바로 관세음으로 응해 주시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십니다. 동방에는 아촉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한마음,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게 이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 부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재가 들어서 안 되느니,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손이 있어서 못 가느니, 조상을 모시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느니, 모두 이러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탁 떼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날 이사를 가면 그게 좋은 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지금 살아나가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종교마저도 그렇게 거북해서야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 부처가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계십니다. 법당에 가시면 항상 그 형상은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니 둘이 아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일 배를 올려도 만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배를 올려도 일 배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이란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광대무변해서 모두 알 길이 없겠죠. 천당 지옥이다 하는 것도 말로만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본다면 실감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세계에 나와서 개같이 살았더랍니다. 그다음 생에 개로 화해서 개 모습을, 무명을 쓰고 나왔죠. 개 모습으로 하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로 대접을 해 주더라 이겁니다. 개 모습이니까 개 노릇을 해야 하고 개 대접을 받아야죠? 자기가 아무리 사람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라고 해 놓은 것은 모든 천차만별의 사생의



그 뜻이 그냥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계라는 것은 체로 거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르듯이 이렇게 걸러져서 위로 차원이 높아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솔솔 나오는 것은 바로 자동적인 마음의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모든 걸 거기다가 방하착 하고 놓는다면,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 수 있고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고 다 거기다 놓는다면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된 것이 몰락 무너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만 알고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고 또 속으로 남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이랬다 해서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와 세상과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고,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 어찌 감추오리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세간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실천을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원인은 실감이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에 옮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윤회성, 이 모두에 끄달려서 여러분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그 길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상대를 두고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공심으로 돌려놓는다면 만 개가 있어도 하나요, 또 하나가 있어도 만 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놓은 대로 일일이 각각 찾고 돌아다니니 자기 마음은 언제 보겠습니까? 보는 대로 자기 아님이 없고 이 세상 만물만생이 자기 아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구름이 모였다가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 자신 주인에게 맡겨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헤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듯이, 모두 돌고 돌아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짐승이든 새든 독사든 사람이든 수없이 거푸거푸 돌았기 때문입니다. 돌면서 수없이 거듭거듭 해 온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끌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되돌려 놓고 거기를 지켜보는 관을 하시란 말입니다. 관! 지켜보는 관이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을 찾을 때 저 높이 올려놓고 찾거나, 주인공을 찾는다 하더라도 둘로 보고 '주인공, 나에게 이런 걸 좀 해 주시오.' 한다면 벌써 이건 어긋나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어! 안되는 것도 주인공이 한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야!' 하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다 그냥 거기다가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부처가 만 개가 있은들 어떻습니까. 만 개도 하나요 하나도 만 개니, 칠성이다 독성이다 산신이다 약사다 지장이다 하고 따로따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의 한생각이 문수도 되고 보현도 되고 그러니까요. 한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문수요 한생각을 일으켜서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보현입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많습니까. 가정에서 금방 형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금방 친구가 됐다가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의 이름, 안에서의 이름, 그 이름 이름이 좀 많습니까. 지네가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도 걸리지 않고 여여하게 걸어가듯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부처님 법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아이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찾어?" 하든가 또 "난 기독교를 믿으니까 뭐, 불교 그까짓 마구니 소굴." 이렇게 밀쳐 버리고 마는데 그런 거는 정말이지 절대적으로 100%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란, 불법이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거를 어떻게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또 자식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든 했다고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라도 아니 되시는 게 없습니다. 돼지를 건지시려면 돼지 소굴로 들어가서 응해 주시고, 독사가 염원하면 독사로 화하시고, 찰나찰나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되실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깃줄과 전깃줄이,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니까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켰을까요? 이쪽 줄이 켰을까요, 저쪽 줄이 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스님한테 덕을 봤다든가 좋은 법을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고 저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이 법당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그 시공이 없는 진리를 진리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포함돼서 내가 가고 있는데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하거나 잠시잠깐 했다고 한다거나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법당에 갈 때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어졌다가도 도로 끊어지니까 도루묵이죠, 도루묵. 이어졌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갔던 것이 무효가 된 거죠.

앉아서 좌선을 해도, 좌선을 한다 안 한다는 이유가 붙으면 좌선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이 돼서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잠재해 있듯이, 어디서 뇌성벽력이 들어온다, 하늘이 깨져 무너진다, 밥을 굶는다, 생명이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움죽거리지 않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거를 알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등공법으로 볼 수 있고 활궁공법으로 볼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들께서 "나는 샘물도 젖지 않는다 하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알아 둬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외국에 가 보니까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가정이 많죠? 가난해서도 그렇지마는 돈이 있어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백일기도를 드리러 올라간다면서 목욕재계하고 음식도 모두 가리고 남편도 자식들도 굶주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거부하면서, 아무리 백 일 아니라 천 일을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남편은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를 하게 되고 애들은 이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정 파괴가 오고….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1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anmaum Choir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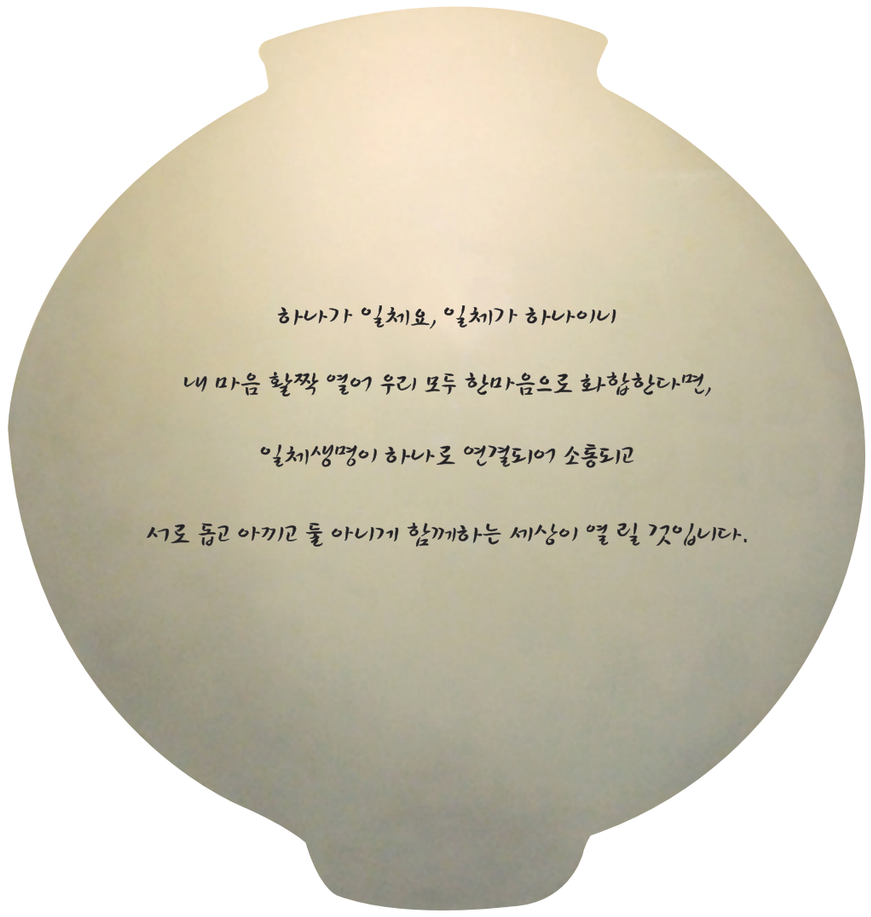
한마음 음악제

I 주 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I 일 시 1회 공연 : 2011.11.12(토) 17:00 / 2회 공연 : 2011.11.13(일) 15:00 / 3회 공연 : 2011.11.13(일) 19:00
I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I 공 연 내 용 제 1부 (선법가 공연)
- 한마음선원 스님
-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 힌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 한마음선원 해외지원합창단

제 2부 (화합대제전/재능기부 축하공연)
- 황병기(가야금 명인)
- 이춘혜(소프라노), 이승묵(테너)
- 전제덕(하모니카 연주가)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I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 의 031-470-3100
I 후 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I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사)더프라미스 지정기탁)과 (사)뷰티플마인드의 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위와 아래가 따로 만들어지지만, 불가마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달항아리, 자신을 텅 비워서 모두를 포용합니다. 너와 나, 남과 북, 나아가 세계를 잇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작가 강익중

불자 세상보기

미국포교, 합리성에 현실참여를 더해라



휘광 스님
미국 뉴욕불광선원 주지

불교에 대한 서구인 관심 날로 커져
1893년 세계종교의회서 첫 소개
영문 〈법화경〉이 미국 사회 경종
과학 · 합리 통한 재가불자 양성을

동양의 불교는 최근 수십년 사이 서구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는 불교가 미국에 처음 알려진 계기가 됐다. 헨리 소로우는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의 영문화 작업에 큰 공헌을 했다.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그의 삶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자본주의 극으로 치달았던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쯔 박사의 선불교에 대한 영어포교 역시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비트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초감트룽파 린포체는 오늘날 미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현지인 불자들의 스승으로 일컬어진다. 물론 한국의 숭산 스님 역시 현대 세계 불교계의 큰스님으로서 달라이라마, 틱낫한,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스님으로 꼽히는 분이다.

20세기 후반부터는 동남아 상좌부불교와 한국 티베트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수행불교가 미국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교가 미국에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단일화된 모습이 아닌 다양한 불교를 선보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불자들에게 계파와 문화를 초월하여 불법이 결국엔 하나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전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됐음을 느낄 수 있다.

필자가 주지로 소임하고 있는 미국 뉴욕 불광선원에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선시간이 있다. 매주 월~수요일 저녁 7시경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사찰 인근의 거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한국에서 17년간 수행한 미국인 출가자 대성 스님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매회 20여 현지인들이 참석하며 간화선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석회원들이 불교에 입문한 경위를 살펴보면 일본 동남아 베트남 인도 중국 티베트 등 불교와 접한 그 최초 인연이 다양한 것이 확인된다.

저녁 7시 참선을 시작하면 20~30여 현지인들이 조용히 법당에 들어와 정진을 한다. 월~수요일 매일 참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직장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1주일에 한 두 번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진 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그들 모두는 화두공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집중하거나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또는 자기의 전공분야(정신분석, 심리치료 등)의 향상이나 개인의 영성개발을 위해 명상을 한다고 한다. 다수의 미국불교인들은 불교를 종교적 측면보다는 자아성찰에 중점을 둔 수행명상불교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미국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재가수행 위주의 미국 불교가 이러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현실참여의 빈도를 높인다면 미국불교의 앞날은 밝다.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 공존함으로서 새로운 제3의 정신문명 탄생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재가불자 수행은 새로운 정신문화탄생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이념도 일반화 될 수 없는 미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역사의 이러한 수레바퀴의 흐름을 어느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사부대중 칼럼

완간이 장한 일만은 아니다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정확한 번역서, 역주서 부족하고
동국역경원 주석은 대부분 부실
불교 전적 온전히 번역되려면
종단과 국가의 바른 지원 절실

어릴 적 꿈인 '깨달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던 것일까. 우리 한국불교사상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평가되는 원효를 만나 그의 저술을 판독하는 일은 깨닫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됐고, 그래서 원효에 매달린 지 20여 년 만에 〈대승기신론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의 역주서를 내었다. 또 10년 간격으로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이장의(二章義)〉 등의 역주서가 차례로 나왔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보다 훌륭한 작업을 위해 원문 이해에 필요한 한문 · 논리학 · 유식 · 구사 · 중관 등의 공부도 병행했기 때문이다. 또 팀을 만들어 몇 차례(보통 3~4회)나 절차탁마를 하느라 시일이 더 소요됐다.

40여 년 전 한국의 불교사상가들을 섭렵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서 내지 역주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원효(元曉)를, 의상(義湘)을, 지눌(知訥)을, 기화(己和)를, 휴정(休靜)을 제대로 알고 이들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저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역주서가 선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사상사 전반을 개괄하고, 번역하려는 저술의 언어(한문 경전인 경우) 즉,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10년 이상 공부해야 하며, 번역 대상서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유식이면 유식, 구사면 구사, 중관이면 중관 그 밖의 논리적인 사고방식 등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한다.

불경의 번역은 하루아침에 뚝딱 일본의 〈국역일체경(國譯一切經)〉이나 재번역하는 수준이어서는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주석이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마나한 주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십수년 전 두어 차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완간에 대한 축하 및 반성의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역경원의 번역서를 재검토해야 하며, 그러려면 일종의 도제양성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문 · 철학 · 논리학 · 구사 · 유식 · 화엄 등의 과목을 학습시키고, 나아가 어떤 하나의 저술을 역주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철저히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마이동풍으로 끝나 버린 것 같았다. 그 뒤 불교신문 등에 수차례 이런 내용을 역설했으나, 역시 무반응이었다. 오역이라도 완간된 것만으로 장한 일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 안주하는 태도들이었다. 불교 전적의 훌륭한 번역을 위한 나의 비원은 이렇게 무참히 묵살되어 버렸다.

국립고전국역원에서는 국역사 양성을 위해 국역원 자체뿐 아니라 국역사 석 · 박사 과정을 성균관대와 제휴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 기타 중요 문집의 초역에만도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를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역원 자체뿐 아니라 지방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국역사업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 불교 전적들의 보다 철저한 역주를 위해 우리 불교계에도 도제양성까지 염두에 둔 또 하나의 독립된 고전국역원의 성립을 제창을 바라 마지않는다.

이는 대학과 종단에서 다 같이 힘을 합해 국가의 지원까지 끌어내는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는 날까지는 일단 원효에 매달려 보겠지만, 우리 불교사상가들에 대한 보다 빠른, 보다 많은 역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후학 양성을 포함한 종단 내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社說

정부는 대북 원칙부터 똑바로

10월 13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낙성 4주년을 기념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남북 불자들은 대결 ·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소통으로 만들기 위한 염원이 뜨거웠다고 한다.

통일부는 민추본이 방북을 하루 앞둔 12일, 돌연 방북을 불허했다가 다시 허용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그러는 동안 조계종은 수차례 확인 과정을 거치며 북측에 행사 취소까지 통보해야 했다.

남북은 반세기 넘게 갈라져 남남으로 지내왔다. 서로 총칼을 겨누며 죽고 죽이며 피 흘린 상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을 만회할 묘법이 조계종이 대북 교류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공존과 상생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교류 · 협력 등을 제한했던 정부는 9월 3일 조계종 방북단의 평양행을 승인하며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라는 점과 올해가 민족유산인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방북 승인을 불허하려 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선 말기, 민초들이 조정에 등 돌렸던 것은 내정의 실책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의 실패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흥원의 진취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10월 14일, 제13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에 김규칠 이사가 추대됐다. 민병천 前 이사장이 타계한지 열흘만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흥원의 새 이사장 선출은 민 前 이사장의 49재가 끝난 다음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상까지는 고인에 대한 예의 · 배려에서라도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생각들이 여지없이 틀렸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번 인선에서 '상중'이라는 경우를 따지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칠 신임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더뎌 두뇌는 작고 몸집만 거대한 공룡으로 묘사되던 진흥원의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앞으로 있을 긍정적인 변화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진흥원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진흥원의 지원 한번 받지 않은 종단 · 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진흥원이 금번 이사회에서 김규칠 신임 이사장을 추대하며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가기로 다시금 마음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이사장 직무대행이던 진흥원 원로 배명인 이사는 자신을 향한 임원진들의 추대 의사를 끝까지 고사하며 진흥원의 세대교체 및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배명인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진흥원 이사들의 용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김규칠 새 이사장이 이끄는 진흥원이 설립취지에 120% 부응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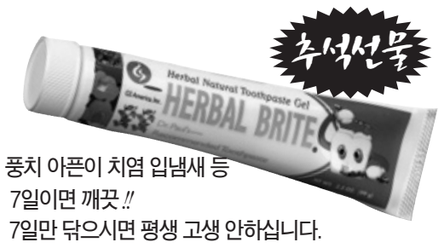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도모집
(사)생활불교조계종
(사)생활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갈 종도분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 일 다 정
사 무 총 장 우 경 유영준
기 획 실 장 법왕자 이해수
운영위원장 구 당 김해섭
재 무 국 장 명 운 정경자
감 찰 원 장 도 선 이중환
포 교 실 장 충현사 곽미숙
상벌위원장 법 륜 임재승
기 획 국 장 김종혁
총본산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태화산 약사사
전 화 : 041)841-9339
010-5453-728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추석선물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현대불교와 불서총판운주사가 함께하는

불서도서 BEST 12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과
현불샵 (02-2004-8213)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최상승해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정혜불이의 최상승법문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고목 지음 | 478쪽 | A5 | 값 17,000원 |
도서출판 밀양

오직 마음일 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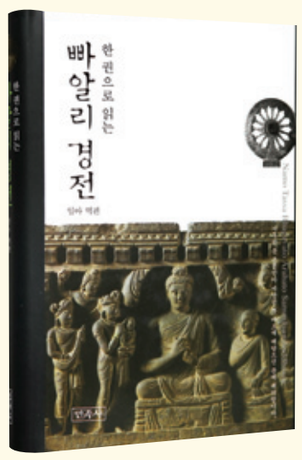
유식의 세계

한글세대 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는 한글과 영어를 통해 유식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교재이다. 유식학은 일상속으로 마음과 진리와 과학을 조화롭게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지혜의 보고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상응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 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논서이자 수행서를 만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 299쪽 | A5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밀양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빠알리 경전, 한 권으로 이해하라!

불교경전 중에서도 원전은 '빠알리 경전'이다. '빠알리 경전'은 직계 제자들의 암송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모두 이 빠알리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경전에서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지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감명 깊은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뇌하는 부처님의 진솔한 모습,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연민 등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경전은 오직 빠알리 경전뿐이다.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역자 일아스님은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에서 〈빠알리 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학위 논문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빠알리 경전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빠알리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간단, 소박하고 순수하며,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아 역음 | 양장 | 752쪽 | A5 | 값 28,000원 **민족사**



그래서 사랑입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진 해온 한 법사의 글 모음집



머리말에서 글쓴이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글, 설득하기보다 가슴으로 안아 주는 글, 꾸밈없이 진솔한 글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들은 그동안 부대 장병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로 보냈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 공간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는 많은 장병들에게 아침마다 인사하며 나눴던 내용들이다.

혼자 걷는 사람
좁은 길, 험한 길, 아픈 길을 걷는 이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체온으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형지 지음 | 형지 그림 | 288쪽 | B6 | 값 13,000원 **참글세상**



공겁인 空劫人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의 생생한 언행 기록한 선어록을
8년 여의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되살아난 스승의 가르침

이 책은 백봉 거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열한 명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와 녹취, 비디오 촬영에는 1년 반이 걸렸지만, 각자의 수행기 작성 등 자료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간의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백봉 거사의 감동 깊은 구도기와 깨달음,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은 재가 불자를 비롯한 출가 수행자에게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화두 타파와 깨달음, 스승의 인가(또는 인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운초 지음 | 부분 칼라 | 440쪽 | A5 | 값 16,500원 **비움과 소통**



바람이 지은 집 절

산과 산에 깃들어 있는 절집을 만나다!

한번쯤 지친 일상을 접고 산을 찾기에 알맞은 계절이다.
산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선 채로 우릴 맞지만, 산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기 일쑤다.
탐욕이 빚어내는 세상은 늘 불편하다. 산으로 가는 길은 한 번쯤은 현실에서의 부대낌을 내려놓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다. 휴식과 재충전, 혹은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다. 하지만 때론 번잡한 마음만 더욱 일으킨 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윤재학의 신작 『바람이 지은 집, 절』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줄 만큼 상큼한, 산과 그 산에 깃들어 있는 절집에 대한 책이다. 군더더기 없이 맛깔나는 글과 글만큼이나 정제된 사진을 감상하는 맛도 이 책이 주는 커다란 즐거움이다.

윤재학 지음 | 정정현 사진 | 248쪽 | 규격外 | 값 12,000원 **우리출판사**

수능엄경上

현재의 그 과학 속에 없는 답을 모두
수록한 진정한 과학의 백과사전!

인류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모조리 밝히고 있는 경전이 『수능엄경』이다. 인간 고뇌의 근본 문제는 전부 마음에 있습니다.

신神이라 자처하거나 성인聖人이라는 분들이 수없이 왔다 갔으나 그 마음의 비밀을 밝히신 분은 오직 석가세존뿐이다. 세존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그 마음으로부터 세계와 중생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명쾌하게 밝히셨다. 저 많은 성서나 경전 중에서도 불경인 『수능엄경』이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지혜의 성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전의 원제명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천명일 지음 | 양장 | 278쪽 | A5 | 값 20,000원 **지혜의나무**

산문의 향기

수행자의 만행을 통해 인생의 한 방향을 제시하며 삶의 지혜를 느끼게 해 주는 책!

오늘 날 각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자아(自我)를 넘어 대 자유를
향한 한 구도자의 삶이 한 줄기 청량제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만행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불교 법문이나 선문답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훈훈한 삶과 에피소드 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때로는 선시나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산문의 고행과 만행, 수행과정 등에서의 이야기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 않고 정감을 느끼게 한다.

각 글들의 이야기 말미에 느낌과 회향의 마음을 표현하여 우리들의 삶에 지혜의 향기로 가슴을 울려 주며 삶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있기에 가볍게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기에 좋은 책이다.

제운 스님 지음 | 양장 | 259쪽 | B6 | 값 12,000원 **지혜의나무**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불교와의 대화가 그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질문이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느낀 질문이기도 하다. 내가 불교에서 배운 것, 또는 불교의 빛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교 믿음들을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이 여전히 그리스도교 경전 및 전통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다시말해서,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2011 KBS 설특집 다큐멘터리 신학자 폴 니터의 한국 禪 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 방영

폴 니터 지음 | 정경일 역음 | 401쪽 | A5 | 값 19,000원| **클리어마인드**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이 책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쌍윳따니까야 전집의 2889개 경에서 발췌한 180개 경전을 모은 것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수행과 교리와 관련된 58개 경전을 추가하였다.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각 경전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생동감과 현실감을 높였으며, 각 주제들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과 고민들로 구성하였다

전재성 지음 | 전재성 역음 | 665쪽 | A5 | 값 30,000원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신들과 인간의 스승

한권으로 읽는 디가니까야

이 책은 다가니까야의 34개 법문에서 9개의 법문을 가려 뽑은 선집으로, 부처님 당시의 64개의 사상적 흐름을 소개하는 긴 법문에서부터 초기불교 수행의 바이블인 새김의 토대의 큰 경, 즉 대념처경이나 완전한 열반의 큰 경인 대반열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앤솔로지 지음 | 전재성 역음 |
622쪽 | A5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